창의연구 2018-01-782

부산지역 세대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설계

Policy Design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Lifestyle Between Generations in Busan

오재환 · 임호 · 박상필

BDI 부산발전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창의연구 2018-01-782

부산지역 세대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설계

연 구 진

연구책임	**오 재 환**	연구기획조정실 연구위원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공동연구	**임 호**	경영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제3장
	박 상 필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제2장
연구지원	**주 선 옥**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원
감 수	**김 형 균**	경영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요약

■ 연구개요

- 변화하는 세대의 특성 이해, 정책적 결정 반영 필요성에 대한 대응, 미래사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증진, 다양한 욕구의 반영과 효용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정책설계 시,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여 맞춤형 정책의 토대 마련과 부산지역의 세대별 맞춤형 정책 제안
-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로 시간적 범위는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변화를 예측하며, 부산시민들의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기존 세대별 정책, 세대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적 범주로 함

■ 세대에 대한 논의

- 세대 형성의 기반 요인은 코호트 진행 및 사회변동의 측면(코호트 효과, 연령구조, 계승효과, 기간효과)과 개인적 성장의 측면으로 나뉘며,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세대의 차이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의 문제, 나아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본 연구에서는 세대의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인식과 견해의 차이는 순수하게 연령의 차이에 의한 효과만이 아니라, 출생 및 성장 시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세대 간 이질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세대의 개념을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과 목표가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규정

■ 부산지역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

- 설문 조사 결과, 첫째,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책 제공의 필요성, 둘째,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를 반영한 생애설계 및 종합지원 정책 마련, 셋째, 세대별·정책별 필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반영, 세대 간 갈등 해소/극복을 위한 방안과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포용 문화 확산 및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도출
- FGI 조사 결과, 첫째,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세대별 다양한 욕구의 확인, 둘째,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의 확인, 셋째,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함

■ 부산지역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 주거,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 복지 부문 정책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지원정책 비교 매트릭스를 도출함
- 향후,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와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을 고려한 정책 설계,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예측하는 선도적인 정책 마련으로 정책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그림 1>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 결론 및 정책제언

- 세대별 정책이 삶의 긴밀성, 세대의 제특성과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맥락에서 체계적인 파악이 선행된 세대별 정책수립의 원칙 마련
-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과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 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 마을의 주민과 마을활동가 등 관계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 마을별 또는 의제별로 세대 모임 지원, 마을모임간의 원활한 교류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세대 정책 추진
- 세대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세대간 이해의 공유 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공공성, 시민성 강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을 포괄하는 공감과 세대간 이해증진의 새로운 접근 모색
- 정책적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세대초월(generation-trans)의 정책 토론회, 시민 포럼, 축제 등 세대별 참여 유도
- 시민 라이프 스타일 중심 정책 기조 마련
- 사회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참여의 제도화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3. 연구 주요 내용 ····· 5

Ⅱ. 세대에 대한 논의

1. 세대의 개념 ····· 9
2. 세대 관련 이슈 동향 ····· 15
3. 세대 연구 동향 ····· 18

Ⅲ. 부산지역 세대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27
2. 주요 조사 결과 ····· 33
3. 소결 ····· 106

Ⅳ. 부산지역 세대별 FGI 조사

1. 조사 개요 ····· 115
2. 주요 조사 결과 ····· 117
3. 소결 ····· 155

Ⅴ.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 177
2. 부산지역 ····· 193

Ⅵ.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해결 ····· 219
2.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정책 설계 ····· 224
3. 공존을 위한 세대간 공감 논의 확대 ····· 241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249
2. 정책제언 ····· 253

Abstract 257

참고문헌 259

부록 263

표목차

<표 Ⅱ-1> 학제적 접근에 따른 세대의 개념 ····· 9
<표 Ⅱ-2> 사회영역에 따른 세대 개념의 구분 ····· 10
<표 Ⅱ-3> 세대의 개념 ····· 12
<표 Ⅱ-4> 세대 형성의 기반 요인 ····· 12
<표 Ⅱ-5> 세대명칭의 유형별 특성 ····· 13
<표 Ⅱ-6> 세대 연구 동향 ····· 22
<표 Ⅲ-1> 설문 조사 : 조사 설계 ····· 27
<표 Ⅲ-2> 설문 조사 : 주요 조사 내용 ····· 28
<표 Ⅲ-3> 설문 조사 : 응답자 특성 요약 ····· 32
<표 Ⅲ-4> 주택 유형 : 응답자별 특성 ····· 34
<표 Ⅲ-5> 주택 점유형태 : 응답자별 특성 ····· 35
<표 Ⅲ-6> 거주조건 고려사항 : 응답자별 특성 ····· 37
<표 Ⅲ-7> 월 평균 소비지출액 : 응답자별 특성 ····· 38
<표 Ⅲ-8> 주 쇼핑 장소 : 응답자별 특성 ····· 40
<표 Ⅲ-9> 소비 인식 : 5점 척도 평균 ····· 41
<표 Ⅲ-10> 소비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42
<표 Ⅲ-11>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 응답자별 특성 ····· 44
<표 Ⅲ-12> 문화여가 인식 : 5점 척도 평균 ····· 46
<표 Ⅲ-13> 문화여가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47
<표 Ⅲ-14> 사회 참여 활동 빈도 : 응답자별 특성 ····· 49
<표 Ⅲ-15>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 응답자별 특성 ····· 51
<표 Ⅲ-16>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응답자별 특성 ····· 52

<표 Ⅲ-17>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응답자별 특성 ····· 54
<표 Ⅲ-18>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 응답자별 특성 ····· 56
<표 Ⅲ-19>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 응답자별 특성 ····· 58
<표 Ⅲ-20>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 응답자별 특성 60
<표 Ⅲ-21>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61
<표 Ⅲ-22> 세대 간 갈등 원인 : 응답자별 특성 ····· 63
<표 Ⅲ-23>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 우선순위 ····· 65
<표 Ⅲ-24>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 응답자별 특성 ····· 67
<표 Ⅲ-25> 가족 가치관 인식 : 5점 척도 평균 ····· 69
<표 Ⅲ-26> 가족 가치관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69
<표 Ⅲ-27> 사회활동 인식 : 5점 척도 평균 ····· 71
<표 Ⅲ-28> 사회활동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72
<표 Ⅲ-29> 가치관 : 응답자별 특성 ····· 74
<표 Ⅲ-30>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5점 척도 평균 ····· 76
<표 Ⅲ-31>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77
<표 Ⅲ-32> 부산지역 소속감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79
<표 Ⅲ-33>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80
<표 Ⅲ-34>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 응답자별 특성 ····· 82
<표 Ⅲ-35> 세대별 필요 정책 : 20대 응답자별 특성 ····· 84
<표 Ⅲ-36> 세대별 필요 정책 : 30대 응답자별 특성 ····· 85
<표 Ⅲ-37> 세대별 필요 정책 : 40대 응답자별 특성 ····· 87
<표 Ⅲ-38> 세대별 필요 정책 : 50대 응답자별 특성 ····· 88

<표 Ⅲ-39> 세대별 필요 정책 : 60대 응답자별 특성 ····· 90
<표 Ⅲ-40> 세대별 필요 정책 : 70대 응답자별 특성 ····· 91
<표 Ⅲ-41>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5점 척도 평균 93
<표 Ⅲ-42>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94
<표 Ⅲ-43>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 응답자별 특성 ··· 96
<표 Ⅲ-44> 세대통합 방안 : 5점 척도 평균 ····· 97
<표 Ⅲ-45> 세대통합 방안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 98
<표 Ⅲ-46> 세대통합 주요 과제 : 응답자별 특성 ····· 100
<표 Ⅲ-47>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 응답자별 특성 102
<표 Ⅲ-48>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 응답자별 특성104
<표 Ⅲ-49>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 응답자별 특성 ····· 106
<표 Ⅳ-1> FGI 조사 : 조사 설계 ····· 115
<표 Ⅳ-2> FGI 조사 : 주요 조사 내용 ····· 116
<표 Ⅳ-3> FGI 조사 : 응답자 특성 요약 ····· 116
<표 Ⅳ-4> 라이프 스타일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 159
<표 Ⅳ-5> 가치관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 165
<표 Ⅳ-6>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노력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 171
<표 Ⅴ-1> 기능별 재원배분(안) : 중앙정부 ····· 177
<표 Ⅴ-2>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 중앙정부 ····· 181
<표 Ⅴ-3> 기능별 재원배분(안) : 부산지역 ····· 193
<표 Ⅴ-4>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 부산시 ····· 197
<표 Ⅵ-1> 세대별 정책적 욕구 ····· 227

<표 Ⅵ-2>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지원정책 비교 매트릭스 ····· 231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 6
<그림 Ⅱ-1>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
(세대, 청년, 노인, 미래, 희망) ····· 17
<그림 Ⅱ-2>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
(세대 갈등, 청년 고용, 청년 취업, 청년 이탈, 미래 불안)
····· 17
<그림 Ⅱ-3>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
(세대 이전, 노인 취업, 생활안정, 노후 불안, 자녀 취업)
····· 18
<그림 Ⅲ-1> 설문 조사 : 응답자 특성 ····· 29
<그림 Ⅲ-2> 설문 조사 : 연령별 분포 ····· 29
<그림 Ⅲ-3> 설문 조사 : 거주지 분포 ····· 30
<그림 Ⅲ-4> 설문 조사 : 학력 분포 ····· 31
<그림 Ⅲ-5> 설문 조사 : 소득 분포 ····· 31
<그림 Ⅲ-6> 주택 유형 ····· 33
<그림 Ⅲ-7> 주택 점유형태 ····· 34
<그림 Ⅲ-8> 거주조건 고려사항 ····· 36
<그림 Ⅲ-9> 월 평균 소비지출액 ····· 38
<그림 Ⅲ-10> 주 쇼핑 장소 ····· 39
<그림 Ⅲ-11> 소비 인식 ····· 41
<그림 Ⅲ-12>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 43
<그림 Ⅲ-13> 문화여가 인식 ····· 45

<그림 Ⅲ-14> 사회 참여 활동 빈도 ····· 48
<그림 Ⅲ-15>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 50
<그림 Ⅲ-16>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51
<그림 Ⅲ-17>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53
<그림 Ⅲ-18>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 55
<그림 Ⅲ-19>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 57
<그림 Ⅲ-20>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 59
<그림 Ⅲ-21>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 ····· 61
<그림 Ⅲ-22> 세대 간 갈등 원인 ····· 62
<그림 Ⅲ-23>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 64
<그림 Ⅲ-24>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 66
<그림 Ⅲ-25> 가족 가치관 인식 ····· 68
<그림 Ⅲ-26> 사회활동 인식 ····· 71
<그림 Ⅲ-27> 가치관 ····· 73
<그림 Ⅲ-28>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76
<그림 Ⅲ-29> 부산지역 소속감 ····· 78
<그림 Ⅲ-30>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 80
<그림 Ⅲ-31>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 81
<그림 Ⅲ-32> 세대별 필요 정책 : 20대 ····· 83
<그림 Ⅲ-33> 세대별 필요 정책 : 30대 ····· 85
<그림 Ⅲ-34> 세대별 필요 정책 : 40대 ····· 86
<그림 Ⅲ-35> 세대별 필요 정책 : 50대 ····· 88
<그림 Ⅲ-36> 세대별 필요 정책 : 60대 ····· 89
<그림 Ⅲ-37> 세대별 필요 정책 : 70대 ····· 91
<그림 Ⅲ-38>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92

<그림 Ⅲ-39>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 95
<그림 Ⅲ-40> 세대통합 방안 ····· 97
<그림 Ⅲ-41> 세대통합 주요 과제 ····· 99
<그림 Ⅲ-42>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 101
<그림 Ⅲ-43>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 103
<그림 Ⅲ-44>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 105
<그림 Ⅵ-1>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와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매트릭스 ····· 228
<그림 Ⅵ-2>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 245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인간 욕구와 열망, 집단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그 역 현상도 발생한다.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변화와 집단간 변화 현상과 세대별, 세대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극심한 저출산, 사보육 및 사교육 부담, 청년 취업난 심화, 고령층 대상 사회지출의 급증, SOC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과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세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통합 등을 통해 서로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 해결 능력을 키움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뉴노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저성장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중년의 노후불안, 줄어든 기회와 늘어난 부양 부담을 안게 된 청년의 미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세대 간 구조적 갈등의 심화와 형평성의 훼손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 설계는 미래 불안 요소의 제거와 현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변화하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적 결정 반영 필요성에 대한 대

응, 미래사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구의 반영과 효용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체감형 정책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세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다양한 정책 욕구의 반영, 보다 효용성 있는 지역정책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며,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책설계 시,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여 맞춤형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즉,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 등의 조사를 통해 부산지역의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세대 연구는 주로 세대 연구, 세대 간 비교연구, 세대 가치관, 세대 갈등, 세대 통합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이러한 세대 연구들은 흔히 세대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특징이나(조성남·박숙미, 2002: 50), 세대 연구의 지역적 차원의 접근과 이에 대한 정책 전략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정에 있어서도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정책 수요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요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역과의 불일치를 해소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세대별 라이

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 조사와 기존 정책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 설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셋째, 내용적 범주로는 부산시민들의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기존 세대별 정책, 세대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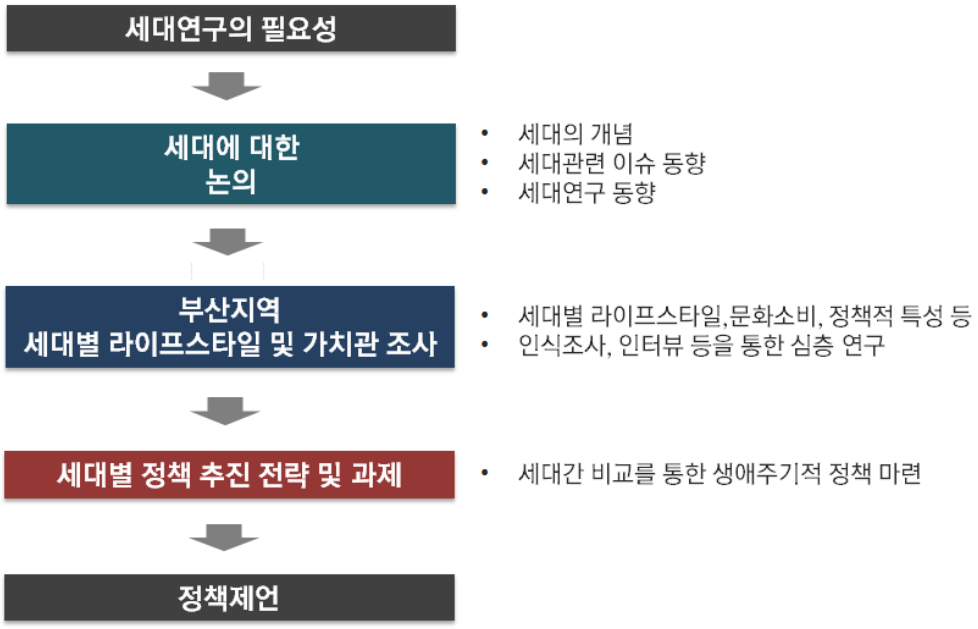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FGI) 등을 병행한다.

3. 연구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대의 개념, 세대관련 이슈 동향, 세대연구 동향 등을 통한 세대와 관련한 논의이다.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의 개념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을 함께 살펴본다. 둘째, 부산지역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를 통해 세대별 생활양식, 문화소비, 정책적 특성 등을 분석한다. 설문 조사와 FGI 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세대별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세대간 비교를 통한 생애주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한다.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Ⅱ. 세대에 대한 논의

1. 세대의 개념
2. 세대 관련 이슈 동향
3. 세대 연구 동향

||. 세대에 대한 논의

1. 세대의 개념

세대의 개념은 학제적 접근에 따라 다양하다. 동일한 생애주기(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연령효과, aging effect) 즉,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발달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예: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등)하기도 하며, 친족 가계(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정의된다. 또한 특정한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 혹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

세대의 범주, 용어, 개념, 이론의 잠재력과 그것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세대에 대한 의구심은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에 기인한다(Lücher, 1993 ; Sackmann, 1998 ; 서용석·전상진, 2013: 11에서 재인용).

<표 Ⅱ-1> 학제적 접근에 따른 세대의 개념

구분	내용
사회인류학	친족 가계(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역사학	특정한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
인구학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동일시기 출생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이때 동일 코호트로서의 세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에 의식과 행위양식면에서 동질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많은 사회영역에서 세대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의 등장과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위험해졌다는 우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상진, 2004: 31).

<표 Ⅱ-2> 사회영역에 따른 세대 개념의 구분

	특징	세대 갈등 / 투쟁의 대상	예
정치 세대	정치에 대한 특정한 지향, 가치관, 스타일	정치적 장에서의 권력 / 헤게모니	68세대, 386세대
문화 세대	삶에 대한 특정한 지향, 가치관, 스타일, 문화적 대상이나 기술적 대상에 대한 자세, 접근방식	일상문화적·문화적 실천의 장에서의 권력 / 헤게모니	매스미디어, 학문적 토론에서 양산되는 세대 개념
경제 세대	경제적 기회와 리스크의 공통성, 구조적 조건인 노동시장에서 국가나 가족에 의해 만들어짐	경제적 재화·기회 잠재적 분배 갈등 경제적 안전, 자원 배분	복지국가의 세대 계약

자료 : 서용석·전상진(2013: 26)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들에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대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 관점들로 구분될 수 있다(Kertzer, 1983). 첫째, 세대개념을 친족계보 상에서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동일한 항렬에 속한 사람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세대는 가계계승의 원리로 이해되며 가족 속에서 개인이 사회심리학적으로 거치는 발달과정과 항렬에 따른 차이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둘째, 세대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한 기간에 중요한 생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코호트(cohort)'로 이해하는 것이다.[2] 셋째,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예: 청

2)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 경험성층화 개념으로 설명했듯이 개인의 경험은 순차적으로 누적되면서 이후 경험들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소년기의 기층 경험과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개인의 의식을 형성해나가며 이렇게 성층화된 경험이 세대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심리적 속성이 된다는 것이 코호트 개념의 전제이다(최유정·최샛별, 2013).

소년 세대),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발달과정에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므로 동질적 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세대를 '생애주기상 동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자, 인간 발달 과정에서 동일과제에 직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세대를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예: 4. 19 세대)로 보는 관점으로서 이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인, 넓은 의미의 코호트 개념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개념들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점들과 각각 관련된, 생애주기 단계로서의 세대와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는 코호트로서의 세대 개념과 어느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세대 개념의 다양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코호트로서의 의미는 어느 정도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조대엽, 2002 ; 김우성·허은정, 2007: 33 ; 최유정·최샛별, 2013: 164에서 재인용).

세대를 코호트적 관점의 포괄적 시각으로 본다면,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재홍, 2009). 즉, 세대에 대한 개념의 특징은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에서 뚜렷하게 다른 시기에 출생한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집단,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 한 사회에서 출생시기가 같거나 비슷하여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그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으로 인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이호영 외, 2013 ; 김희재, 2004 ; 박재흥, 2001).

세대란, 기본적으로 '동세대'를 동일 시기의 출생집단(birth cohort)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출생시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공유하게 된 사회·경제·역사·문화적 특성이 이들에게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정체성

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표 Ⅱ-3> 세대의 개념

연구자	정의
이호영 외 (2013)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에서 뚜렷하게 다른 시기에 출생한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집단
김희재 (2004)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
박재흥 (2001)	한 사회에서 출생시기가 같거나 비슷하여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그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으로 인도하는 집단

<표 Ⅱ-4> 세대 형성의 기반 요인

구분		내용
코호트 진행 및 사회 변동의 측면	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	출생 연대가 다르면 생애의 경험, 개인적·사회 정치적 관심사가 다르며, 역사적 시기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성장하는 각 개인은 사건들을 인지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름
	연령구조 (age structure)	연령에 근거한 사회적 구분으로서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목표가 존재, 연령과 관련한 역할들이 연령구조를 구성
	계승효과 (lineage effect)	세대간 사회화의 과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고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통해 이루어짐
	기간효과 (period effect)	사회·정치적인 사건이 한 사회 내의 모든 집단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개인적 성장 (individual aging)의 측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삶의 기본적 형태 또는 모형으로서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관계를 검토(중요 선택 요소 : 직업, 결혼과 가족, 사회운동, 사회제도, 경제적·정치적 풍토, 사건 직업, 가족 및 공동체 생활의 특수한 상황 등)함으로써 이해하는 것

자료 : 조성남·박숙미(2002: 56-57)

3) 물론 동일 시기의 출생 집단 내에서도 출신계층·성장지역·개인적 경험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같은 세대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세대 귀속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김희삼, 2015: 13-14).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命名)된 세대명칭의 홍수 속에 있다. 세대명칭은 세대담론의 주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세대명칭이라는 기표(記票)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세대담론이란 궁극적으로 그 의미들의 형성과 수정,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은 첫째, 역사적 경험, 둘째,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셋째, 문화적·행태적 특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재흥, 2009: 14-15).

<표 Ⅱ-5> 세대명칭의 유형별 특성

기준		세대 명칭	특성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세대, 4.19세대, 유신세대, IMF세대, W세대, 광장세대	코호트 시각 잘 반영 정치·경제·문화적 사건과 상황의 경험 중시
	시대 특성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88만원세대	
나이/생애 단계	10년 단위	2030세대, 5060세대, 1020세대	연령/코호트효과 혼재 이념지향의 구분
	학교 급별 연령 범위	1318세대(중·고), 1315세대(중), 1618세대(고), 1924세대(대)	연령/코호트효과 혼재
	생애 단계	청년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대, 실버세대	
문화적·행태적 특성	문화적·행태적 특성	신세대, X세대, N세대, 디지털세대, IP세대, 실용파 세대(P세대), (웹)2.0세대, 실크세대	문화적·행태적 특성의 포괄적 표현
	소비 행태	P세대, WINE세대, MOSAIC세대, 2.0소비자	상업적 목적의 차별화

자료 : 박재흥(2009: 15)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세대의 차이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의 문제, 나아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대의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떤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와 다른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 내의 동질성과 인접 세대와의 차이 즉 경계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산물이다. 세대에 대한 이해 방식이 필연적으로 동일 세대 내의 공통점과 서로 상이한 세대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전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세대를 범주화하여 비교의 준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 세대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결과제가 된다(최유정·최샛별, 2013: 163).

기존의 세대연구들의 세대구분은 인구학적 연령집단(age cohort)에 근거한다. 즉, '세대'라고 명명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10대, 20대, 30대... 라는 구분법이듯, 연령집단에 의한 세대구분은 초기 세대 연구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구분법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령(age)이 사회변화의 과정과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방향이 된다는 주장[4]이나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는 생물학적 출생과 죽음의 리듬에 기초한다는 주장[5]들은 세대구분에 있어 연령효과에 기초한 사회적 구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조성남·박숙미, 2002: 42).

본 연구의 시각은 세대의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인식과 견해의 차이는 순수하게 연령의 차이에 의한 효과만이 아니라, 출생 및 성장 시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세대 간 이질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세대의 개념을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과 목표가 존재하는

4) 연령(age)은 사회조직의 기초로서 사회체계와 그룹들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적 개념이며 동시에 각 개인의 행동과 특징을 형성하는 기초개념이므로 연령(age)이 사회변화 과정과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Sorokin).

5) 각 세대는 그들에게 유용한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준거틀 안에서 생활하며 세대가 연속되는데 있어 새로운 참여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탄생한다. 즉,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는 생물학적 출생과 리듬에 기초함으로써 세대구분에서의 생물학적 연령효과를 기반으로 한다(Mannheim, 1952).

집단'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2. 세대 관련 이슈 동향

고령화·저성장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중·노년의 노후불안뿐 아니라 줄어든 기회와 늘어난 부양 부담을 안게 된 청년의 미래불안을 심화시킨다(김희삼, 2016: 5). 세대 간 갈등은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 표면적으로는 들어나지 않은 잠재적인 갈등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미래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 카인즈를 통해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을 살펴보면, 경제침체와 생계불안, 세대와 계층에 따른 갈등의 증폭, 미래에 대한 불안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대', '청년', '노인', '미래',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세대 관련 이슈 동향을 살펴보면, 이슈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증가세를 보인다. 키워드 '세대'는 1995년, 2000년, 2008년, 2011년, 2015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키워드 '청년'은 언급되는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키워드 '노인'은 2008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가장 많이 언급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미래'에 대한 이슈는 2007년을 기준으로 키워드 '세대', '청년', '노인'보다 언급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희망' 처럼 사회의 여유 있고 밝은 면을 반영하는 키워드와 관련한 이슈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세대 갈등', '청년 고용', '청년 취업', '청년 이탈', '미래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세대 관련 이슈 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취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이다. 특히, 키워드 '세대 갈등'은 '청년 취업'과 '청년 고용'의 이슈 동향과 비슷한 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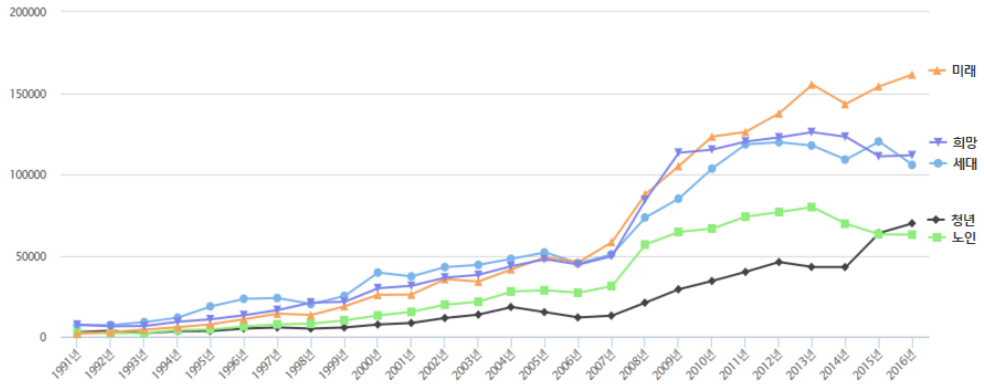
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88만원 세대,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5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포기) 세대의 등장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대 갈등은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보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공존하는 세대 간에 경험 및 문화의 이질성이 커지면서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세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김희삼, 2016: 9).[6]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의 가중은 2008년을 기준으로 '미래 불안'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생활안정', '노후 불안'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한 이슈 역시 2007년 이후 언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안정'과 관련한 언급은 2008년, 2009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노후 불안'과 관련한 언급은 2011년, 2015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취업', '자녀 취업'에 대한 이슈 동향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못지 않게 노인 일자리, 고령자 취업, 노후 대비를 위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한편, 키워드 '세대 이전'과 관련한 이슈는 2000년, 2004년, 2008년 급속한 증가와 2012년 이후 감소와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세대 관련 이슈 동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성장 둔화, 경제 불안 등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이에 따른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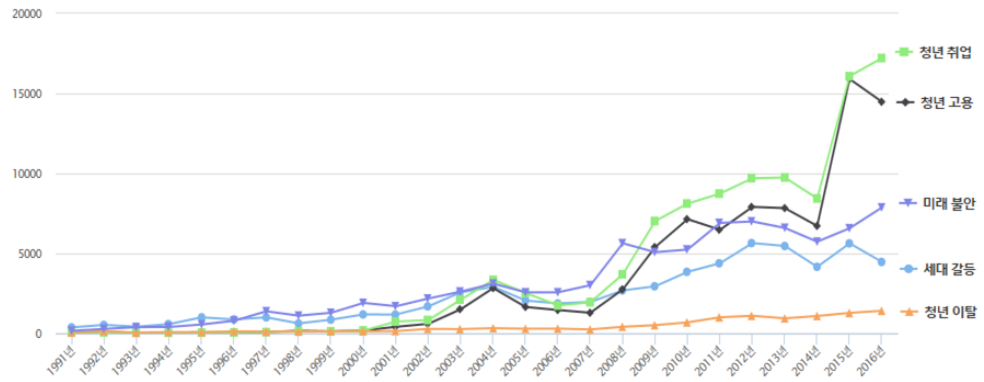
6) 세대 간 갈등을 청년과 장년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고령층 유권자 중심의 정치 환경이 주택, 연금, 세금, 일자리 등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펼쳐지도록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박종훈, 2013).



<그림 Ⅱ-1>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세대, 청년, 노인, 미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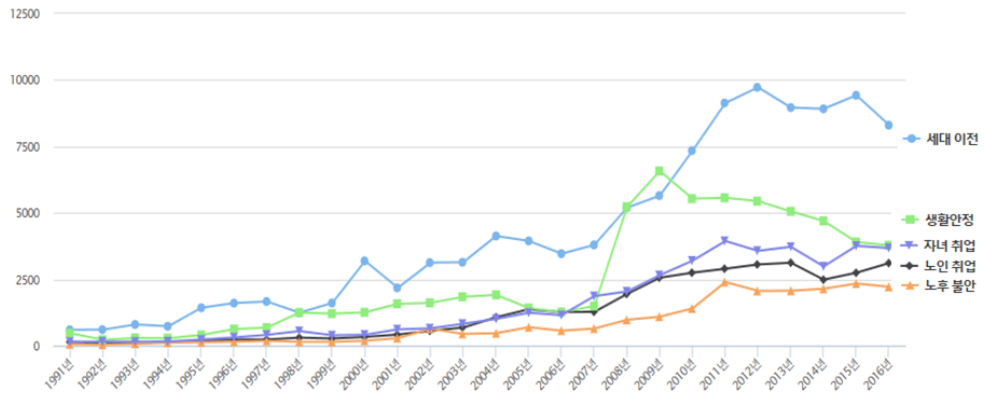
자료 : 빅 카인즈(검색일 : 2017.03.24.)



<그림 Ⅱ-2>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세대 갈등, 청년 고용, 청년 취업, 청년 이탈, 미래 불안)

자료 : 빅 카인즈(검색일 : 2017.03.24.)



<그림 Ⅱ-3> 세대 관련 이슈 동향(1991-2016)

: 키워드(세대 이전, 노인 취업, 생활안정, 노후 불안, 자녀 취업)

자료 : 빅 카인즈(검색일 : 2017.03.24.)

3. 세대 연구 동향

세대 연구는 주로 세대 연구, 세대 간 비교연구, 세대 가치관, 세대 갈등, 세대 통합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이러한 세대 연구들은 흔히 세대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특징이나(조성남·박숙미, 2002: 50), 세대연구의 지역적 차원의 접근과 이에 대한 정책 전략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세대 연구는 세대 연구 자체의 담론, 세대론, 세대 문화, 연구경향, 쟁점,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선기(2014)는 단일한 세대의 가정, 세대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 부재, 세대 연구 스스로의 성찰성 부족을 현재 세대 연구가 지닌 내재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개념[7]을 면밀하게 재검

7)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이론은 세대형성에 객관주의적 접근과 주관주의적 접근을 모두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한 출생코호트 내에도 복수의 세대단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

토함으로써 세대 연구 자체의 담론에 대해 접근하였다. 김희재(2004)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이라고 세대를 정의하고, 생활주제에 따른 세대구분(생존, 생계유지 : 50-64세대, 노년세대 / 생산, 노동 : 475세대, 386세대 / 소비, 여가 : 20대 및 1318세대, 유년세대)을 통해 한국의 세대론과 세대문화코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상진(2004)은 세대연구의 중요사안에 대한 합의의 부족을 지적하고, 부르디외(Bourdieu)의 계급이론과 아비투스 개념, 만하임(Mannheim)의 '세대 결속적 경험'의 개념에 주목, 이를 세대 이론에 접목하여 세대 형성의 조건과 계기를 통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대 간 비교 연구는 사고 및 행동양식, 소비지출, 경제활동 참가, 고용, 가계자산·소득·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것이다. 이호영 외(2013)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인터넷을 포함한 ICT를 통제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세대변수가 여전히 다른 태도나 가치관,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변수인가를 분석 및 검증을 시도하였다. 김민정(2016)은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2015)를 이용, 베이비붐 세대 1,565가구와 베이비붐 이전세대 3,151가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녀교육, 부모부양 관련 지출액이 높음(베이비붐 세대)과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유의하게 높음을 밝혀냈다. 박경돈(2016)은 세대 간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 1989~2014년까지 25년간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세대분석(Age Cohort Analysis) 결과, 전체표본이든 남녀표본이든 연령효과, 시대효과, 세대효

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도적 집단이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fresh contact)'을 개발해 내야 세대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혀냈다. 강소랑·최은영(2016)은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년도(2014) 원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베이비붐 이전세대(1941~1954년생), 베이비붐 이후세대(1964~1974년생)의 가계자산 및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향상을 위한 중요 변수로 제시하였다.

세대 가치관 연구는 삶의 질과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과 심리적 정체성, 차이와 유사성, 가치관 변화,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파악 등에 관한 것이다. 류성민 외(2011)는 7090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복지 선호도', '고용과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정치·통일 의식'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황상민 외(2003)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사이버보헤미안', '개방성', '부르주아', '여피', '전통가치', '사회의식', '수직-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수평-개인주의'(12가지 심리적 가치 기준)의 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조성남·윤옥경(2000)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 '가족가치관', '사회의식', '규범의식', '일상생활 패턴', '직장·사회생활'(5개 영역)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세대별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차이점과 유사성 분석을 시도하였고, 나은영·차유리(2010)는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및 경기 시군부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각 100명씩 할당 표집하여 800명에게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용석·전상진(2013)은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기술' 영역 세대 간 인식 조사를 통해 차이가 나는 항목(국가관, 사회 불공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성장과 분배, 정년 연장, 연금 문제, 정당 선호도,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등), 공통된 인식 항목(세대 간 소통 부재와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세대 갈등 연구는 갈등 분석, 문화적 갈등에 관한 것으로 김희삼(2015)은 KDI 세대연구(KDI Generation Study: KGS) 2015 조사 자료를 활용, 세대 간 상호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분석을 통해 갈등 진단 및 생애단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젊은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기성세대의 경험치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70세 이상 노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재흥(2009)은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1970년경의 출생시점을 분기로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 등의 문화적 갈등이 세대 균열의 깊은 골을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 통합 연구는 세대 간 공감,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등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혜영·류진한(2016)는 세대공감이 세대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 간 이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속한 세대집단이 아닌 다른 세대집단에 대한 공감 관련,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적 이해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발견하는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상호 영향력 검증 결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능력이 세대 간 이해, 소통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향은 개인의 세대 공감 정도와 구성원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경숙 외(2012)는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를 위해 20, 30, 40, 50, 60대 이상으로 세대 구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일반문항, 문화, 가족, 정치, 경제 부문으로 분석하였고, 그 중 경제 부문 관련, '갈등 완화 관련 인식'은 '가족을 매개로 한 공감',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과 '갈등 심화 관련

인식'은 구조적인 문제와 분리, 자기중심의 세대관으로 비판·판단하는 것을 밝혀냈다.

<표 Ⅱ-6> 세대연구 동향

구분		연구내용	연구자
세대 연구	세대연구 자체의 담론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개념 재검토를 통해 세대담론 개념의 구성주의적 성찰의 유용성 제시	김선기 (2014)
	세대론, 세대문화	세대에 대한 규정과 생활 주제에 따른 세대 구분	김희재 (2004)
	연구경향, 쟁점, 방법	세대형성 과정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계기의 통일체로 간주하면서, 상호대립적인 관점의 통합 모색	전상진 (2004)
세대 간 비교 연구	사고 및 행동양식	베이비붐세대와 디지털세대의 ICT사용, 사회관계, 인식 차이	이호영 외 (2013)
	소비지출, 경제활동 참가, 고용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2015) 이용, 베이비붐 세대 1,565가구와 베이비붐 이전세대 3,151가구 비교 분석 결과 자녀교육, 부모부양 관련 지출액 높음(베이비붐 세대)과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베이비붐 이후 세대)가 유의하게 높음을 분석	김민정 (2016)
		남녀표본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세대효과, 연령효과, 시대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이력효과를 검증, 1989~2014년까지 25년간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분석(Age Cohort Analysis) 실시	박경돈 (2016)
	가계자산·소득·삶의 만족도	베이비붐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가계자산 및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소랑·최은영 (2016)
세대 가치관	삶의 질과 가치관	7090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복지 선호도', '고용과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정치·통일 의식' 에 대한 조사	류성민 외 (2011)
	라이프 스타일과 심리적 정체성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사이버보헤미안', '개방성', '부르주아', '여피', '전통가치', '사회의식', '수직-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수평-개인주의'(12가지 심리적 가치 기준)의 프로파일분석	황상민 외 (2003)

	차이와 유사성	‘개인의 가치와 태도’, ‘가족가치관’, ‘사회의식’, ‘규범의식’, ‘일상생활 패턴’, ‘직장·사회생활’ (5개 영역)으로 설문조사	조성남·윤옥경 (2000)
	가치관 변화	1979년, 1998년, 2010년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결과 분석	나은영·차유리 (2010)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 파악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기술’ 영역 세대 간 인식 조사를 통해 차이가 나는 항목(국가관, 사회 불공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성장과 분배, 정년 연장, 연금 문제, 정당 선호도,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등), 공통된 인식 항목(세대 간 소통 부재와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	서용석·전상진 (2013)
세대 갈등	갈등 분석	KDI 세대연구(KDI Generation Study: KGS) 2015 조사 자료 활용, 세대 간 상호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분석을 통해 갈등 진단 및 생애단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김희삼 (2015)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의 근원이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경쟁, 불안정성, 불확실성 등으로 삶의 불안과 혼란에 있음을 지적	박경숙 외 (2013)
	문화적 갈등	1970년경의 출생시점을 분기로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 등의 문화적 갈등이 세대 균열의 깊은 골을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	박재흥 (2009)
세대 통합	세대 간 공감	세대 공감-개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오혜영·류진한 (2016)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박경숙 외 (2012)

이러한 세대연구의 개념과 연구 동향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간 가치관을 분석하여 세대간 가치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설문의 기초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대간 소통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부산지역 세대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소결

Ⅲ. 부산지역 세대별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1) 목적

본 조사는 세대 특성의 중요성과 정책적 결정 반영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산지역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설계

<표 Ⅲ-1> 설문 조사 :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조사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표본 수	- 총 1,0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0%p - 2017년 가장 최근 기준, 부산시의 성별/연령별/거주 지역별 인구규모 감안, 샘플 수 할당
조사 기간	- 2017년 5월 22일 ~ 5월 31일

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척도분석을 실시한다.

4)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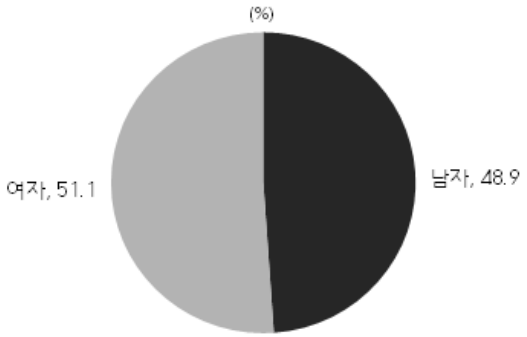
<표 Ⅲ-2> 설문 조사 :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세부 항목
라이프 스타일	- 주택 유형 - 주택 점유형태 - 거주조건 고려사항 - 월 평균 소비지출액 - 주 쇼핑 장소 - 소비 인식 -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 문화여가 인식 - 사회 참여 활동 빈도 -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사용 빈도 -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가치관	-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 부산지역 세대간 갈등 심각도 - 세대간 갈등 원인 -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 가족 가치관 인식 - 사회활동 인식 - 가치관 -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부산지역 소속감 -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 세대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정책	- 세대별 필요 정책 -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세대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 세대통합 방안 - 세대통합 주요 과제 -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 세대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 세대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5) 응답자 특성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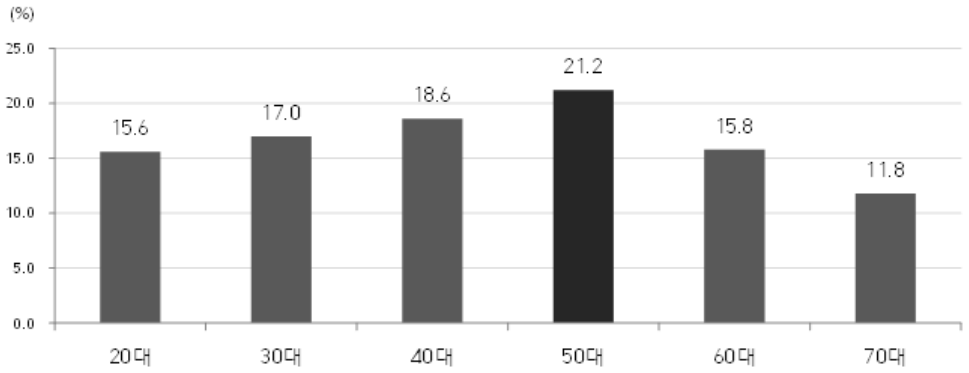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51.1%, 남자 48.9%로 나타난다.



<그림 Ⅲ-1> 설문 조사 : 응답자 특성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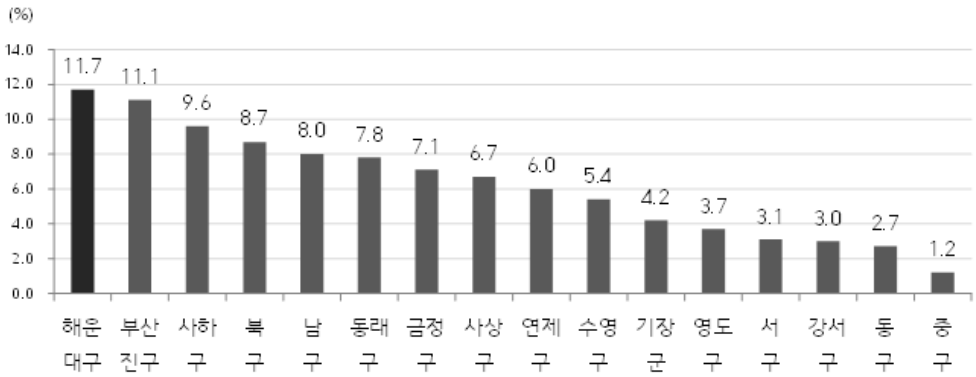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5.6%, 30대 17.0%, 40대 18.6%, 50대 21.2%, 60대 15.8%, 70대 11.8%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2> 설문 조사 : 연령별 분포

(3)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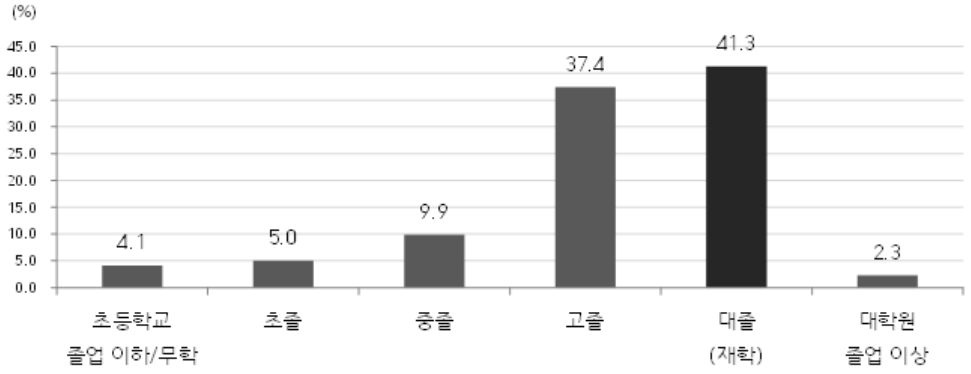
거주지를 살펴보면, 해운대구 11.7%, 부산진구 11.1%, 사하구 9.6%, 북구 8.7%, 남구 8.0%, 동래구 7.8%, 금정구 7.1%, 사상구 6.7%, 연제구 6.0%, 수영구 5.4%, 기장군 4.2%, 영도구 3.7%, 서구 3.1%, 강서구 3.0%, 동구 2.7%, 중구 1.2%로 나타난다.



<그림 Ⅲ-3> 설문 조사 : 거주지 분포

(4)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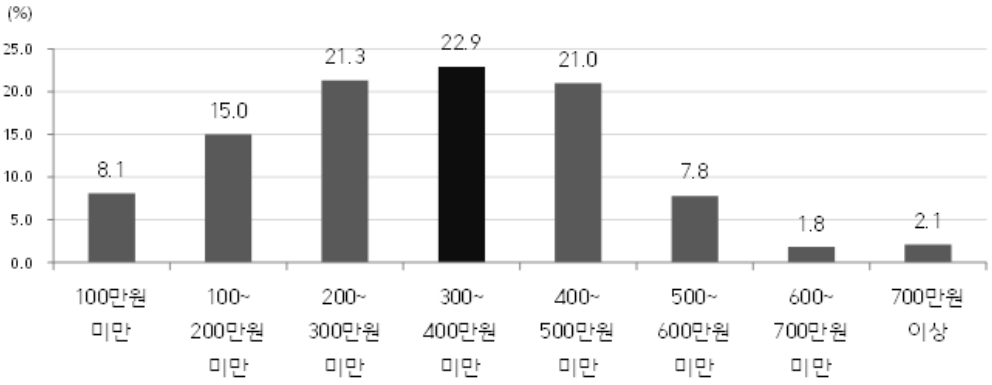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4.1%, 초졸 5.0%, 중졸 9.9%, 고졸 37.4%, 대졸(재학) 41.3%, 대학원 졸업 이상 2.3%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4> 설문 조사 : 학력 분포

(5) 소득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8.1%, 100~200만원 미만 15.0%, 200~300만원 미만 21.3%, 300~400만원 미만 22.9%, 400~500만원 미만 21.0%, 500~600만원 미만 7.8%, 600~700만원 미만 1.8%, 700만원 미만 2.1%로 나타난다.



<그림 Ⅲ-5> 설문 조사 : 소득 분포

<표 Ⅲ-3> 설문 조사 : 응답자 특성 요약

응답자 수	1,000명	빈도	백분율 (%)
성별	남자	489	48.9
	여자	511	51.1
연령	20대	156	15.6
	30대	170	17.0
	40대	186	18.6
	50대	212	21.2
	60대	158	15.8
	70대	118	11.8
거주지	해운대구	117	11.7
	부산진구	111	11.1
	사하구	96	9.6
	북구	87	8.7
	남구	80	8.0
	동래구	78	7.8
	금정구	71	7.1
	사상구	67	6.7
	연제구	60	6.0
	수영구	54	5.4
	기장군	42	4.2
	영도구	37	3.7
	서구	31	3.1
	강서구	30	3.0
	동구	27	2.7
	중구	12	1.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41	4.1
	초졸	50	5.0
	중졸	99	9.9
	고졸	374	37.4
	대졸(재학)	413	41.3
	대학원 졸업 이상	23	2.3
소득	100만원 미만	81	8.1
	100~200만원 미만	150	15.0
	200~300만원 미만	213	21.3
	300~400만원 미만	229	22.9
	400~500만원 미만	210	21.0
	500~600만원 미만	78	7.8
	600~700만원 미만	18	1.8
	700만원 이상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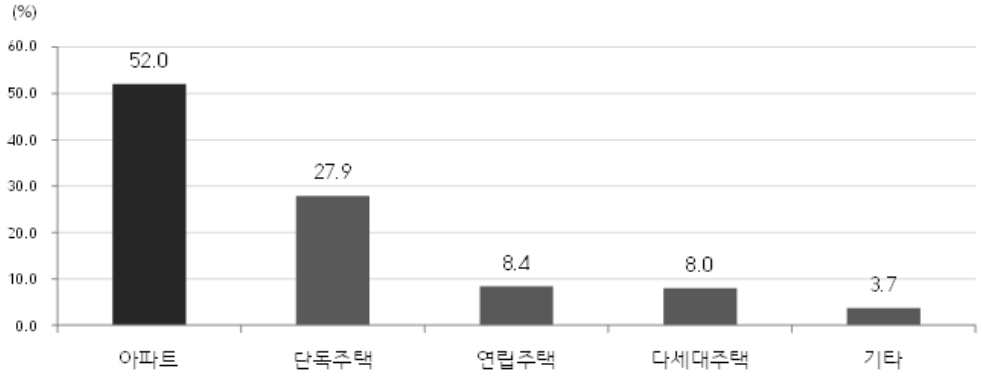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

1) 라이프 스타일

(1) 주택 유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5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27.9%, 연립주택 8.4%, 다세대주택 8.0%로 나타난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6> 주택 유형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는 아파트, 60대와 70대는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주택 유형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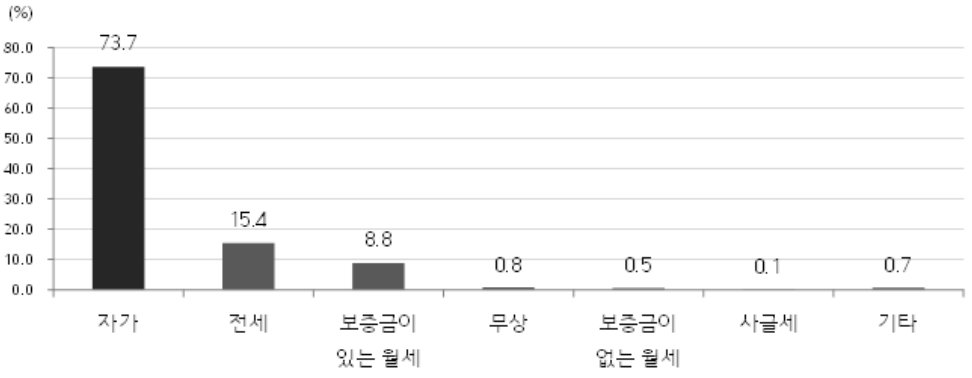
(보기제시,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아파트	52.0	53.6	50.5	48.7	67.6	61.3	55.2	39.9	29.7	37.7	55.1	63.2
단독주택	27.9	27.8	28.0	19.2	15.9	23.1	28.8	37.3	50.0	35.1	26.4	22.2
연립주택	8.4	7.6	9.2	10.3	5.9	5.9	8.0	12.0	9.3	10.8	8.1	5.1
다세대주택	8.0	7.6	8.4	11.5	5.9	8.1	6.6	8.2	8.5	10.8	7.2	6.8
기타	3.7	3.5	3.9	10.3	4.7	1.6	1.4	2.5	2.5	5.6	3.2	2.6

(2) 주택 점유형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73.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세 15.4%, 보증금이 있는 월세 8.8%, 무상 0.8%, 보증금이 없는 월세 0.5%, 사글세 0.1%로 나타난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7> 주택 점유형태

20대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30대는 전세, 60대와 70대는 자가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Ⅲ-5> 주택 점유형태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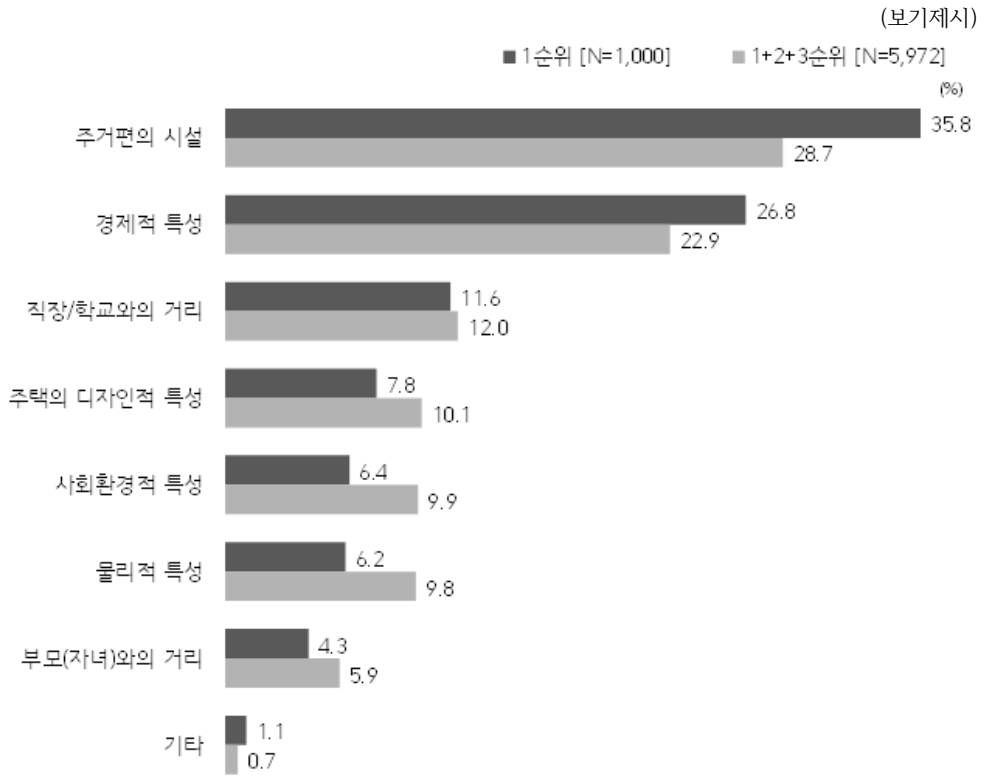
(보기제시,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자가	73.7	74.0	73.4	66.0	61.2	68.8	77.8	84.2	88.1	69.7	74.1	79.5
전세	15.4	14.7	16.0	14.7	26.5	19.9	11.8	8.9	8.5	12.6	16.7	13.7
보증금이 있는 월세	8.8	9.2	8.4	16.0	8.8	10.2	9.0	5.1	1.7	13.4	7.7	6.0
무상	0.8	1.0	0.6	1.3	1.2	0.0	0.9	0.6	0.8	2.2	0.5	0.0
보증금이 없는 월세	0.5	0.6	0.4	0.0	0.6	0.0	0.5	1.3	0.8	0.9	0.3	0.9
사글세	0.1	0.2	0.0	0.6	0.0	0.0	0.0	0.0	0.0	0.4	0.0	0.0
기타	0.7	0.2	1.2	1.3	1.8	1.1	0.0	0.0	0.0	0.9	0.8	0.0

(3) 거주조건 고려사항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주조건을 살펴보면, 주거편의시설이 28.7%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특성 22.9%, 직장/학교와의 거리 12.0%, 주택의 디자인적 특성 10.1%, 사회환경적 특성 9.9%, 물리적 특성 9.8%, 부모(자녀)와의 거리 5.9%의 순으로 나타난다(1+2+3순위 응답 기준임).

거주조건 중에서는 쇼핑, 의료 등 공공시설이용의 편의성과 관련된 주거편의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구입가격과 재건축/재개발 가능성 등 경제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 거주조건 고려사항

*1+2+3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100% 환산 기준

40대는 직장/학교와의 거리, 70대는 물리적 특성을 거주조건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6> 거주조건 고려사항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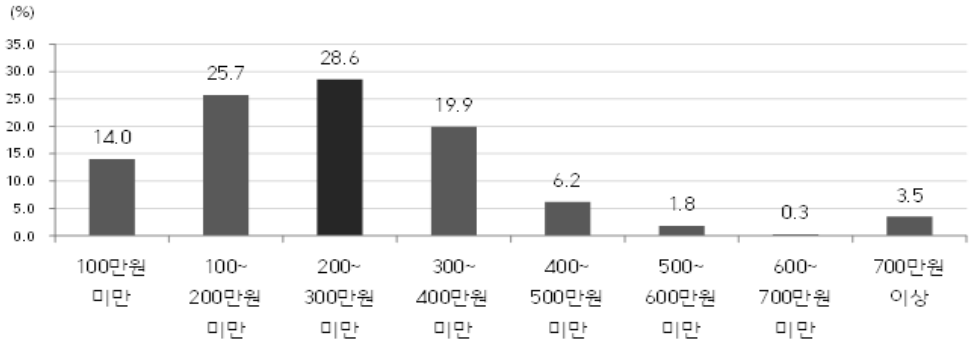
(보기제시, 1+2+3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5,972	2,925	3,047	934	1,020	1,112	1,267	940	699	1,378	3,892	702
주거편의 시설	28.7	28.8	28.6	26.6	29.8	29.2	29.3	28.5	28.3	25.3	29.5	30.9
경제적 특성	22.9	23.5	22.4	24.0	24.9	21.8	23.0	21.8	21.6	21.0	23.4	24.1
직장/학교와의 거리	12.0	12.4	11.5	15.0	15.1	17.0	12.8	5.4	2.7	9.9	12.3	14.4
주택의 디자인적 특성	10.1	10.0	10.2	12.1	9.3	9.3	9.6	10.9	9.9	10.3	10.4	8.3
사회환경적 특성	9.9	9.7	10.1	10.7	8.7	8.7	9.4	11.4	11.6	13.0	9.4	7.0
물리적 특성	9.8	9.9	9.7	8.1	6.8	7.5	9.2	13.7	16.2	13.1	8.9	8.7
부모(자녀)와의 거리	5.9	5.1	6.7	3.5	4.7	6.2	5.7	7.2	8.9	6.5	5.7	6.0
기타	0.7	0.6	0.7	0.0	0.7	0.4	0.9	1.1	0.9	0.9	0.6	0.7

(4) 월 평균 소비지출액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14.0%, 100~200만원 미만 25.7%, 200~300만원 미만 28.6%, 300~400만원 미만 19.9%, 400~500만원 미만 6.2%, 500~600만원 미만 1.8%, 600~700만원 미만 0.3%, 700만원 이상 3.5%로 나타난다. 즉,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월평균 300만원 미만으로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9> 월 평균 소비지출액

20대는 100만원 미만, 30대는 200~300만원 미만, 40대는 300~500만원 미만, 50대 200~300만원 미만, 60대와 70대는 200만원 미만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다가 50대 이후로는 소비지출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7> 월 평균 소비지출액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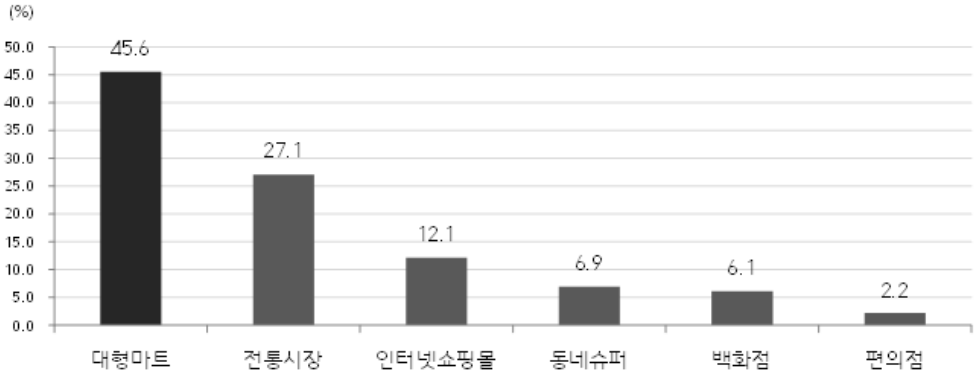
(보기제시,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00만원 미만	14.0	11.0	16.8	19.9	2.9	4.3	3.3	19.6	49.2	50.6	3.4	0.9
100~200만원 미만	25.7	24.7	26.6	19.9	26.5	11.3	20.3	46.8	36.4	38.5	25.6	0.9
200~300만원 미만	28.6	33.7	23.7	25.6	36.5	30.6	38.2	21.5	10.2	4.8	39.6	14.5
300~400만원 미만	19.9	19.4	20.4	24.4	20.0	32.8	24.5	8.2	0.8	2.6	23.9	31.6
400~500만원 미만	6.2	5.7	6.7	5.1	4.7	11.8	8.0	3.2	1.7	0.9	3.5	31.6
500~600만원 미만	1.8	1.4	2.2	1.3	1.2	4.3	2.4	0.0	0.8	0.9	1.2	6.8
600~700만원 미만	0.3	0.2	0.4	0.0	0.6	0.0	0.9	0.0	0.0	0.0	0.2	1.7
700만원 이상	3.5	3.7	3.3	3.8	7.6	4.8	2.4	0.6	0.8	1.7	2.6	12.0

(5) 주 쇼핑 장소

지난 1년간 주로 쇼핑한 장소를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45.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27.1%, 인터넷쇼핑몰 12.1%, 동네슈퍼 6.9%, 백화점 6.1%, 편의점 2.2%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쇼핑몰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10> 주 쇼핑 장소

20대는 인터넷쇼핑몰과 편의점, 30대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40대와 50대는 대형마트, 60대와 70대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대는 인터넷쇼핑몰, 30~50대는 대형마트, 60~70대는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표 Ⅲ-8> 주 쇼핑 장소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대형마트	45.6	49.7	41.7	34.0	57.6	67.7	57.1	27.8	11.9	22.9	51.7	56.4
전통시장	27.1	21.9	32.1	1.9	4.7	11.3	30.7	53.8	75.4	45.9	23.2	12.0
인터넷쇼핑몰	12.1	9.8	14.3	35.3	25.3	7.0	3.8	1.3	0.0	13.4	11.5	12.8
동네슈퍼	6.9	8.6	5.3	7.1	2.9	4.3	5.2	13.9	10.2	11.3	6.1	2.6
백화점	6.1	6.1	6.1	10.3	7.6	9.7	3.3	2.5	2.5	3.0	5.5	15.4
편의점	2.2	3.9	0.6	11.5	1.8	0.0	0.0	0.6	0.0	3.5	2.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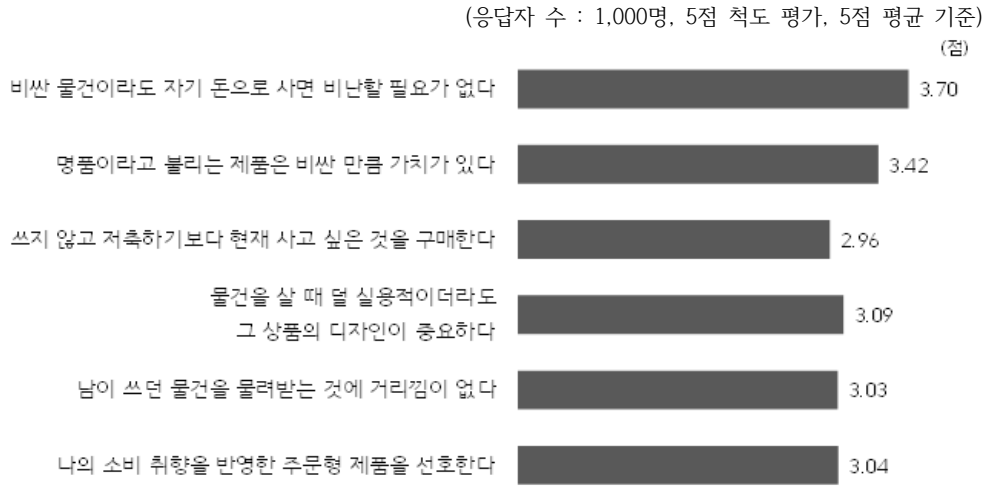
(6) 소비 인식

일반적인 소비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싼 물건이라도 자기 돈으로 사면 비난할 필요가 없다 3.70점,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 3.4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 다음으로는 물건을 살 때 덜 실용적이더라도 그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3.09점, 나의 소비 취향을 반영한 주문형 제품을 선호한다 3.04점, 남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3.03점, 쓰지 않고 저축하기보다 현재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 2.96점으로 평가한다.

즉, 고가의 제품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알 수 있다.

20~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지향하는 소비를 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70대로 대표되는 노인층은 물건을 재활용하는 등의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 소비 인식

<표 Ⅲ-9> 소비 인식 : 5점 척도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비싼 물건이라도 자기 돈으로 사면 비난할 필요가 없다	26	2.6	97	9.7	193	19.3	519	51.9	165	16.5	3.70
2)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	32	3.2	156	15.6	287	28.7	415	41.5	110	11.0	3.42
3) 쓰지 않고 저축하기보다 현재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	48	4.8	271	27.1	398	39.8	243	24.3	40	4.0	2.96
4) 물건을 살 때 덜 실용적이더라도 그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46	4.6	220	22.0	380	38.0	310	31.0	44	4.4	3.09
5) 남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79	7.9	200	20.0	395	39.5	264	26.4	62	6.2	3.03
6) 나의 소비 취향을 반영한 주문형 제품을 선호한다	47	4.7	201	20.1	458	45.8	256	25.6	38	3.8	3.04

<표 Ⅲ-10> 소비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동의하는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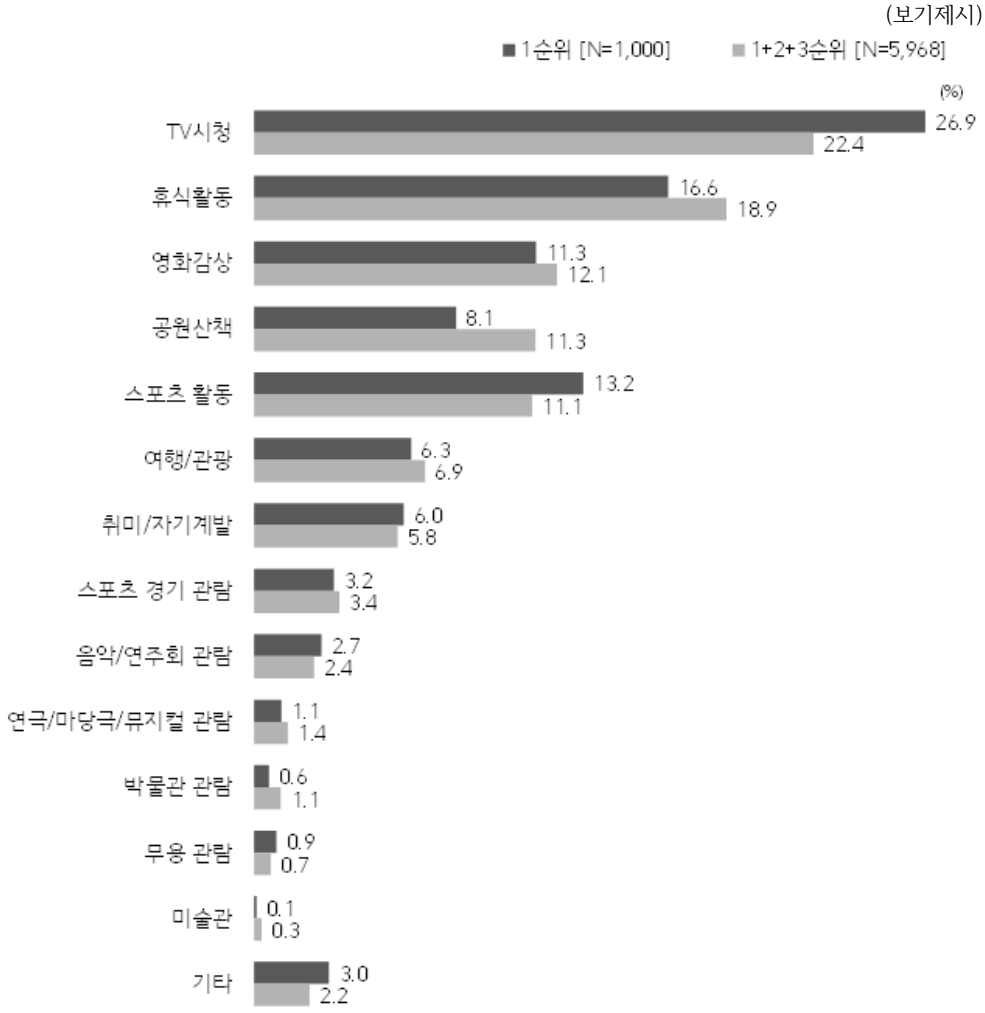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비싼 물건이라도 자기 돈으로 사면 비난할 필요가 없다	68.4	66.9	69.9	80.8	68.8	73.1	66.5	58.2	61.0	59.3	71.2	70.9
2)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	52.5	50.9	54.0	60.9	58.8	60.2	46.2	41.8	45.8	38.5	56.6	57.3
3) 쓰지 않고 저축하기보다 현재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	28.3	27.6	29.0	39.1	28.2	31.2	24.5	21.5	25.4	29.9	26.7	34.2
4) 물건을 살 때 덜 실용적이더라도 그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35.4	34.4	36.4	41.7	35.9	43.0	31.6	29.1	29.7	26.0	37.9	40.2
5) 남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32.6	28.4	36.6	29.5	31.2	27.4	34.9	34.8	39.8	34.2	33.1	26.5
6) 나의 소비 취향을 반영한 주문형 제품을 선호한다	29.4	32.1	26.8	38.5	32.9	32.8	29.2	20.9	18.6	22.1	31.1	34.2

(7)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지난 1년간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많이 한 문화여가활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TV시청 22.4%, 휴식활동 18.9%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화감상 12.1%, 공원산책 11.3%, 스포츠 활동 11.1%, 여행/관광 6.9%, 취미/자기계발 5.8% 스포츠 경기 관람 3.4%, 음악/연주회 관람 2.4%, 연극/마당극/뮤지컬 관람 1.4%, 박물관 관람 1.1%, 무용 관람 0.7%, 미술관 관람 0.3%의 순으로 나타난다(1+2+3순위 응답 기준임).

주말이나 휴일에 TV시청이나 휴식활동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문

화여가활동을 주로 즐기고 있으며, 여행이나 관광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나 연극, 뮤지컬, 박물관 등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2>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1+2+3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100% 환산 기준

20대와 30대는 영화감상, 50대는 스포츠 활동, 60대와 70대는 TV시청과 공원산책을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20대와 30대는 능동적이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형태의 문화여가활동을 주로 즐기는 반면에 노인층은 TV시청으로 대표되는 수동적이거나 추가의 비용이 필요 없는 산책과 같은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11>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3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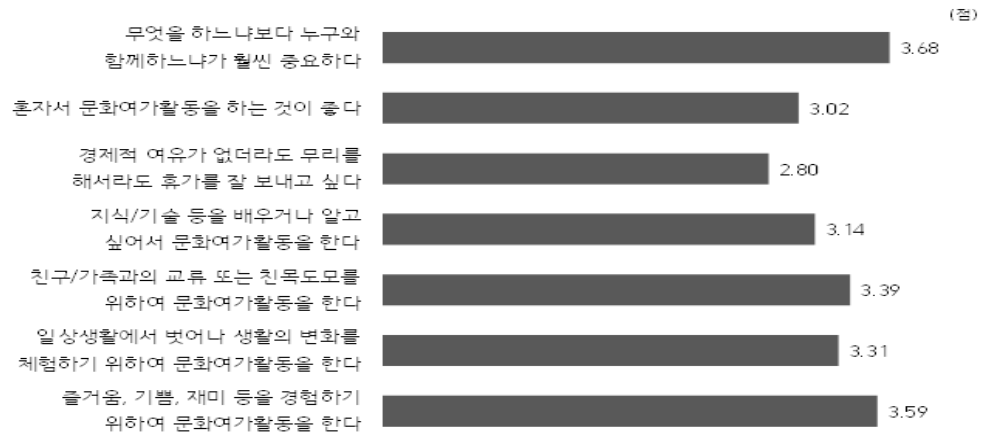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5,968	2,927	3,041	933	1,018	1,115	1,265	938	699	1,375	3,896	697
TV시청	22.4	20.1	24.7	16.4	15.8	19.3	22.5	28.9	36.2	30.8	20.7	15.6
휴식활동	18.9	16.3	21.4	13.7	17.4	21.5	19.4	19.3	22.6	16.7	20.2	16.4
영화감상	12.1	12.2	12.1	26.7	19.1	13.5	7.4	2.9	1.6	9.7	12.2	16.8
공원산책	11.3	10.1	12.4	4.6	8.7	8.8	12.0	16.7	19.2	15.1	10.3	8.9
스포츠 활동	11.1	15.4	7.1	4.3	7.4	13.2	17.5	13.9	7.4	8.7	12.3	9.8
여행/관광	6.9	6.4	7.3	8.3	8.8	8.6	7.2	4.9	1.3	5.4	6.7	10.5
취미/자기계발	5.8	5.5	6.0	8.9	5.1	4.7	5.7	5.5	4.7	5.2	5.9	6.2
스포츠 경기 관람	3.4	5.7	1.2	7.0	5.4	4.0	1.7	1.6	0.4	2.0	3.7	4.3
음악/연주회 관람	2.4	2.9	1.9	3.8	3.3	1.5	1.8	2.5	1.7	2.5	2.3	3.2
연극/마당극/ 뮤지컬 관람	1.4	0.9	1.8	1.5	2.2	1.5	1.3	1.0	0.4	0.5	1.4	2.6
박물관 관람	1.1	1.3	0.9	0.6	2.7	1.8	0.4	0.3	0.4	0.7	0.9	2.9
무용 관람	0.7	1.0	0.4	1.1	1.4	0.3	0.1	0.6	0.9	0.6	0.8	0.0
미술관	0.3	0.3	0.3	0.1	0.6	0.2	0.2	0.4	0.3	0.4	0.2	0.7
기타	2.2	1.9	2.6	3.1	2.2	1.2	2.8	1.5	2.9	1.6	2.4	2.3

(8) 문화여가 인식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3.68점,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5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족과의 교류 또는 친목도모를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39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31점,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14점, 혼자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3.02점,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잘 보내고 싶다 2.80점으로 평가한다.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반자와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유 또한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평균 기준)



<그림 Ⅲ-13> 문화여가 인식

<표 Ⅲ-12> 문화여가 인식 : 5점 척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5점 척도 평균 (단위: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23	2.3	110	11.0	208	20.8	482	48.2	177	17.7	3.68
2) 혼자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71	7.1	253	25.3	318	31.8	301	30.1	57	5.7	3.02
3)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잘 보내고 싶다	89	8.9	327	32.7	317	31.7	226	22.6	41	4.1	2.80
4)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0	3.0	204	20.4	414	41.4	301	30.1	51	5.1	3.14
5) 친구/가족과의 교류 또는 친목도모를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20	2.0	121	12.1	363	36.3	437	43.7	59	5.9	3.39
6)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18	1.8	145	14.5	408	40.8	366	36.6	63	6.3	3.31
7)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10	1.0	58	5.8	366	36.6	462	46.2	104	10.4	3.59

20대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0대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40대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50대는 친구/가족과의 교류 또는 친

목도모를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항목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젊은 층은 동반자의 중요성과 지식습득, 일상의 변화,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층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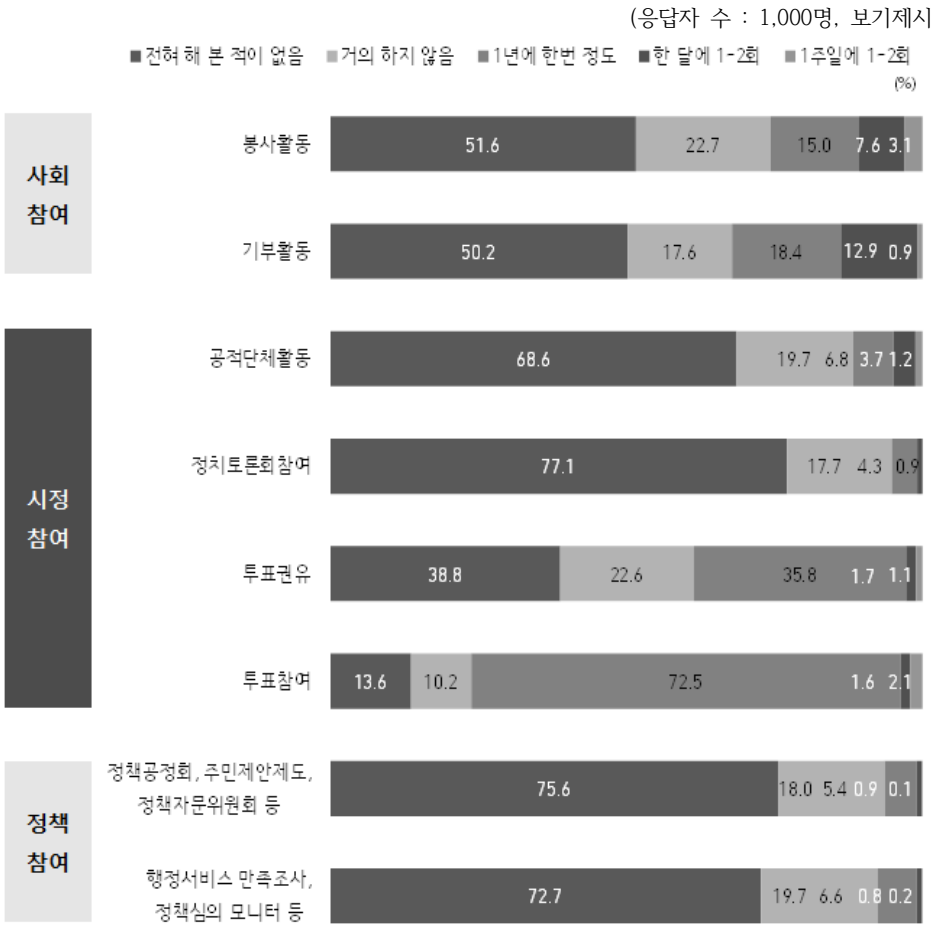
<표 Ⅲ-13> 문화여가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그런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65.9	67.5	64.4	63.5	71.8	73.1	67.9	53.8	61.9	57.6	68.3	69.2
2) 혼자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35.8	34.2	37.4	37.2	33.5	32.8	37.3	37.3	37.3	34.6	36.3	35.0
3)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잘 보내고 싶다	26.7	24.3	29.0	30.8	27.1	27.4	26.9	22.8	24.6	21.6	27.3	33.3
4)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35.2	33.3	37.0	32.1	40.6	40.9	37.3	26.6	30.5	29.4	37.3	35.0
5) 친구/가족과의 교류 또는 친목도모를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49.6	50.5	48.7	48.1	53.5	52.2	54.7	42.4	42.4	40.3	51.5	57.3
6)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42.9	42.3	43.4	48.1	52.9	45.2	41.5	31.6	35.6	34.2	44.5	51.3
7)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56.6	59.1	54.2	67.9	72.9	58.1	54.7	40.5	40.7	46.3	59.0	63.2

(9) 사회 참여 활동 빈도

지난 1년간 사회 참여 활동별 빈도를 살펴보면, 공적단체활동과 정치토론회 참여의 시정 참여와 정책 참여는 전혀 혹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사회참여와 투표권유, 투표참여는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14> 사회 참여 활동 빈도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와 투표와 관련된 시정참여는 상대적으로 빈번한 반면에 공적단체활동과 정치토론회 참여, 정책과 관련된 참여는 경험 빈도가 낮은 편이며, 시민 참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투여가 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의 정도에 따라서 경험 빈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는 기부활동, 50대는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투표권유, 60대는 투표권유, 70대는 투표참여 활동에 1년에 한번 이상 참여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30대와 40대는 좀 더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참여 활동, 50대 이상은 투표와 관련된 시간이나 비용이 덜 소모되는 활동을 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 사회 참여 활동 빈도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년에 한번 정도 이상'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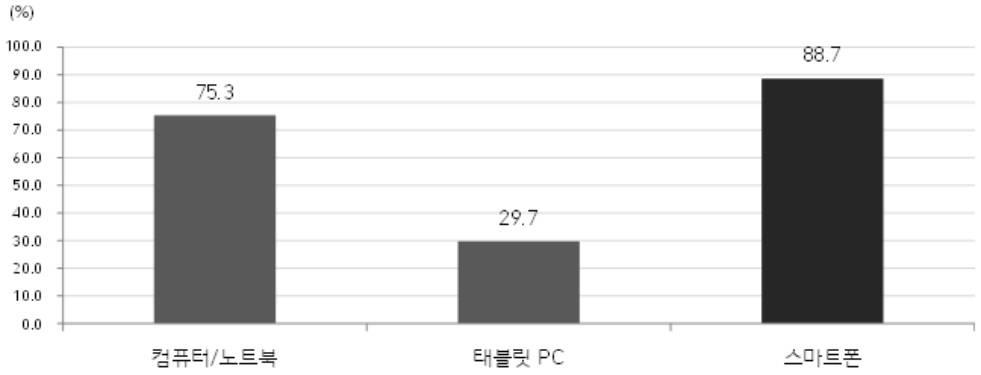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봉사활동	25.7	25.8	25.6	29.5	22.4	26.9	31.6	27.8	10.2	22.1	25.6	33.3
2) 기부활동	32.2	32.1	32.3	26.3	37.6	38.7	40.6	27.8	12.7	27.7	32.1	41.9
3) 공적단체활동	11.7	12.7	10.8	11.5	6.5	12.9	17.5	12.7	5.9	9.1	11.8	16.2
4) 정치토론회참여	5.2	6.7	3.7	5.1	5.9	6.5	7.5	3.2	0.8	1.7	6.0	7.7
5) 투표권유	38.6	39.3	38.0	28.8	32.4	39.2	45.8	43.7	39.8	28.6	41.4	42.7
6) 투표참여	76.2	78.3	74.2	69.2	73.5	72.6	81.1	75.9	86.4	75.3	77.3	71.8
7) 정책공정회, 주민제안제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6.4	7.0	5.9	5.8	5.3	7.0	9.4	7.0	1.7	4.3	6.4	10.3
8) 행정서비스 만족조사, 정책심의 모니터 등	7.6	8.2	7.0	7.7	8.2	9.1	11.8	5.1	0.0	3.5	8.4	11.1

(10)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및 사용 빈도

① 디지털 기기 소유 우무

디지털 기기별 소유비율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88.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노트북 75.3%, 태블릿 PC 29.7%으로 나타난다. 태블릿 PC를 제외한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있음' 응답 기준)



<그림 Ⅲ-15>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20~50대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5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비율이 높지만 60대 이상은 해당 기기의 보유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5>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있음'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컴퓨터/노트북	75.3	78.7	72.0	91.0	95.3	96.2	86.8	46.2	11.0	48.5	81.0	96.6
2) 태블릿 PC	29.7	32.7	26.8	51.9	38.2	43.5	25.0	10.8	0.0	20.3	29.4	49.6
3) 스마트폰	88.7	90.2	87.3	100.0	99.4	100.0	97.2	80.4	36.4	72.7	92.6	98.3

②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지난 1년간 디지털 기기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거의 매일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8%로 높게 나타난다. 컴퓨터/노트북은 60.3%의 응답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블릿 PC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7%를 차지한다. 즉, 스마트폰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인 반면에 태블릿 PC는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16>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20대와 30대, 40대는 컴퓨터/노트북과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1주일에 1회 이상은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60대와 70대에 비해서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적인 사용이 빈번한 편이지만 노인층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대를 제외한 30대 이후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16>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주일에 1회 이상'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컴퓨터/노트북	60.3	68.7	52.3	86.5	90.6	81.2	55.7	25.3	4.2	35.1	65.8	79.5
2) 태블릿 PC	22.4	26.2	18.8	47.4	33.5	29.6	13.7	5.7	0.0	16.0	22.1	36.8
3) 스마트폰	88.2	89.4	87.1	98.7	99.4	98.9	97.2	79.7	36.4	71.9	92.5	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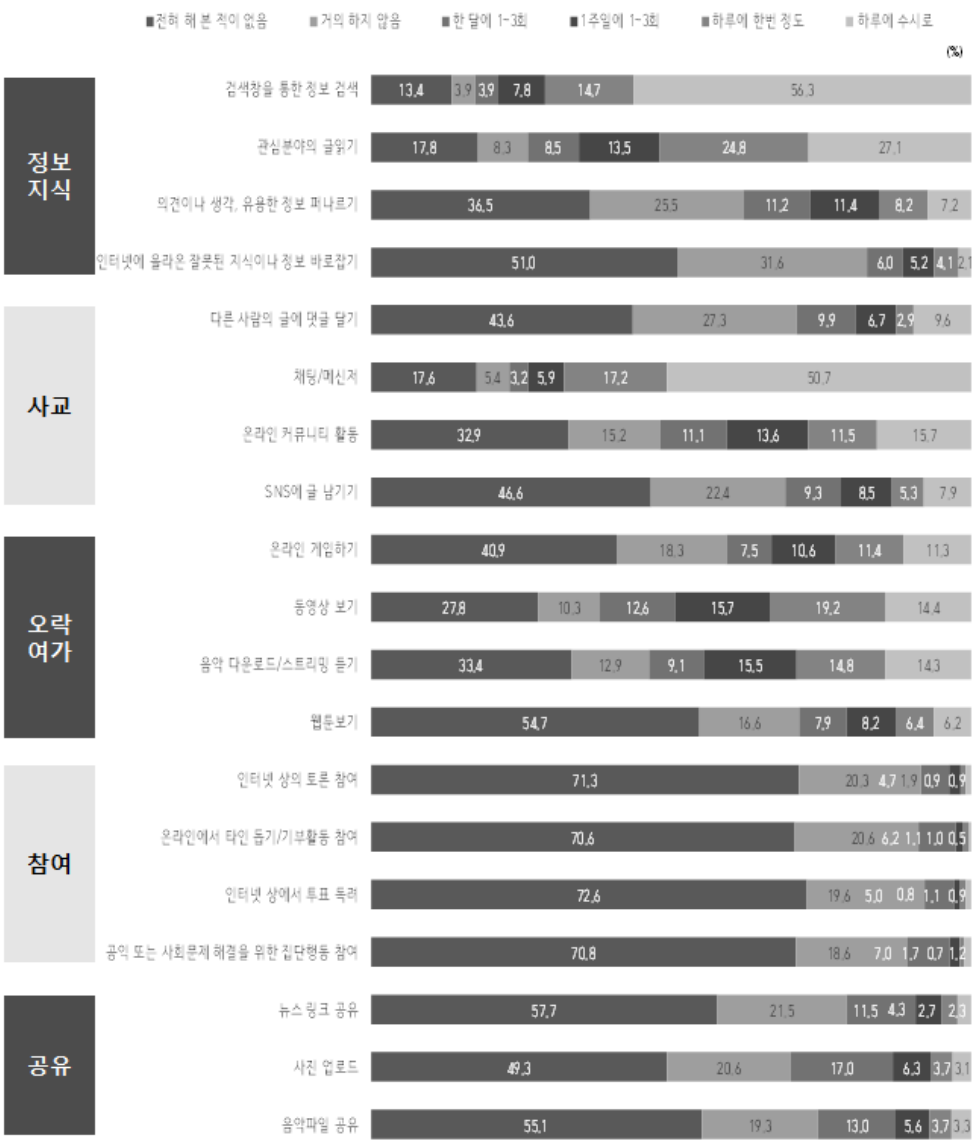
(11)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지난 1년간 디지털 기기를 통한 활동별 빈도를 살펴보면, 검색창을 통한 정보검색과 채팅/메신저 활동을 가장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인터넷 상의 토론 참여, 온라인에서 타인돕기/기부활동 참여, 인터넷 상에서 투표 독려, 공익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 참여 활동은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채팅/메신저를 통한 사교 활동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하고 있지만 참여나 공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요

구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17>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20대와 30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활동의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17> 목적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달에 1회 이상'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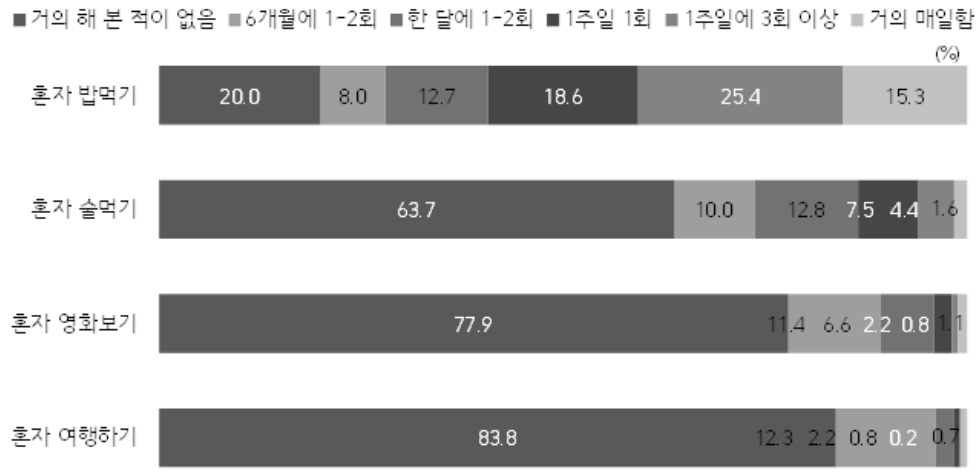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정보지식	1) 검색창을 통한 정보 검색	82.7	86.9	78.7	99.4	99.4	97.3	94.8	63.9	16.9	57.1	89.4	95.7
	2) 관심분야의 글읽기	73.9	79.3	68.7	92.3	94.7	92.5	83.0	45.6	11.9	46.8	80.7	89.7
	3) 의견이나 생각, 유용한 정보 퍼나르기	38.0	40.7	35.4	62.8	57.1	48.9	31.1	17.1	0.8	28.6	37.9	57.3
	4)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바로잡기	17.4	19.6	15.3	32.1	28.2	19.9	13.2	6.3	0.8	15.2	17.3	22.2
사교	5)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리플)달기	29.1	30.9	27.4	44.9	40.0	33.3	30.2	15.8	1.7	17.3	31.9	36.8
	6) 채팅/메신저(카카오톡, 라인, 일반문자 등)	77.0	80.4	73.8	97.4	92.4	87.6	87.3	60.1	15.3	55.8	83.1	84.6
	7)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밴드, 카페 등)	51.9	55.2	48.7	78.2	65.3	68.8	57.5	20.9	2.5	28.6	57.1	69.2
	8) SNS에 글 남기기(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31.0	33.7	28.4	67.3	51.2	29.6	20.8	11.4	0.8	23.4	31.0	46.2
오락여가	9) 온라인 게임하기	40.8	49.9	32.1	66.7	61.2	46.8	38.2	17.7	3.4	23.8	44.0	56.4
	10) 동영상(유투브, TV 캐스트 등) 보기	61.9	66.5	57.5	92.9	89.4	76.3	59.9	29.7	5.1	39.8	67.2	76.1
	11) 음악 다운로드 /스트리밍 듣기	53.7	55.2	52.3	92.9	78.8	62.9	45.8	24.1	5.1	35.9	57.4	68.4
	12) 웹툰보기	28.7	36.4	21.3	70.5	52.4	23.7	14.2	8.2	0.8	22.9	28.7	40.2
참여	13) 인터넷 상의 토론 참여	8.4	9.8	7.0	15.4	14.1	7.5	7.5	3.8	0.0	8.7	7.2	14.5
	14) 온라인에서 타인 돕기/기부활동 참여	8.8	9.6	8.0	14.7	12.4	10.2	7.1	6.3	0.0	8.2	8.1	13.7
	15) 인터넷 상에서 투표 독려	7.8	8.6	7.0	12.2	12.9	9.1	7.1	3.2	0.0	7.4	7.2	12.0

	16) 공익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 참여 (배너달기, 추모, 청원, 서명운동 등)	10.6	10.2	11.0	13.5	18.8	13.4	9.0	5.7	0.0	10.0	9.8	16.2
공유	17) 뉴스 링크 공유	20.8	21.3	20.4	34.6	25.3	26.9	19.3	12.0	0.8	16.5	20.2	32.5
	18) 사진 업로드	30.1	29.9	30.3	55.8	51.8	31.7	20.8	14.6	0.0	21.6	30.7	43.6
	19) 음악파일 공유	25.6	28.0	23.3	48.7	38.8	29.0	19.3	12.0	0.0	16.5	26.5	38.5

(12)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지난 1년간 나홀로 소비활동을 경험한 빈도를 살펴보면, 혼자 밥먹기는 59.3%의 응답자가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혼자 술먹기와 혼자 영화보기, 혼자 여행하기는 거의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밥을 먹는 소비활동은 상대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비율이 높지만 혼자 술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18>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20대는 혼자 밥먹기와 혼자 술먹기, 혼자 영화보기, 혼자 여행하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은 경험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혼자 영화보기를 6개월에 1회 이상 경험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6개월에 1회 이상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소비활동은 20대부터 70대까지 일정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여행을 하는 소비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6개월에 1회 이상 경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Ⅲ-18> 나홀로 소비 활동 빈도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6개월에 1회 이상'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혼자 밥먹기	80.0	83.6	76.5	85.9	76.5	82.3	75.9	77.2	84.7	78.8	80.4	80.3
2) 혼자 술먹기	36.3	51.7	21.5	42.3	35.3	37.6	35.4	35.4	30.5	29.0	38.3	39.3
3) 혼자 영화보기	22.1	23.9	20.4	46.2	32.4	20.4	14.6	11.4	5.9	19.0	21.0	34.2
4) 혼자 여행하기	16.2	20.4	12.1	32.7	20.6	16.7	11.3	9.5	5.1	13.9	14.4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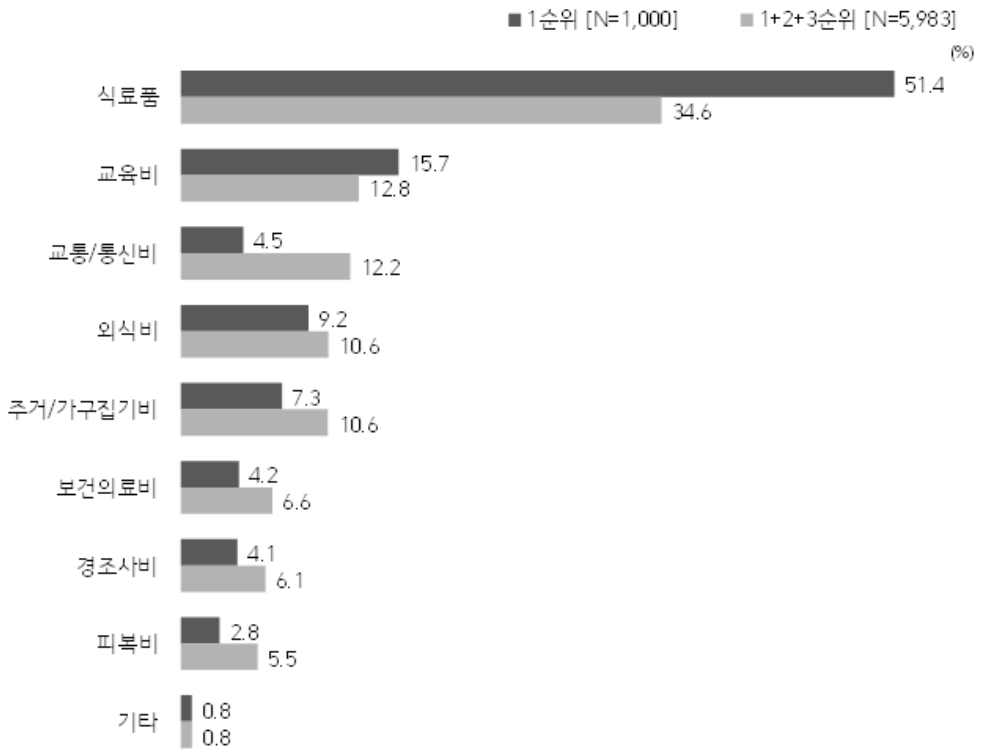
(13)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을 살펴보면, 식료품이 34.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12.8%, 교통/통신비 12.2%, 외식비 10.6%, 주거/가구집기비 10.6%, 보건의료비 6.6%, 경조사비 6.1%, 피복비 5.5%의 순으로 나타난다(1+2+3순위 응답 기준임).

생활비 중에서는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의 순이다.

20대는 교통/통신비와 외식비, 40대와 50대는 교육비, 60대는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 70대는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 라이프 스타일 주기에 따라서 20대는 교통/통신비, 40대와 50대는 교육비, 60대와 70대는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보기제시)



<그림 Ⅲ-19>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1+2+3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19>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3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5,983	2,928	3,055	933	1,018	1,110	1,272	947	703	1,382	3,901	700
식료품	34.6	34.2	35.0	32.3	35.6	31.4	34.5	35.9	40.0	36.5	34.2	33.4
교육비	12.8	12.5	13.2	10.1	11.4	27.3	18.0	2.1	0.9	4.7	14.2	21.3
교통/통신비	12.2	13.3	11.1	21.1	12.4	9.5	12.0	10.1	7.4	10.9	12.9	11.0
외식비	10.6	11.6	9.7	16.8	14.5	9.5	9.9	7.1	4.8	8.2	11.1	12.9
주거/가구 집기비	10.6	11.3	9.9	8.3	12.9	11.1	9.9	11.9	9.1	10.5	11.2	7.6
보건의료비	6.6	5.3	7.9	0.8	1.3	1.2	4.2	13.4	25.7	15.3	4.4	1.9
경조사비	6.1	6.5	5.8	0.9	3.0	3.7	6.8	14.4	9.0	8.8	5.6	4.0
피복비	5.5	4.2	6.8	8.4	7.9	5.4	3.9	4.6	3.0	4.6	5.6	7.3
기타	0.8	1.1	0.6	1.5	1.1	0.9	0.7	0.4	0.1	0.7	0.9	0.7

2)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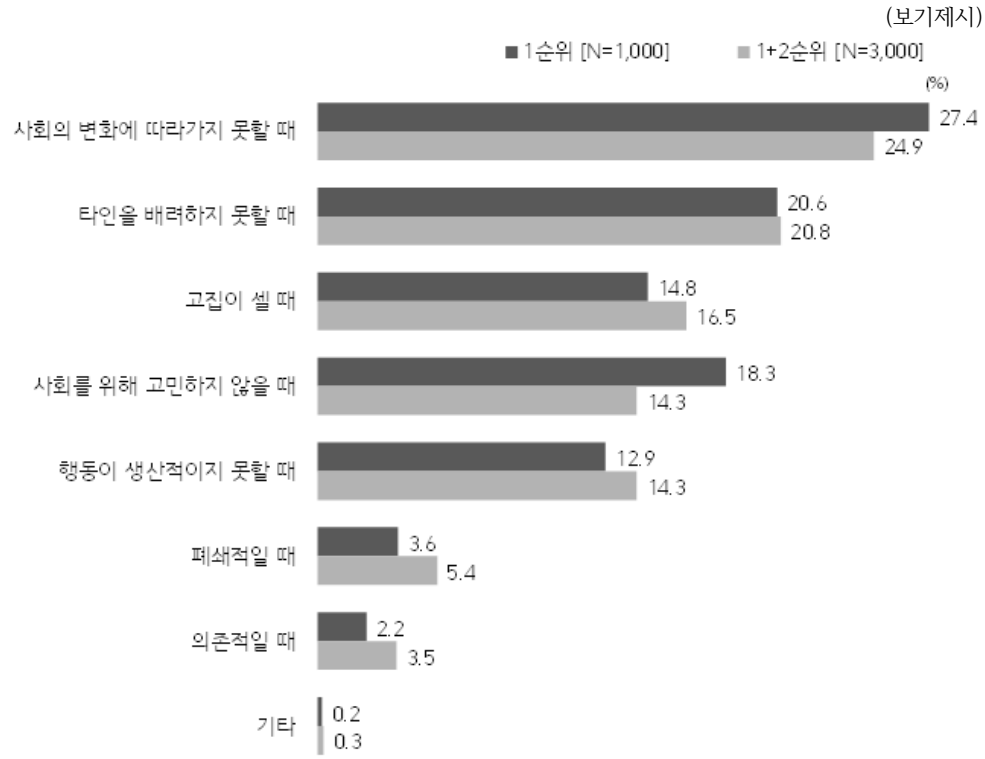
(1)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24.9%로 가장 높게 응답하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 20.8%, 고집이 셀 때 16.5%,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을 때 18.3%, 행동이 생산적이지 못할 때 14.3%, 폐쇄적일 때 5.4%, 의존적일 때 3.5%의 순이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즉,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도 세대 차이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는 고집이 셀 때 본인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낀다고 응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20>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3,000	1,467	1,533	468	510	558	636	474	354	693	1,956	351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	24.9	25.4	24.5	22.0	24.1	25.4	25.8	24.7	28.0	25.5	25.2	22.5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	20.8	21.2	20.4	17.9	18.6	23.1	21.5	25.1	16.7	21.2	20.2	23.1
고집이 셀 때	16.5	15.1	17.9	22.2	21.0	15.9	14.6	11.2	14.1	18.5	15.8	16.5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을 때	14.3	15.8	12.9	15.2	13.3	13.1	12.1	17.1	16.7	12.7	14.9	14.0
행동이 생산적이지 못할 때	14.3	13.9	14.7	13.7	12.0	13.3	17.1	13.5	16.1	12.0	14.9	15.4
폐쇄적일 때	5.4	5.7	5.0	6.2	6.5	5.0	3.8	6.1	5.1	5.8	5.4	4.6
의존적일 때	3.5	2.7	4.4	2.8	4.5	3.8	4.4	1.9	3.4	4.3	3.4	2.8
기타	0.3	0.1	0.4	0.0	0.0	0.4	0.6	0.4	0.0	0.0	0.2	1.1

(2)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

현재 부산지역에서 세대 간 갈등의 심각한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 1.4%,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4.0%, 보통이다 45.0%, 대체로 심각하다 33.9%, 매우 심각하다 5.7%로 응답한다. 전체 응답자의 45.0%가 부산지역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15.4%가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39.6%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 3.29점>



<그림 Ⅲ-21>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

70대는 부산지역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60대와 70대보다는 5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에 부산지역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Ⅲ-21>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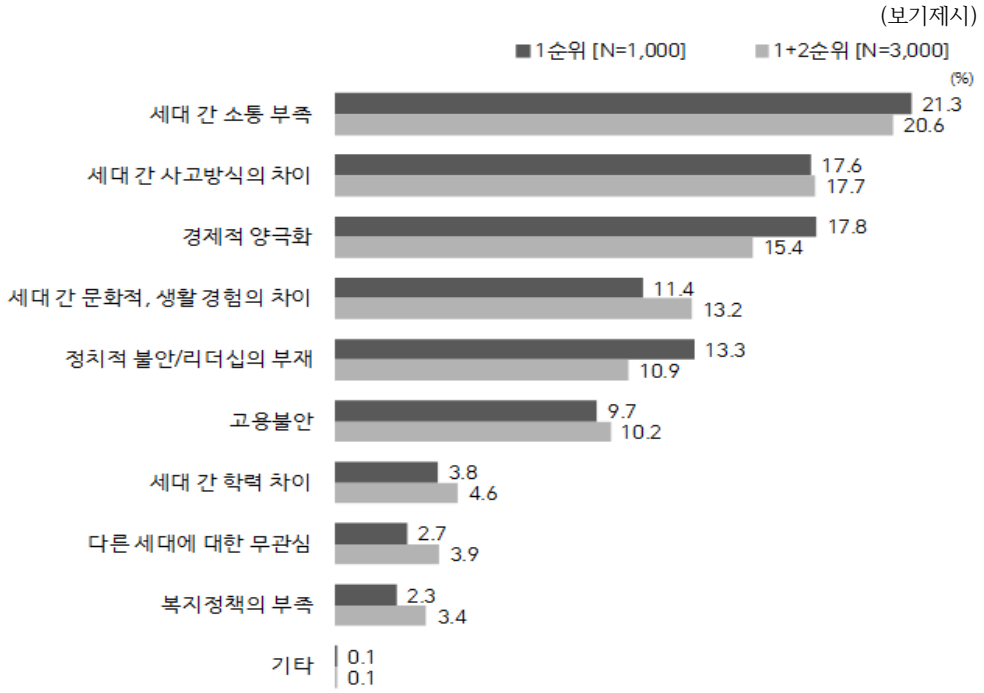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전혀 심각하지 않다	1.4	1.2	1.6	1.9	1.2	1.6	0.5	0.6	3.4	2.2	1.1	1.7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4.0	13.7	14.3	14.7	13.5	9.1	14.2	14.6	20.3	17.3	13.2	12.0
보통이다	45.0	44.4	45.6	44.9	43.5	46.8	44.3	48.7	40.7	43.3	45.2	47.0
대체로 심각하다	33.9	34.6	33.3	31.4	35.3	37.6	34.9	30.4	32.2	29.4	35.4	34.2
매우 심각하다	5.7	6.1	5.3	7.1	6.5	4.8	6.1	5.7	3.4	7.8	5.1	5.1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5.4	14.9	15.9	16.7	14.7	10.8	14.6	15.2	23.7	19.5	14.3	13.7
심각한 편 (대체로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39.6	40.7	38.6	38.5	41.8	42.5	41.0	36.1	35.6	37.2	40.5	39.3
[5점 척도 평균(단위 : 점)]	3.29	3.31	3.26	3.27	3.32	3.35	3.32	3.26	3.12	3.23	3.30	3.29

(3) 세대 간 갈등 원인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부족이 20.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17.7%, 경제적 양극화 15.4%, 세대 간 문화적, 생활 경험의 차이 13.2%,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10.9%, 고용불안 10.2%, 세대 간 학력 차이 4.6%, 다른 세대에 대한 무관심 3.9%, 복지정책의 부족 3.4%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세대 간 갈등은 소통의 부족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주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조건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2> 세대 간 갈등 원인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22> 세대 간 갈등 원인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3,000	1,467	1,533	468	510	558	636	474	354	693	1,956	351
세대 간 소통 부족	20.6	19.2	22.0	18.6	18.6	22.0	19.5	25.1	20.1	22.5	20.6	17.1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17.7	16.8	18.7	20.7	17.3	20.1	16.0	16.9	15.0	21.6	16.2	18.5
경제적 양극화	15.4	16.6	14.4	14.7	16.5	15.1	19.0	12.0	13.6	12.0	16.5	16.5
세대 간 문화적, 생활 경험의 차이	13.2	13.4	13.0	17.5	15.1	13.3	13.1	10.5	8.5	11.4	13.7	14.0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10.9	11.1	10.6	8.3	9.0	10.9	13.7	10.5	12.1	8.5	11.6	11.4
고용불안	10.2	11.0	9.4	9.2	9.6	8.4	9.9	11.0	14.7	9.5	10.2	11.4
세대 간 학력 차이	4.6	4.3	4.8	4.3	6.1	2.7	2.8	4.6	8.8	5.9	4.2	3.7
다른 세대에 대한 무관심	3.9	4.4	3.3	4.3	4.1	4.8	2.8	4.4	2.5	4.2	3.5	5.1
복지정책의 부족	3.4	3.0	3.8	2.4	3.1	2.7	3.1	4.9	4.8	4.3	3.3	2.3
기타	0.1	0.2	0.0	0.0	0.6	0.0	0.0	0.0	0.0	0.0	0.2	0.0

(4)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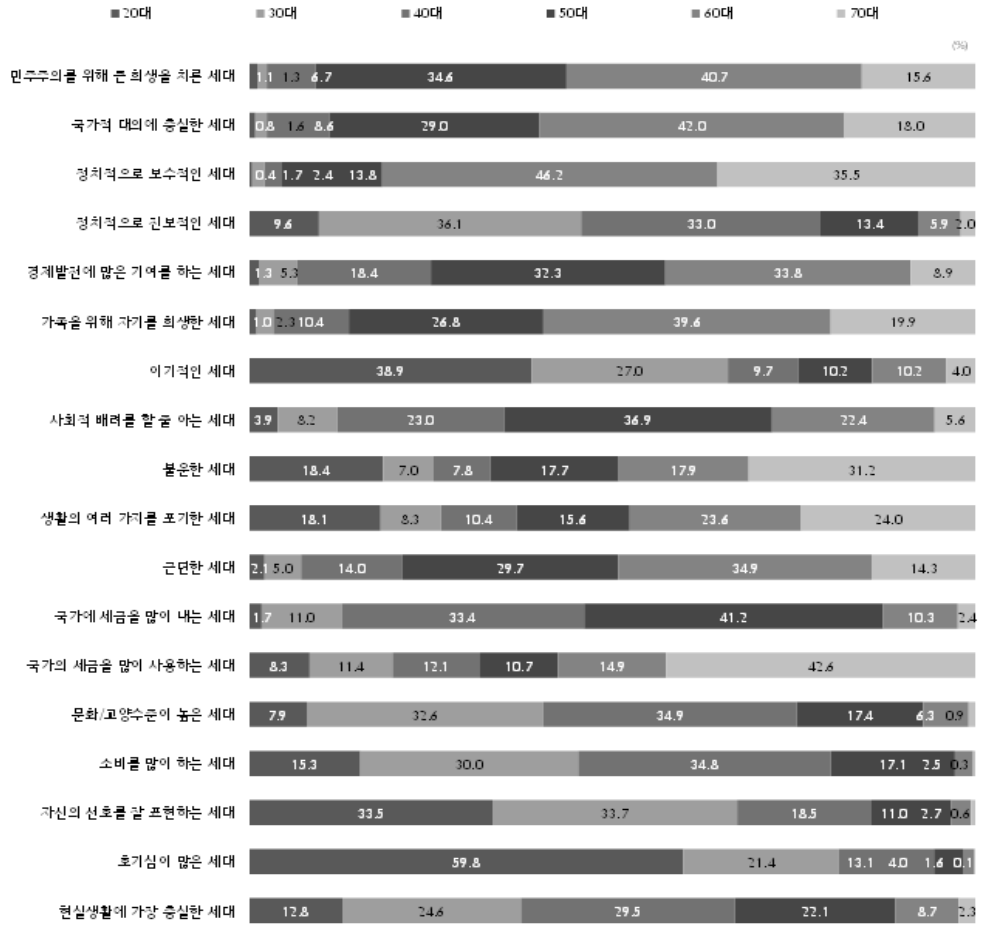
세대의 속성별로 가장 잘 부합하는 연령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세대와 국가의 대의에 충실한 세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세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세대, 불운한 세대, 생활의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근면한 세대는 50대~70대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세대와 이기적인 세대는 20대~40대, 사회를 배려할 줄 하는 세대는 40대~60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세대는 40대와 50대, 국가의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60대와 70대, 문화/교양수준이 높은 세대와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는 30대와 40대,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는 20대와 30대, 호기심이 많은 세대는 20대, 현실생활에 가장 충실한 세대는 30대~50대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5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큰 희생 치름, 국가의 대의에 충실, 정치적으로 보수적, 불운, 생활의 여러 가지 포기, 근면, 국가의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로 인식되며,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정치적으로 진보적, 이기적, 문화/교양수준이 높음, 소비를 많이 하고, 자신의 선호 잘 표현하는 세대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23>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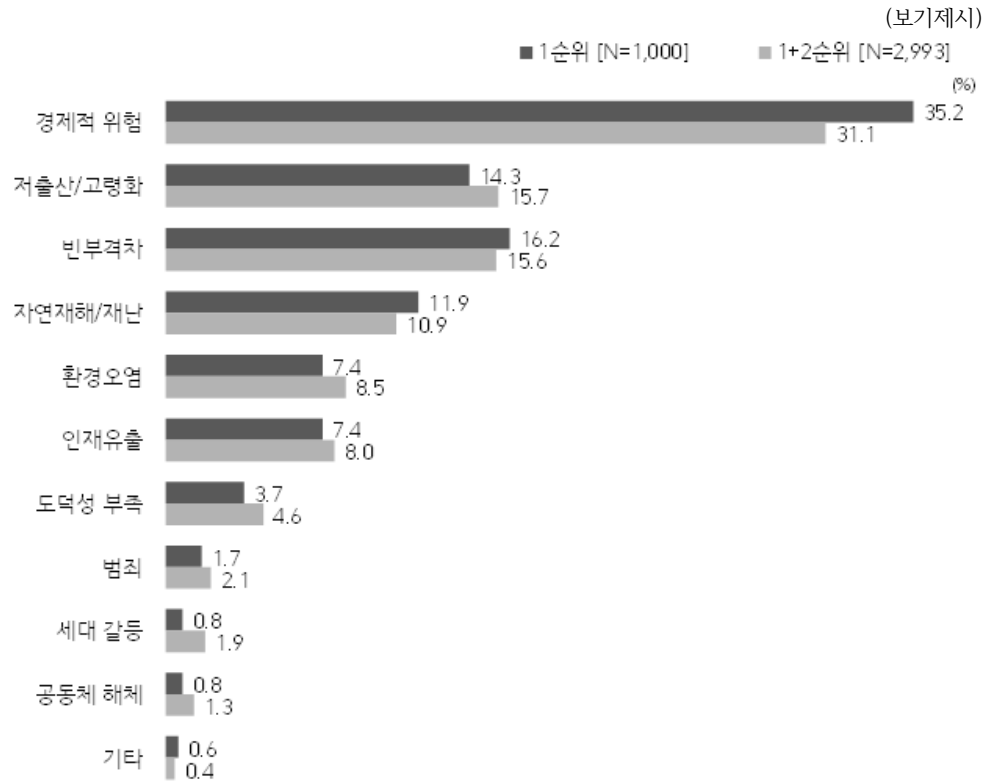
<표 Ⅲ-23> 세대 속성별 연령대 적합도 :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세대	60대	50대	70대
2) 국가적 대의에 충실한 세대	60대	50대	70대
3)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세대	60대	70대	50대
4)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세대	40대	30대	50대
5)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60대	50대	40대
6)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세대	60대	50대	70대
7) 이기적인 세대	20대	30대	50/60대
8) 사회적 배려를 할 줄 아는 세대	50대	40대	60대
9) 불운한 세대	70대	20대	60대
10) 생활의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70대	60대	20대
11) 근면한 세대	60대	50대	70대
12)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세대	50대	40대	30대
13) 국가의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	70대	60대	40대
14) 문화/교양수준이 높은 세대	40대	30대	50대
15)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	40대	30대	50대
16)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	30대	20대	40대
17) 호기심이 많은 세대	20대	30대	40대
18) 현실생활에 가장 충실한 세대	40대	30대	50대

(5)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부산지역 미래 불안의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위험이 3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15.7%, 빈부격차 15.6%, 자연재해/재난 10.9%, 환경오염 8.5%, 인재유출 8.0%, 도덕성 부족 4.6%, 범죄 2.1%, 세대 갈등 1.9%, 공동체 해체 1.3%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부산지역의 미래에 있어서는 일자리, 불황 등 경제적인 위험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빈부격차, 원전과 관련된 자연재해/재난도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4>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한편, 70대는 빈부격차가 부산의 미래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Ⅲ-24> 부산지역 미래 불안 요인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3	1,465	1,528	467	510	555	634	474	353	691	1,953	349
경제적 위험	31.1	31.7	30.4	34.0	31.0	33.2	33.6	27.4	24.4	28.9	30.9	36.4
저출산/고령화	15.7	14.7	16.6	11.6	13.9	14.6	17.8	19.2	16.7	16.5	15.8	13.2
빈부격차	15.6	17.1	14.1	9.6	17.6	18.6	16.4	10.8	20.7	14.6	16.5	12.3
자연재해/재난	10.9	10.3	11.4	12.0	10.0	11.7	9.9	11.2	10.5	9.3	11.4	11.2
환경오염	8.5	7.0	9.9	6.4	6.3	8.8	8.0	12.0	9.9	9.0	8.3	8.3
인재유출	8.0	8.1	7.8	11.8	10.4	5.0	6.5	8.0	6.5	8.0	8.0	7.7
도덕성 부족	4.6	4.8	4.5	6.2	5.7	2.5	3.9	4.2	5.9	5.2	4.4	4.9
범죄	2.1	2.5	1.8	5.1	1.2	1.1	1.6	2.5	1.7	3.2	1.6	2.9
세대 갈등	1.9	2.0	1.7	1.9	1.6	2.0	1.6	2.1	2.3	2.6	1.6	1.7
공동체 해체	1.3	1.2	1.4	0.4	2.0	1.8	0.5	2.1	1.4	1.9	1.2	0.9
기타	0.4	0.3	0.5	0.9	0.4	0.7	0.2	0.4	0.0	0.9	0.3	0.6

(6) 가족 가치관 인식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행한 결혼생활 보다는 이혼이 낫다 3.76점,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3.73점,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3.7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3.66점,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3.38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3.37점,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3.13점,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3.12점 순이다. 결혼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여성의 일자리와 맞벌이 부부의 집안 일 분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가정 내 남녀의 일적인 구분이나 자식의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항목에 동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이 특징이다. 20대는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불행한 결혼 보다는 이혼이 낫다,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30대는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불행한 결혼 보다는 이혼이 낫다, 50대는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60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70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항목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에 대해 의무적이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20대와 30대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보다 평등하고 결혼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60대와 70대는 결혼에 대해 의무적, 가정 내 남녀의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평균 기준)



<그림 Ⅲ-25> 가족 가치관 인식

<표 Ⅲ-25> 가족 가치관 인식 : 5점 척도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57	5.7	177	17.7	240	24.0	392	39.2	134	13.4	3.37
2)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42	4.2	162	16.2	279	27.9	408	40.8	109	10.9	3.38
3)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6	0.6	55	5.5	301	30.1	484	48.4	154	15.4	3.73
4)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89	8.9	192	19.2	289	28.9	371	37.1	59	5.9	3.12
5)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8	0.8	63	6.3	321	32.1	427	42.7	181	18.1	3.71
6)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16	1.6	70	7.0	312	31.2	443	44.3	159	15.9	3.66
7) 불행한 결혼생활 보다는 이혼이 낫다	14	1.4	105	10.5	222	22.2	422	42.2	237	23.7	3.76
8)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40	4.0	212	21.2	390	39.0	295	29.5	63	6.3	3.13

<표 Ⅲ-26> 가족 가치관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동의하는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52.6	59.7	45.8	36.5	32.9	39.8	56.1	76.6	83.9	60.2	51.1	46.2
2)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51.7	56.4	47.2	37.2	37.6	44.6	56.6	65.8	74.6	53.2	51.2	51.3
3)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63.8	62.6	65.0	63.5	67.1	65.6	68.9	58.9	54.2	54.5	66.4	67.5
4)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43.0	46.2	39.9	26.9	39.4	41.4	43.9	51.3	59.3	43.7	44.0	35.9

5)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60.8	55.8	65.6	67.3	67.1	57.0	60.4	58.2	53.4	61.0	61.2	58.1
6)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60.2	57.9	62.4	50.0	57.6	55.4	64.6	64.6	71.2	57.1	62.0	56.4
7) 불행한 결혼생활 보다는 이혼이 낫다	65.9	61.1	70.5	75.0	72.9	67.7	66.5	60.8	46.6	58.9	67.3	71.8
8)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35.8	41.5	30.3	42.9	36.5	30.1	29.7	39.2	40.7	40.3	35.1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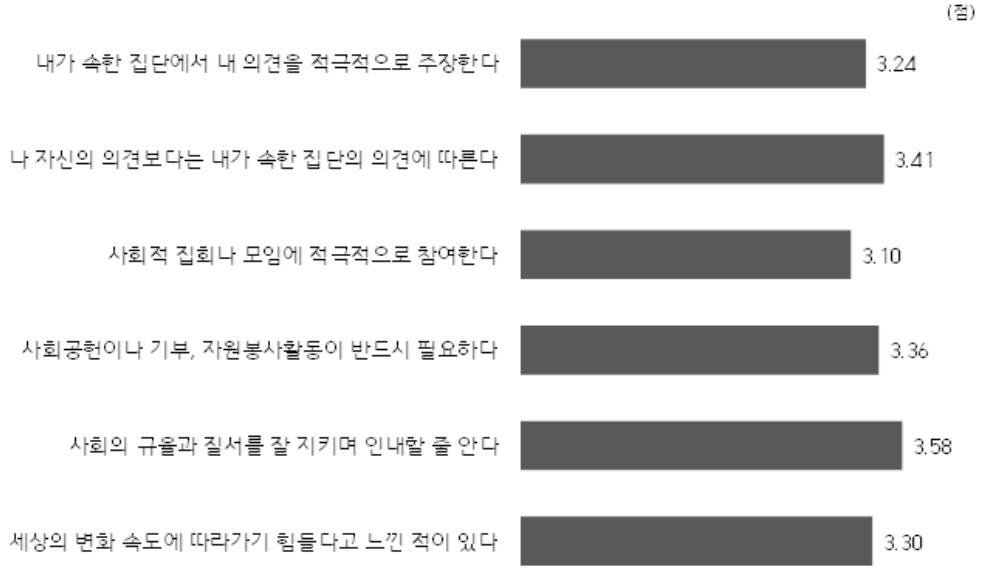
(7) 사회활동 인식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안다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평소 의사결정 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3.41점,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3.36점,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3.30점,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3.24점, 사회적 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10점 순이다. 사회 규범과 질서에 대한 준수 인식이 가장 강한 편이며, 이와 더불어 집단의 의사결정을 따르고자 하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은 약하게 나타난다.

30대는 사회적 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0대와 60대는 평소 의사결정 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안다,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70대는 평소 의사결정 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세상의 변화 속

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항목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30대는 사회 참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이며, 50~70대는 집단의 의견에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고 세상의 변화 속도에 다소 힘들다고 느끼는 성향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평균 기준)



<그림 Ⅲ-26> 사회활동 인식

<표 Ⅲ-27> 사회활동 인식 : 5점 척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15	1.5	187	18.7	374	37.4	388	38.8	36	3.6	3.24
2) 평소 의사결정 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8	0.8	101	10.1	415	41.5	423	42.3	53	5.3	3.41

3) 사회적 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1	3.1	194	19.4	468	46.8	257	25.7	50	5.0	3.10
4)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20	2.0	108	10.8	428	42.8	378	37.8	66	6.6	3.36
5)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안다	5	0.5	60	6.0	355	35.5	509	50.9	71	7.1	3.58
6)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14	1.4	124	12.4	461	46.1	346	34.6	55	5.5	3.30

<표 Ⅲ-28> 사회활동 인식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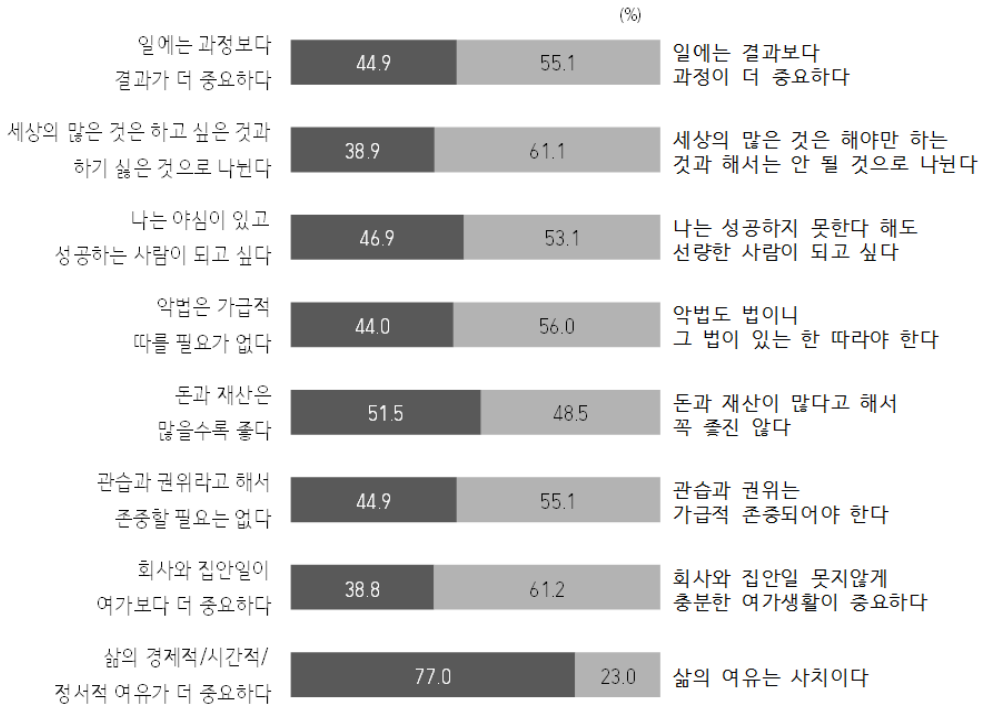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가, 그런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42.4	45.2	39.7	44.2	43.5	46.2	39.2	44.3	35.6	35.5	43.7	48.7
2) 평소 의사결정 시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47.6	44.0	51.1	41.0	42.9	42.5	52.8	53.2	54.2	48.9	47.5	45.3
3) 사회적 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0.7	31.3	30.1	28.2	35.9	31.7	29.2	31.0	27.1	23.4	32.2	36.8
4)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44.4	44.4	44.4	41.7	40.0	43.5	44.8	45.6	53.4	47.6	42.8	47.0
5)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안다	58.0	56.0	59.9	52.6	54.1	54.8	63.2	65.2	56.8	58.0	57.7	59.8
6)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40.1	37.6	42.5	32.7	23.5	39.8	48.6	45.6	51.7	42.9	38.8	41.9

(8)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많은 것은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뉜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이 있는 한 따라야 한다, 돈과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 관습과 권위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회사와 집안일 못지않게 충분한 여가생활이 중요하다, 삶의 경제적/시간적/정서적 여유가 더 중요하다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그림 Ⅲ-27> 가치관

즉, 삶의 여유와 충분한 여가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의무적인 책임과 도리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0~40대의 젊은 세대는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관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덜한 편이며, 충분한 여가생활과 삶의 여유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70대는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관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삶의 여유를 사치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특징이다.

<표 Ⅲ-29> 가치관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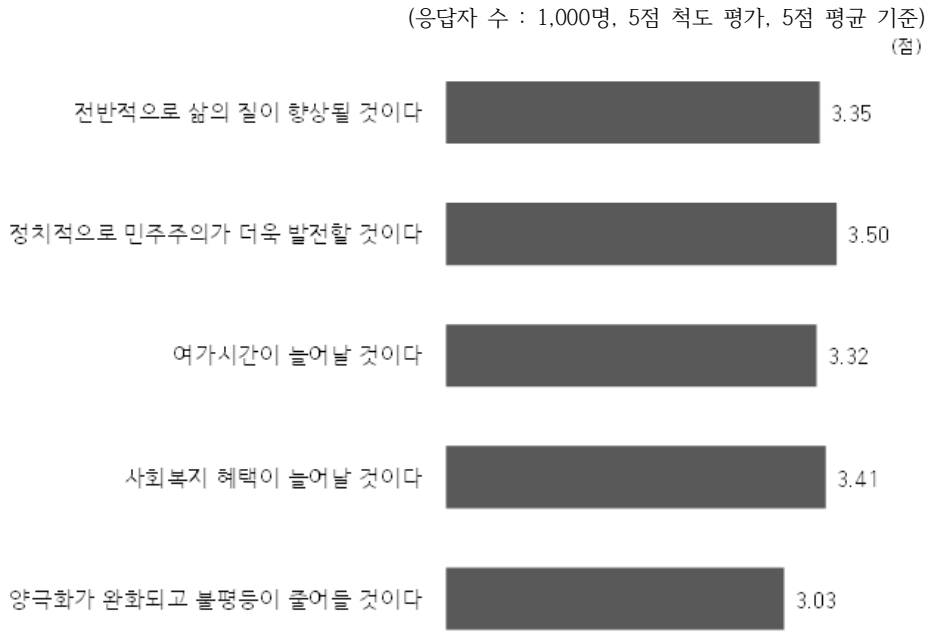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과정결과	일에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44.9	51.3	38.7	48.7	51.8	50.0	39.2	41.1	37.3	39.8	46.8	44.4
	일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55.1	48.7	61.3	51.3	48.2	50.0	60.8	58.9	62.7	60.2	53.2	55.6
세상일의분류	세상의 많은 것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나뉜다	38.9	39.1	38.7	49.4	40.0	44.1	33.0	31.6	35.6	35.9	40.5	35.9
	세상의 많은 것은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뉜다	61.1	60.9	61.3	50.6	60.0	55.9	67.0	68.4	64.4	64.1	59.5	64.1
성공	나는 야심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46.9	48.1	45.8	51.9	52.9	51.1	45.8	38.0	39.0	38.5	48.2	56.4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다	53.1	51.9	54.2	48.1	47.1	48.9	54.2	62.0	61.0	61.5	51.8	43.6
악법	악법은 가급적 따를 필요가 없다	44.0	42.7	45.2	53.8	44.1	41.9	45.3	46.2	28.8	48.1	44.2	35.0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이 있는 한 따라야 한다	56.0	57.3	54.8	46.2	55.9	58.1	54.7	53.8	71.2	51.9	55.8	65.0
돈과 재산	돈과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	51.5	51.9	51.1	65.4	61.8	46.2	48.1	42.4	44.9	49.8	51.4	55.6
	돈과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좋진 않다	48.5	48.1	48.9	34.6	38.2	53.8	51.9	57.6	55.1	50.2	48.6	44.4
관습권위	관습과 권위라고 해서 존중할 필요는 없다	44.9	43.8	46.0	55.1	55.3	49.5	38.7	33.5	35.6	43.7	44.9	47.0
	관습과 권위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55.1	56.2	54.0	44.9	44.7	50.5	61.3	66.5	64.4	56.3	55.1	53.0
회사 집안일과 여가	회사와 집안일이 여가보다 더 중요하다	38.8	37.4	40.1	31.4	32.9	32.3	48.6	39.2	49.2	39.8	37.9	41.9
	회사와 집안일 못지 않게 충분한 여가생활이 중요하다	61.2	62.6	59.9	68.6	67.1	67.7	51.4	60.8	50.8	60.2	62.1	58.1
삶의 여유	삶의 경제적/시간적/정서적 여유가 더 중요하다	77.0	75.9	78.1	78.2	84.7	82.3	79.7	70.3	60.2	77.5	77.1	75.2
	삶의 여유는 사치이다	23.0	24.1	21.9	21.8	15.3	17.7	20.3	29.7	39.8	22.5	22.9	24.8

(9)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부산의 5년 후 미래상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3.50점,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3.41점,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3.35점,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3.32점,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3.03점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부산의 5년 후 미래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수준은 아닌 가운데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강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에 기대감이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8>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표 Ⅲ-30>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5점 척도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14	1.4	128	12.8	384	38.4	444	44.4	30	3.0	3.35
2)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9	0.9	65	6.5	402	40.2	462	46.2	62	6.2	3.50
3)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13	1.3	113	11.3	458	45.8	371	37.1	45	4.5	3.32
4)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14	1.4	88	8.8	407	40.7	461	46.1	30	3.0	3.41
5)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70	7.0	177	17.7	426	42.6	307	30.7	20	2.0	3.03

40대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50대는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60대는 전반적으로 삶

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70대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항목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40대는 미래 부산의 정치적인 성숙과 사회복지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60대와 70대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불평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Ⅲ-31>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동의하는 편(4+5점) 응답 기준)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47.4	45.0	49.7	38.5	38.8	48.9	47.2	58.2	55.1	44.6	50.0	38.5
2)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52.4	54.4	50.5	45.5	47.1	57.5	56.6	55.7	49.2	47.2	54.9	48.7
3)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41.6	38.2	44.8	33.3	32.4	44.1	47.2	45.6	46.6	38.1	44.5	32.5
4)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49.1	48.1	50.1	43.6	40.6	54.8	51.9	51.3	51.7	44.6	52.1	41.0
5)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32.7	32.3	33.1	25.0	25.9	36.0	33.0	38.0	39.8	30.7	34.2	28.2

(10) 부산지역 소속감

현재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1.3%, 별로 없다 8.2%, 그저 그렇다 33.6%, 약간 있다 45.9%, 매우 있다 11.0%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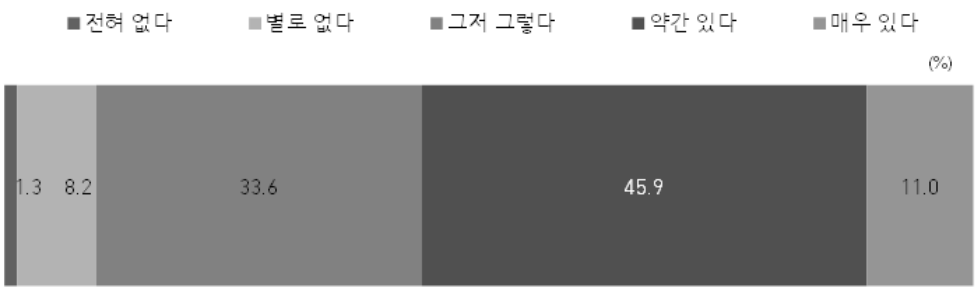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9.5%가 소속감이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 56.9%가

소속감이 있다(매우 있다+약간 있다)고 응답한다.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를 차지하는 가운데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 3.57점>



<그림 Ⅲ-29> 부산지역 소속감

20대는 부산지역에 소속감이 없다, 60대와 70대는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Ⅲ-32> 부산지역 소속감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전혀 없다	1.3	2.0	0.6	3.2	1.8	1.6	0.0	1.3	0.0	1.7	0.9	2.6
별로 없다	8.2	9.0	7.4	14.7	11.2	8.6	5.2	5.7	3.4	6.9	9.0	6.0
그저 그렇다	33.6	29.9	37.2	40.4	40.6	32.8	33.5	27.8	23.7	34.2	34.0	29.9
약간 있다	45.9	47.0	44.8	36.5	37.1	47.3	49.1	52.5	54.2	40.3	47.4	48.7
매우 있다	11.0	12.1	10.0	5.1	9.4	9.7	12.3	12.7	18.6	16.9	8.6	12.8
없는 편 (전혀 없다 + 별로 없다)	9.5	11.0	8.0	17.9	12.9	10.2	5.2	7.0	3.4	8.7	10.0	8.5
있는 편 (약간 있다 + 매우 있다)	56.9	59.1	54.8	41.7	46.5	57.0	61.3	65.2	72.9	57.1	56.0	61.5
[5점 척도 평균(단위 : 점)]	3.57	3.58	3.56	3.26	3.41	3.55	3.68	3.70	3.88	3.64	3.54	3.63

(11)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부산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살펴보면, 전혀 없다 0.5%, 별로 없다 3.6%, 그저 그렇다 19.1%, 약간 있다 49.8%, 매우 있다 27.0%로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76.8%가 부산지역에 계속 살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매우 있다+약간 있다), 4.1%의 응답자가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고 응답하며, 80% 가까운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와 70대는 부산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산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 3.99점>



<그림 Ⅲ-30>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표 Ⅲ-33>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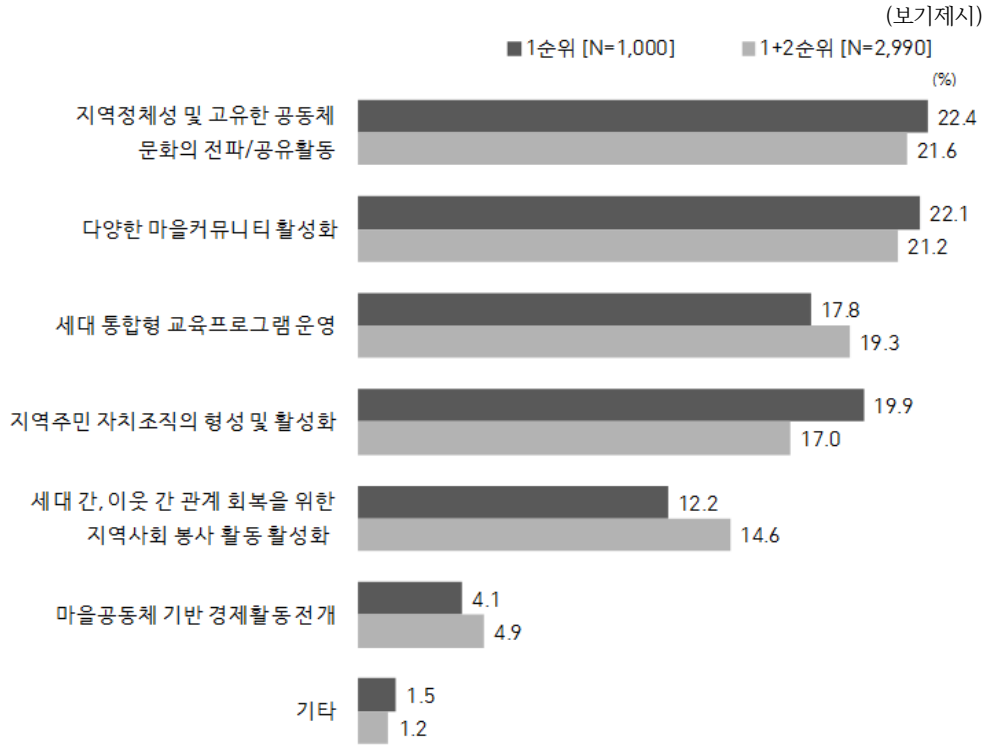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전혀 없다	0.5	1.0	0.0	0.0	1.2	1.1	0.0	0.6	0.0	0.4	0.2	2.6
별로 없다	3.6	3.5	3.7	7.1	3.5	5.4	3.3	1.3	0.0	2.2	4.4	1.7
그저 그렇다	19.1	19.4	18.8	28.8	23.5	17.7	21.2	13.9	5.1	14.3	19.6	25.6
약간 있다	49.8	47.6	51.9	43.6	47.6	51.6	50.9	50.0	55.9	44.2	52.9	43.6
매우 있다	27.0	28.4	25.6	20.5	24.1	24.2	24.5	34.2	39.0	39.0	22.9	26.5
없는 편 (전혀 없다 + 별로 없다)	4.1	4.5	3.7	7.1	4.7	6.5	3.3	1.9	0.0	2.6	4.6	4.3
있는 편 (약간 있다 + 매우 있다)	76.8	76.1	77.5	64.1	71.8	75.8	75.5	84.2	94.9	83.1	75.8	70.1
[5점 척도 평균(단위 : 점)]	3.99	3.99	3.99	3.78	3.90	3.92	3.97	4.16	4.34	4.19	3.94	3.90

(12)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노력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 및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21.6%,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2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19.3%, 지역주민 자치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17.0%, 세대 간,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 14.6%,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전개 4.9%의 순이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 문화 및 마을커뮤니티의 회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1>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30대는 지역주민 자치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60대는 세대 간,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가 세대 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내 필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34>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0	1,463	1,527	467	507	555	634	473	354	690	1,949	351
지역정체성 및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21.6	21.2	22.0	21.4	22.5	20.9	21.3	21.4	22.6	22.5	21.4	21.1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21.2	20.2	22.3	22.7	21.5	22.5	19.6	18.4	23.7	20.0	21.2	23.9
세대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19.3	19.6	19.1	18.2	17.0	20.2	18.8	21.1	21.5	21.0	18.7	19.4
지역주민 자치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17.0	19.2	14.9	18.8	22.5	16.6	17.4	12.5	13.0	13.3	18.0	19.1
세대 간,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	14.6	14.9	14.4	9.4	9.9	13.2	18.6	20.5	15.8	17.4	14.0	12.8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전개	4.9	4.0	5.9	9.0	5.1	4.5	3.8	4.0	3.4	5.2	5.3	2.6
기타	1.2	1.0	1.4	0.4	1.6	2.2	0.6	2.1	0.0	0.6	1.4	1.1

3)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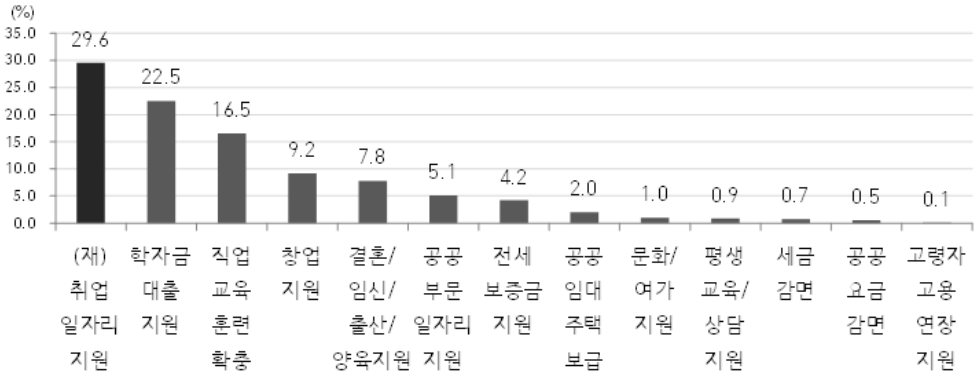
(1) 세대별 필요 정책

① 20대

2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

펴보면, (재)취업, 일자리 지원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학자금 대출 지원 22.5%, 직업교육훈련 확충 16.5%, 창업 지원 9.2%,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7.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5.1%의 순이다. 20대를 위해서는 취업 및 일자리, 대학교육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2> 세대별 필요 정책 : 20대

<표 Ⅲ-35> 세대별 필요 정책 : 20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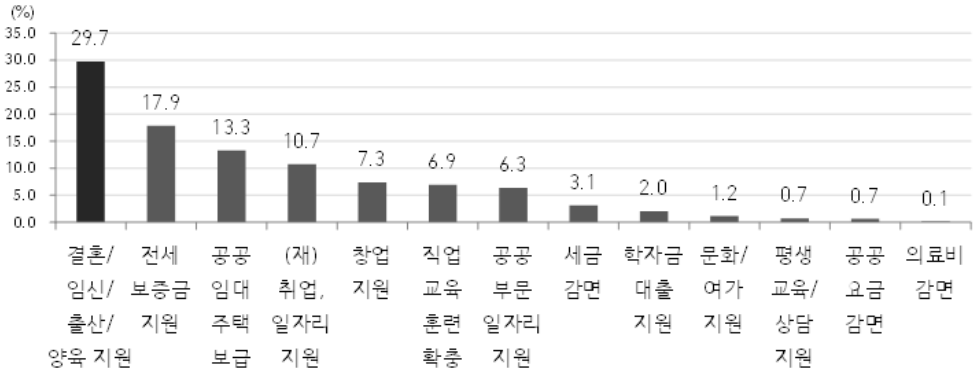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재)취업, 일자리 지원	29.6	28.1	31.0	30.5	30.7	28.5	29.4	28.3	30.5	28.6	30.1	28.2
학자금 대출 지원	22.5	22.1	23.0	20.6	23.5	23.3	23.0	23.8	19.9	20.7	23.1	23.1
직업교육훈련 확충	16.5	15.8	17.3	10.3	19.3	16.0	16.1	17.8	20.8	19.2	15.5	17.1
창업지원	9.2	10.5	8.0	10.0	8.3	8.4	10.7	9.5	7.6	8.7	9.6	7.7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7.8	7.5	8.1	6.8	6.0	7.3	8.8	10.5	7.2	6.1	8.1	9.4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5.1	5.1	5.0	8.0	4.5	4.1	5.0	3.8	5.5	7.4	4.6	3.0
전세보증금 지원	4.2	5.3	3.2	5.1	3.9	5.4	2.8	3.8	4.7	3.5	4.2	5.6
공공임대주택 보급	2.0	2.3	1.8	3.9	1.2	2.4	1.7	1.3	1.7	1.7	2.2	1.7
문화/여가 지원	1.0	1.1	0.8	2.9	0.3	1.4	0.7	0.3	0.0	1.1	0.8	1.7
평생교육/상담 지원	0.9	1.0	0.7	0.6	0.9	1.6	0.9	0.3	0.4	0.4	0.9	1.3
세금 감면	0.7	0.7	0.7	0.6	0.9	0.8	0.2	0.6	1.3	1.3	0.5	0.9
공공요금 감면	0.5	0.4	0.6	0.6	0.6	0.8	0.5	0.0	0.4	0.9	0.4	0.4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0.1	0.1	0.0	0.0	0.0	0.0	0.2	0.0	0.0	0.2	0.0	0.0

② 30대

3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 지원 17.9%, 공공임대주택 보급 13.3%, (재)취업, 일자리 지원 10.7%, 창업 지원 7.3%, 직업교육훈련 확충 6.9%,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6.3%의 순이다. 30대를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과 주택과 관련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3> 세대별 필요 정책 : 30대

<표 Ⅲ-36> 세대별 필요 정책 : 30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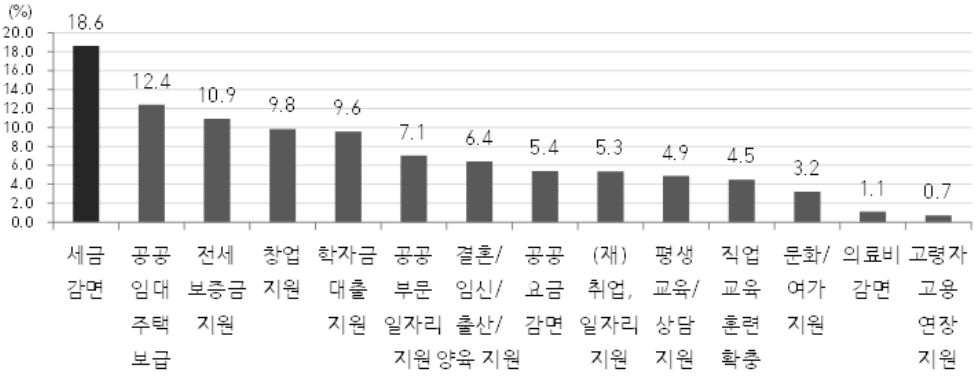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9.7	29.5	29.9	31.6	31.5	28.6	29.5	28.6	28.4	29.8	29.2	32.6
전세보증금 지원	17.9	17.0	18.7	15.5	18.8	17.6	17.6	19.7	18.2	16.6	18.1	19.3
공공임대주택 보급	13.3	12.3	14.3	13.9	13.7	13.5	12.6	10.8	16.5	15.0	13.2	10.7
(재)취업, 일자리 지원	10.7	11.7	9.7	11.9	9.5	11.9	10.5	10.5	9.7	12.6	9.8	12.0
창업지원	7.3	7.3	7.4	7.1	8.0	5.7	7.4	7.3	9.3	7.4	7.3	7.3
직업교육훈련 확충	6.9	7.6	6.3	6.8	8.0	8.4	6.9	5.7	5.1	5.4	7.7	5.6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6.3	7.2	5.5	6.1	3.6	6.5	7.8	7.9	5.5	6.3	6.5	5.6
세금 감면	3.1	2.7	3.5	1.9	1.8	2.7	3.6	5.4	3.4	2.6	3.5	1.7
학자금 대출 지원	2.0	2.4	1.7	1.9	1.2	2.2	1.9	2.2	3.0	1.7	2.1	2.1
문화/여가 지원	1.2	0.7	1.6	1.6	1.8	1.1	0.7	1.0	0.8	1.5	0.8	2.6
평생교육/상담 지원	0.7	0.6	0.8	0.6	1.5	0.8	0.7	0.3	0.0	0.4	0.9	0.0
공공요금 감면	0.7	0.9	0.4	1.0	0.3	1.1	0.7	0.6	0.0	0.2	0.8	0.4
의료비 감면	0.1	0.0	0.2	0.0	0.3	0.0	0.2	0.0	0.0	0.2	0.1	0.0

③ 40대

4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세금 감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12.4%, 전세보증금 지원 10.9%, 창업 지원 9.8%, 학자금대출 지원 9.6%,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1%,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6.4%, 공공요금 감면 5.4%, (재)취업, 일자리 지원 5.3%의 순이다. 40대를 위해서는 세금, 학자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주택 관련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4> 세대별 필요 정책 : 40대

<표 Ⅲ-37> 세대별 필요 정책 : 40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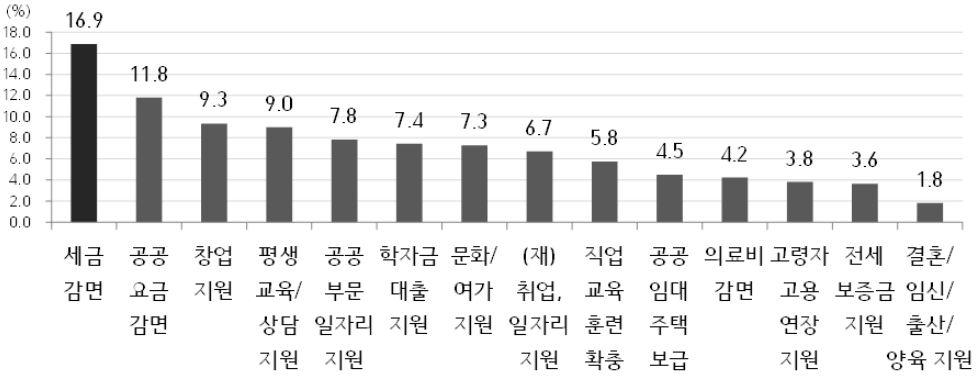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세금 감면	18.6	19.7	17.6	19.2	17.0	17.6	17.6	22.0	19.1	21.0	18.0	17.2
공공임대주택 보급	12.4	12.7	12.1	11.0	11.6	11.4	12.6	15.3	12.7	11.8	12.1	15.5
전세보증금 지원	10.9	10.2	11.6	14.9	14.9	10.0	7.9	10.5	7.6	10.9	10.9	11.2
창업지원	9.8	9.9	9.8	9.7	9.6	8.6	11.2	9.6	10.2	10.3	9.3	12.1
학자금 대출 지원	9.6	9.3	9.9	9.1	8.1	10.5	10.5	8.9	10.2	8.1	9.9	10.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1	7.2	6.9	5.2	6.3	6.8	9.0	7.0	7.6	7.2	7.2	6.0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6.4	7.1	5.7	6.8	8.1	7.3	7.4	2.9	5.1	2.6	7.8	6.0
공공요금 감면	5.4	4.7	6.0	4.2	5.1	5.7	4.3	5.1	9.3	7.9	4.7	4.3
(재)취업, 일자리 지원	5.3	6.0	4.7	3.9	5.1	6.8	4.5	6.4	5.5	5.9	5.3	4.3
평생교육/상담 지원	4.9	4.9	4.9	4.5	4.5	5.1	4.8	4.5	6.4	5.0	5.0	3.9
직업교육훈련 확충	4.5	3.6	5.3	3.9	3.3	5.4	5.7	4.1	3.8	5.2	4.0	5.6
문화/여가 지원	3.2	2.9	3.6	3.9	5.1	3.2	3.3	1.9	1.3	2.6	3.6	2.6
의료비 감면	1.1	1.2	1.0	1.9	1.5	1.4	0.7	0.6	0.4	1.1	1.2	0.4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0.7	0.5	0.9	1.6	0.0	0.3	0.5	1.3	0.8	0.4	0.9	0.0

④ 50대

5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세금 감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감면 11.8%, 창업 지원 9.3%, 평생교육/상담 지원 9.0%,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8%, 학자금 대출 지원 7.4%, 문화/여가 지원 7.3%, (재)취업, 일자리 지원 6.7%, 직업교육훈련 확충 5.8%의 순이다. 50대를 위해서는 세금과 공공요금의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5> 세대별 필요 정책 : 50대

<표 Ⅲ-38> 세대별 필요 정책 : 50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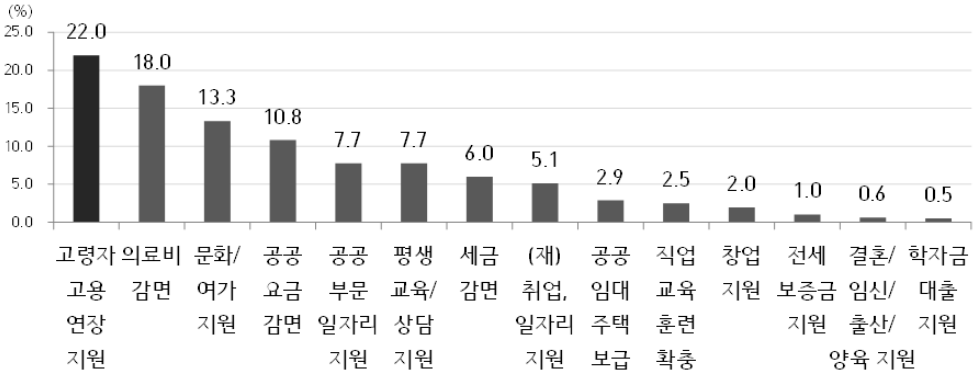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세금 감면	16.9	17.7	16.1	17.4	18.0	17.4	19.0	13.4	14.5	14.9	17.0	19.7
공공요금 감면	11.8	11.9	11.7	9.7	11.7	9.8	13.5	12.5	14.0	12.7	12.1	8.5
창업지원	9.3	9.5	9.2	6.5	5.7	10.6	9.5	12.8	11.5	10.3	9.0	9.4
평생교육/상담 지원	9.0	8.8	9.1	10.3	8.4	7.1	10.7	8.3	8.9	8.8	8.4	12.4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8	7.6	8.0	8.4	7.2	8.4	6.9	9.6	6.4	6.8	8.3	7.3
학자금 대출 지원	7.4	7.5	7.3	5.2	9.9	7.9	6.9	7.0	7.7	6.8	7.7	7.3
문화/여가 지원	7.3	6.4	8.1	9.7	6.0	7.9	6.2	5.4	9.4	8.1	6.6	9.4
(재)취업, 일자리 지원	6.7	6.5	6.9	7.1	6.3	7.3	7.8	4.5	6.8	7.9	6.1	7.7
직업교육훈련 확충	5.8	6.4	5.2	5.8	3.0	7.1	4.5	8.3	6.4	4.8	5.7	8.1
공공임대주택 보급	4.5	4.0	5.0	3.5	5.4	3.8	4.3	4.5	6.0	4.6	5.0	1.7
의료비 감면	4.2	4.4	4.1	4.8	6.9	4.1	3.8	3.5	1.7	3.9	4.4	3.8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3.8	3.1	4.6	5.5	4.5	4.1	3.1	3.2	2.6	4.2	4.2	1.3
전세보증금 지원	3.6	4.2	3.1	3.5	5.1	3.0	2.4	5.4	2.6	3.7	4.0	1.3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1.8	2.0	1.7	2.6	2.1	1.6	1.4	1.6	1.7	2.4	1.5	2.1

⑤ 60대

6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감면 18.0%, 문화/여가 지원 13.3%, 공공요금 감면 10.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7%, 평생교육/상담 지원 7.7.%, 세금 감면 6.0%, (재)취업, 일자리 지원 5.1%의 순이다. 60대를 위해서는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의료비와 세금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6> 세대별 필요 정책 : 60대

<표 Ⅲ-39> 세대별 필요 정책 : 60대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2.0	22.6	21.4	22.8	25.8	21.4	23.9	16.5	20.3	22.9	21.6	22.2
의료비 감면	18.0	17.1	18.8	18.6	19.6	18.6	17.3	16.8	16.5	17.0	18.2	18.4
문화/여가 지원	13.3	12.8	13.8	11.2	11.6	11.9	15.9	15.2	13.6	12.6	13.8	12.0
공공요금 감면	10.8	11.2	10.4	10.3	13.9	8.6	9.0	10.5	14.0	12.0	10.0	12.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7	8.7	6.8	6.7	6.8	8.1	7.3	9.5	8.1	8.1	7.5	8.5
평생교육/상담지원	7.7	8.2	7.3	8.7	6.2	7.0	8.3	7.3	9.3	6.5	8.2	7.7
세금 감면	6.0	5.6	6.3	5.8	5.3	5.7	5.9	7.6	5.5	7.8	5.6	4.3
(재)취업, 일자리 지원	5.1	4.2	6.0	5.4	4.2	5.9	5.9	5.1	3.4	5.0	5.1	5.6
공공임대주택 보급	2.9	2.8	2.9	3.8	3.0	2.7	2.4	3.2	2.1	2.0	3.2	2.6
직업교육훈련 확충	2.5	2.9	2.1	1.9	0.6	4.1	1.7	3.8	3.0	2.0	2.8	1.3
창업지원	2.0	1.6	2.3	1.9	1.5	2.4	1.7	2.2	2.1	2.2	1.6	3.4
전세보증금 지원	1.0	0.8	1.2	0.6	0.6	1.4	0.5	1.6	1.7	0.9	1.2	0.4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0.6	0.8	0.4	0.6	0.6	1.4	0.2	0.6	0.0	0.7	0.6	0.4
학자금 대출 지원	0.5	0.6	0.4	1.6	0.3	0.8	0.0	0.0	0.4	0.4	0.5	0.4

⑥ 70대

70대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의료비 감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3.8%, 문화/여가 지원 16.2%, 공공요금 감면 7.8%의 순이다. 70대를 위해서는 의료비 감면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고용과 관련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그림 Ⅲ-37> 세대별 필요 정책 :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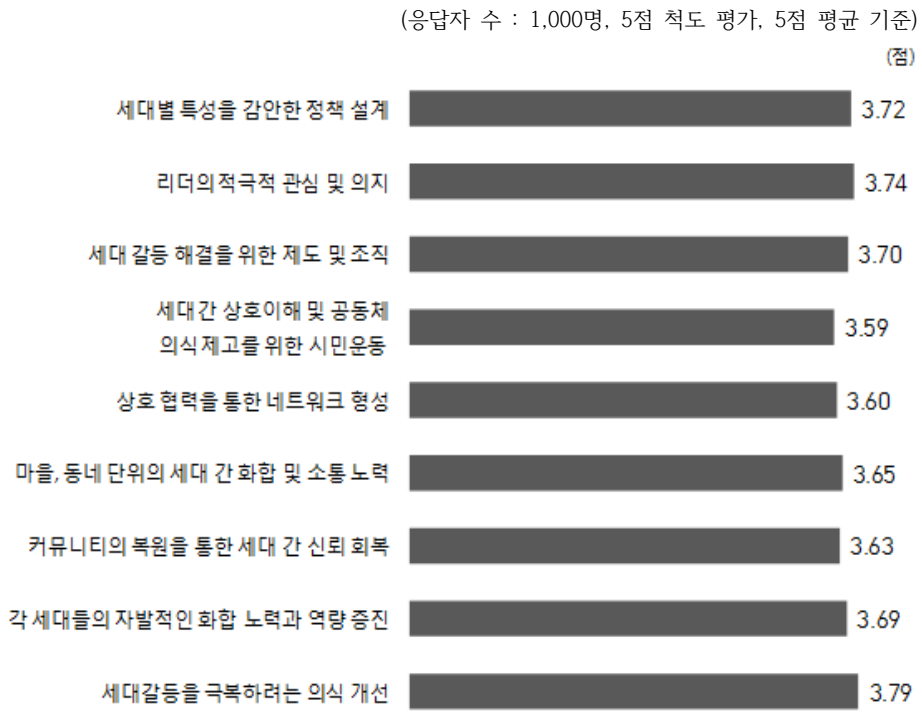
<표 Ⅲ-40> 세대별 필요 정책 : 70대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중복응답 100% 환산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의료비 감면	36.9	37.7	36.1	34.6	36.7	36.9	38.3	35.9	38.6	37.3	36.5	38.0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3.8	23.0	24.5	21.8	21.8	22.9	25.7	24.4	26.3	23.3	22.8	29.9
문화/여가 지원	16.2	15.9	16.4	17.3	14.6	17.5	15.0	14.6	19.1	17.6	16.6	11.1
공공요금 감면	7.8	7.8	7.8	8.0	10.1	7.0	6.2	9.2	6.4	7.8	7.9	7.3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4.3	4.9	3.6	3.8	3.9	5.7	4.5	4.8	2.1	3.9	4.5	3.8
세금 감면	4.0	3.8	4.1	4.8	5.7	3.5	2.6	3.8	3.8	3.3	4.3	3.4
평생교육/상담지원	2.4	2.3	2.6	3.2	3.3	1.6	2.4	2.2	1.7	2.4	2.6	1.3
공공임대주택 보급	1.9	2.1	1.8	2.6	2.1	1.1	2.4	1.9	1.3	1.1	2.4	0.9
(재)취업, 일자리 지원	1.5	1.1	1.8	2.2	0.9	1.6	1.2	1.9	0.8	2.0	1.3	1.3
전세보증금 지원	0.4	0.4	0.3	0.3	0.0	0.8	0.2	0.6	0.0	0.7	0.2	0.4
직업교육훈련 확충	0.3	0.1	0.5	0.6	0.0	0.3	0.5	0.3	0.0	0.4	0.2	0.4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0.3	0.3	0.3	0.3	0.3	0.5	0.5	0.0	0.0	0.0	0.2	1.3
학자금 대출 지원	0.3	0.4	0.1	0.3	0.6	0.3	0.0	0.3	0.0	0.2	0.2	0.4
창업지원	0.2	0.1	0.2	0.0	0.0	0.3	0.5	0.0	0.0	0.0	0.2	0.4

(2)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세대 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해서 각 부문들의 역할과 기능적 분담의 중요도를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대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식 개선 3.79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그 다음으로는 리더의 적극적 관심 및 의지 3.74점,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3.72점,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 3.70점, 각 세대들의 자발적인 화합 노력과 역량 증진 3.69점,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 3.65점, 커뮤니티의 복원을 통한 세대 간 신뢰 회복 3.63점,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3.60점, 세대 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3.59점으로 평가한다.



<그림 Ⅲ-38>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세대 간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리더의 의지와 정책 설계 및 제도 운영도 중요하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Ⅲ-41>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5점 척도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척도 평균 (단위: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8	0.8	30	3.0	303	30.3	552	55.2	107	10.7	3.72
2) 리더의 적극적 관심 및 의지	8	0.8	43	4.3	324	32.4	448	44.8	177	17.7	3.74
3)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	4	0.4	55	5.5	364	36.4	394	39.4	183	18.3	3.70
4) 세대 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10	1.0	66	6.6	384	38.4	409	40.9	131	13.1	3.59
5)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7	0.7	63	6.3	369	36.9	445	44.5	116	11.6	3.60
6)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	7	0.7	54	5.4	350	35.0	463	46.3	126	12.6	3.65
7) 커뮤니티의 복원을 통한 세대 간 신뢰 회복	7	0.7	55	5.5	370	37.0	440	44.0	128	12.8	3.63
8) 각 세대들의 자발적인 화합 노력과 역량 증진	3	0.3	40	4.0	348	34.8	487	48.7	122	12.2	3.69
9) 세대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식 개선	3	0.3	24	2.4	300	30.0	531	53.1	142	14.2	3.79

50대는 각 세대들의 자발적인 화합 노력과 역량 증진, 60대는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 70대는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세대 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이 세대 간 생활양식에 차이에 따른 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42> 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별 역할 중요도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5점 척도 평가, 중요한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65.9	66.7	65.2	59.0	61.8	66.7	67.0	68.4	74.6	65.8	66.9	60.7
2) 리더의 적극적 관심 및 의지	62.5	62.8	62.2	57.7	64.1	61.3	60.4	67.7	65.3	63.6	63.0	57.3
3)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	57.7	57.3	58.1	50.0	55.9	55.9	61.8	65.2	55.9	55.0	59.5	53.0
4) 세대 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54.0	51.9	56.0	47.4	51.2	57.0	56.1	53.2	59.3	50.2	55.8	51.3
5)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56.1	56.9	55.4	51.9	55.3	57.0	57.5	55.1	60.2	51.5	58.0	54.7
6)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	58.9	58.5	59.3	55.1	57.6	57.0	56.1	65.2	65.3	59.7	60.1	50.4
7) 커뮤니티의 복원을 통한 세대 간 신뢰 회복	56.8	56.2	57.3	56.4	55.9	55.9	60.8	55.7	54.2	55.8	57.4	55.6
8) 각 세대들의 자발적인 화합 노력과 역량 증진	60.9	60.3	61.4	52.6	62.4	61.8	67.0	58.9	60.2	58.9	62.6	55.6
9) 세대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식 개선	67.3	67.9	66.7	64.1	65.3	64.5	70.8	69.6	69.5	64.9	69.6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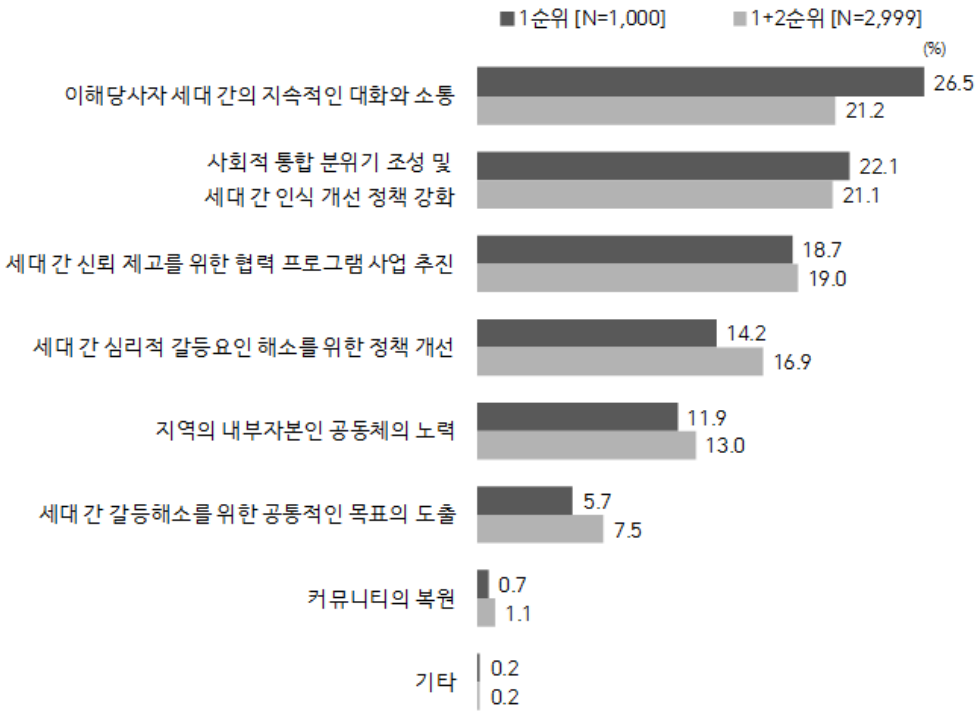
(3)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극복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이해당사자 세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21.2%,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 및 세대 간 인식 개선 정책 강화 2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19.0%, 세대 간 심리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16.9%, 지역의 내부자본인 공동체의 노력 13.0%,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의 도출 7.5%, 커뮤

니티의 복원 1.1%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세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관련 노력이 세대 간 갈등해소 및 극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보기제시)



<그림 Ⅲ-39>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70대는 세대 간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지역의 내부자본인 공동체의 노력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합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Ⅲ-43>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9	1,467	1,532	468	509	558	636	474	354	692	1,956	351
이해당사자 세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21.2	22.9	19.6	22.4	25.3	21.1	22.6	21.5	11.0	18.4	21.0	28.2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 및 세대 간 인식 개선 정책 강화	21.1	20.6	21.5	21.4	19.4	21.1	25.0	20.3	16.9	17.9	21.3	25.9
세대 간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19.0	16.4	21.5	17.1	16.7	20.1	15.4	20.9	27.1	23.0	18.1	16.0
세대 간 심리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16.9	17.9	16.0	19.9	16.5	13.1	18.9	16.0	17.5	17.6	16.8	16.5
지역의 내부자본인 공동체의 노력	13.0	12.3	13.6	11.1	13.8	11.3	12.1	12.4	19.2	12.7	13.9	8.3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의 도출	7.5	8.9	6.1	6.2	6.9	11.5	5.8	7.0	7.6	8.4	7.8	4.0
커뮤니티의 복원	1.1	1.0	1.1	1.9	0.6	1.6	0.2	1.7	0.6	1.6	0.9	1.1
기타	0.2	0.0	0.4	0.0	0.8	0.2	0.0	0.2	0.0	0.4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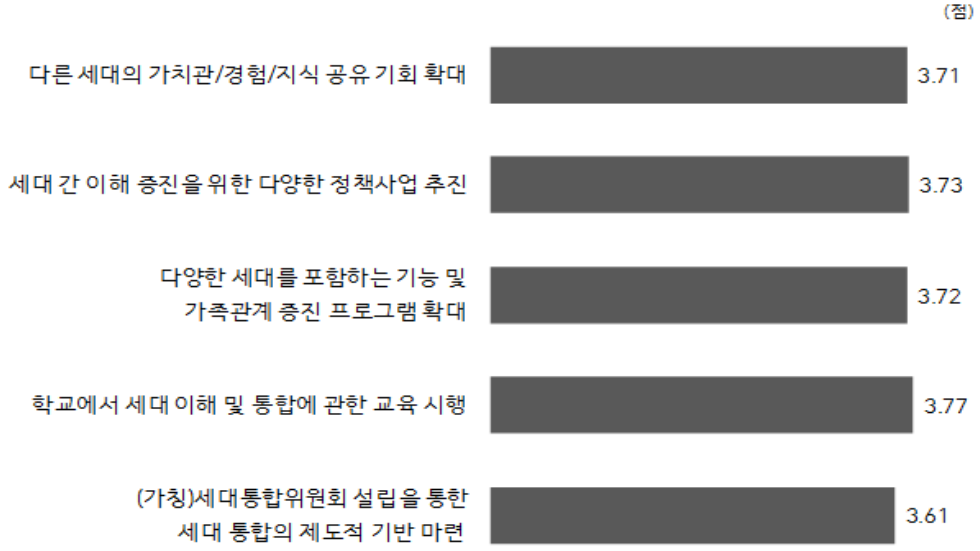
(4) 세대통합 방안

세대통합 방안별 필요 정도를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 3.77점,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3.73점,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3.72점, 다른 세대의 가치관/경험/지식 공유 기회 확대 3.71점,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3.61점으로 나타난다.

모든 방안이 보통 이상, 필요하다 정도의 수준에 가깝게 평가된 가운데

세대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수 : 1,0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평균 기준)



<그림 Ⅲ-40> 세대통합 방안

<표 Ⅲ-44> 세대통합 방안 : 5점 척도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5점 척도 평균 (단위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다른 세대의 가치관/경험/지식 공유 기회 확대	5	0.5	28	2.8	302	30.2	578	57.8	87	8.7	3.71
2)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2	0.2	32	3.2	326	32.6	517	51.7	123	12.3	3.73
3)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3	0.3	42	4.2	348	34.8	447	44.7	160	16.0	3.72
4)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	4	0.4	45	4.5	278	27.8	522	52.2	151	15.1	3.77
5)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13	1.3	45	4.5	351	35.1	503	50.3	88	8.8	3.61

40대는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50대는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70대는 다른 세대의 가치관/경험/지식 공유 기회 확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세대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Ⅲ-45> 세대통합 방안 : 5점 척도 평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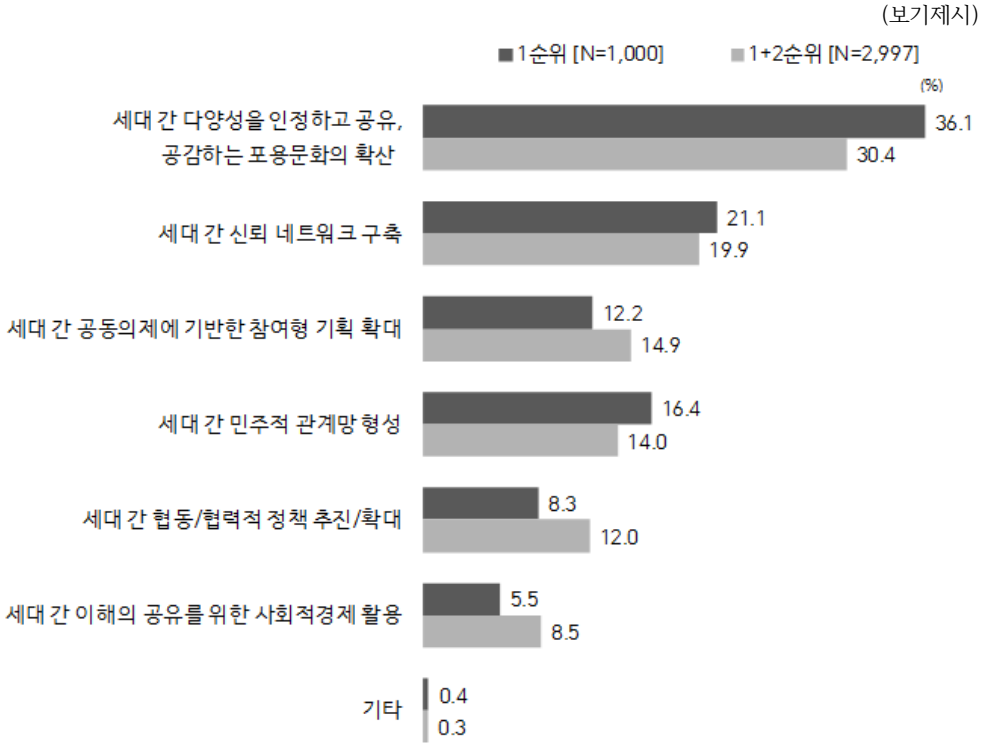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가, 필요한 편(4+5점)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1,000	489	511	156	170	186	212	158	118	231	652	117
1) 다른 세대의 가치관/경험/지식 공유 기회 확대	66.5	66.5	66.5	52.6	58.8	67.2	71.2	69.6	82.2	69.3	65.8	65.0
2)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64.0	64.4	63.6	52.6	58.8	65.6	70.8	65.2	70.3	62.8	64.3	65.0
3)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60.7	59.1	62.2	51.9	56.5	66.7	67.0	53.8	66.9	61.9	59.7	64.1
4)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	67.3	65.2	69.3	56.4	67.1	65.1	77.4	67.7	66.9	65.8	67.6	68.4
5)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59.1	57.9	60.3	43.6	54.1	61.8	67.5	60.1	66.1	56.3	60.3	58.1

(5) 세대통합 주요 과제

세대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세대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 공감하는 포용문화의 확산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 신뢰 네트워크 구축 19.9%, 세대 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14.9%, 세대 간 민주적 관계망 형성 14.0%, 세대 간 협동/협력적 정책 추진/확대 12.0%, 세대 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용 8.5%의 순이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1> 세대통합 주요 과제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46> 세대통합 주요 과제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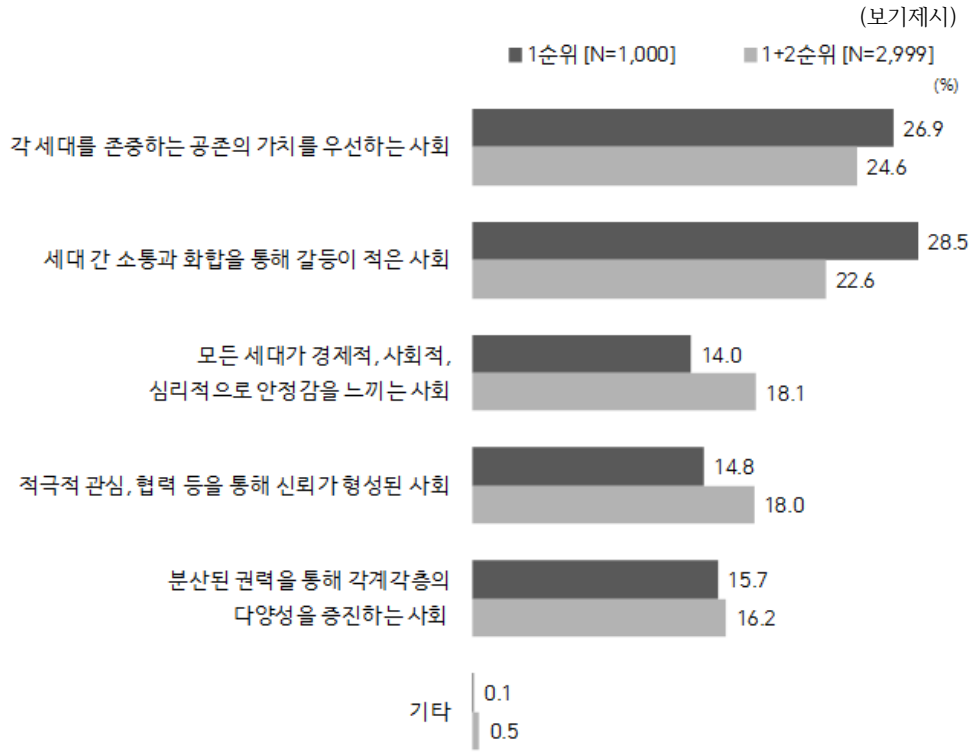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7	1,465	1,532	467	510	557	635	474	354	691	1,955	351
세대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 공감하는 포용문화의 확산	30.4	30.9	29.9	29.3	32.2	32.3	30.6	28.7	28.2	30.7	29.9	32.8
세대 간 신뢰 네트워크 구축	19.9	19.5	20.2	21.2	17.8	20.3	18.9	18.6	23.7	20.7	20.6	14.2
세대 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14.9	14.5	15.3	13.3	17.5	12.6	15.6	16.2	14.4	14.0	15.3	14.8
세대 간 민주적 관계망 형성	14.0	15.6	12.4	16.1	15.5	14.5	13.2	12.2	11.9	12.7	13.6	18.8
세대 간 협동/협력적 정책 추진/확대	12.0	11.4	12.5	11.8	11.0	11.8	11.0	12.7	14.7	11.3	12.5	10.5
세대 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용	8.5	7.5	9.5	7.9	6.1	8.1	10.2	11.4	6.5	10.0	7.9	8.8
기타	0.3	0.5	0.2	0.4	0.0	0.4	0.5	0.2	0.6	0.6	0.3	0.0

(6)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부산시가 세대통합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을 살펴보면, 각 세대를 존중하는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 24.6%,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이 적은 사회 2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세대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 18.1%, 적극적 관심, 협력 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 18.0%, 분산된 권력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회 16.2%의 순이다(1+2순

위 응답 기준임).

세대통합을 위해서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세대의 공존을 위한 가치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2>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47> 세대통합을 위한 부산시의 미래비전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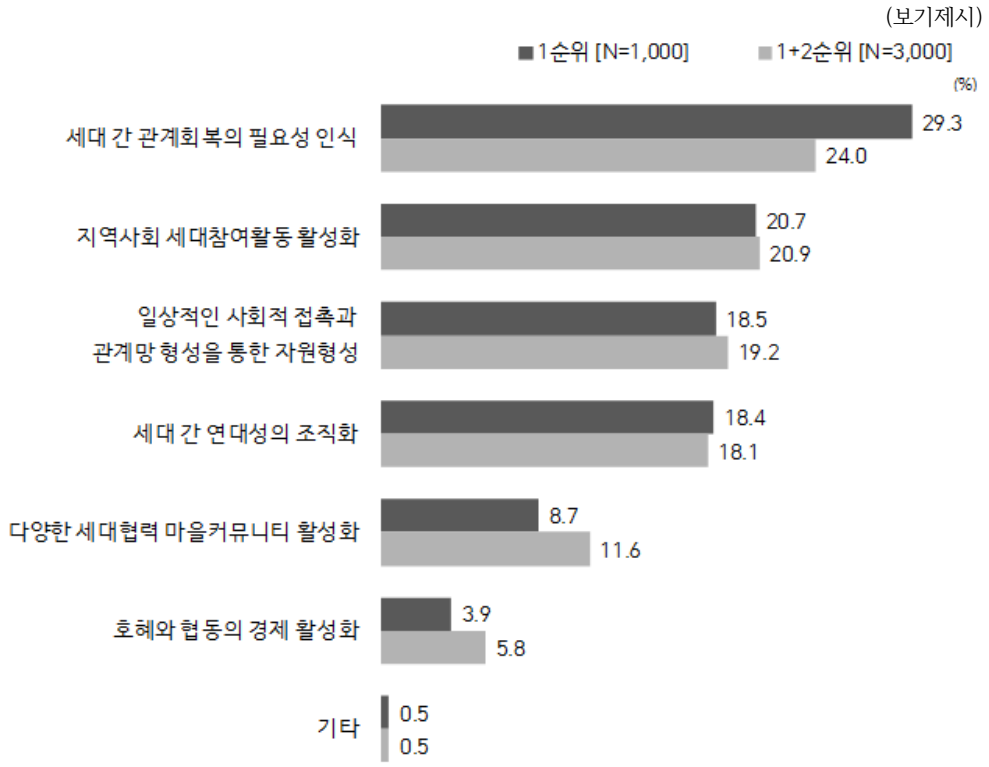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9	1,467	1,532	468	510	557	636	474	354	693	1,955	351
각 세대를 존중하는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	24.6	24.7	24.5	27.1	25.1	21.9	26.4	22.6	24.0	24.1	23.9	29.1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이 적은 사회	22.6	23.4	21.8	21.6	15.9	24.6	23.7	25.3	24.6	23.7	23.0	17.9
모든 세대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	18.1	18.0	18.3	18.6	20.2	19.7	17.1	18.8	13.0	18.8	17.2	22.2
적극적 관심, 협력 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	18.0	17.5	18.5	15.6	21.0	18.7	16.0	17.5	20.1	17.2	18.4	17.7
분산된 권력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회	16.2	16.0	16.4	17.1	17.5	14.0	16.5	15.2	17.8	16.3	16.8	13.1
기타	0.5	0.5	0.5	0.0	0.4	1.1	0.2	0.6	0.6	0.0	0.7	0.0

(7)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세대 간 관계회복의 필요성 인식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세대참여활동 활성화 20.9%,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원형성 19.2%, 세대 간 연대성의 조직화 18.1%, 다양한 세대협력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11.6%, 호혜와 협동의 경제 활성화 5.8%의 순이다(1+2순위 응답 기준임).

공동체는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거나 관계망을 형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3>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70대는 세대 간 연대성의 조직화가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Ⅲ-48>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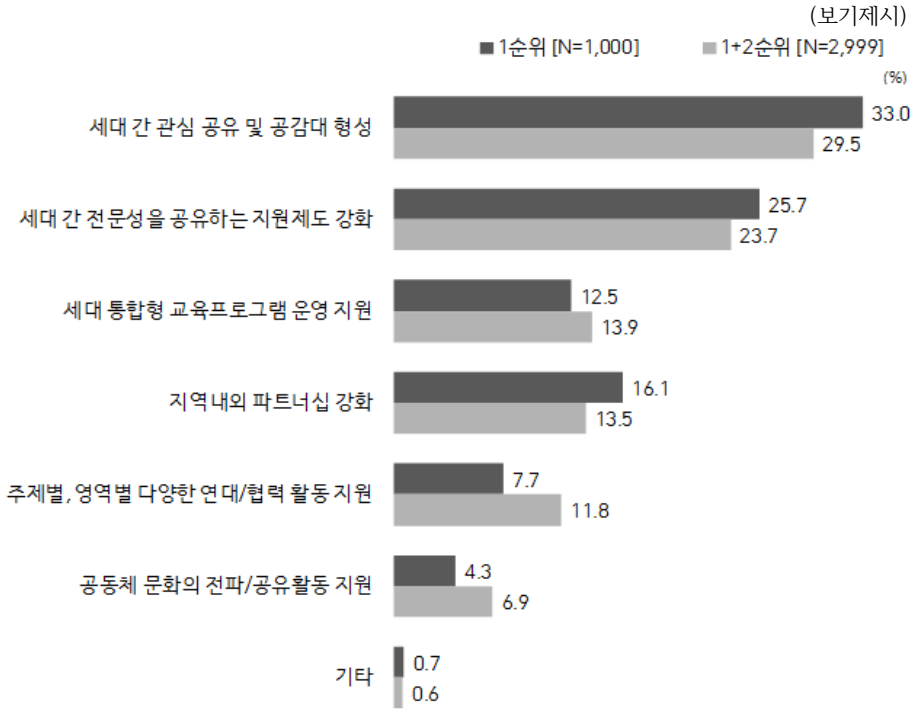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3,000	1,467	1,533	468	510	558	636	474	354	693	1,956	351
세대 간 관계회복의 필요성 인식	24.0	24.5	23.5	26.9	23.1	27.8	26.7	20.9	14.7	23.2	23.4	28.8
지역사회 세대참여활동 활성화	20.9	22.2	19.7	19.4	20.2	17.9	24.4	18.8	25.1	22.1	20.6	20.5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원형성	19.2	18.8	19.5	20.1	18.2	17.0	17.9	23.4	19.2	19.8	19.4	16.5
세대 간 연대성의 조직화	18.1	18.7	17.5	18.4	17.8	17.0	16.8	16.0	24.6	17.6	18.4	17.1
다양한 세대협력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11.6	10.3	12.8	9.6	12.9	11.8	8.0	14.6	14.1	11.8	11.8	9.7
호혜와 협동의 경제 활성화	5.8	5.2	6.4	5.1	6.3	8.1	5.7	6.1	2.3	5.2	5.9	6.6
기타	0.5	0.3	0.7	0.4	1.4	0.4	0.5	0.2	0.0	0.3	0.5	0.9

(8)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세대 간 관심 공유 및 공감대 형성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 전문성을 공유하는 지원제도 강화 23.7%,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3.9%, 지역내외 파트너십 강화 13.5%, 주제별, 영역별 다양한 연대/협력 활동 지원 11.8%,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지원 6.9%의 순이다(1+2순위 응답 기준임).

공공부문은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60대는 세대 간 전문성을 공유하는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역할이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Ⅲ-44>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1+2순위 : 중복응답, 가중치(1순위=2점, 2순위=1점), 100% 환산 기준

<표 Ⅲ-49>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 응답자별 특성

(보기제시, 1+2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						소득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응답자 수	2,999	1,466	1,533	467	510	558	636	474	354	692	1,956	351
세대 간 관심 공유 및 공감대 형성	29.5	29.3	29.7	31.3	34.1	29.9	25.8	28.3	28.0	30.3	28.8	31.3
세대 간 전문성을 공유하는 지원제도 강화	23.7	23.1	24.3	22.9	20.0	22.2	23.1	28.7	26.8	27.6	23.1	19.4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3.9	13.5	14.4	13.1	11.4	15.9	16.5	10.8	15.3	13.4	14.7	10.5
지역내외 파트너십 강화	13.5	14.3	12.8	12.8	15.1	12.0	13.4	12.9	15.5	11.8	13.3	17.7
주제별, 영역별 다양한 연대/협력 활동 지원	11.8	11.5	12.1	10.7	12.0	11.1	13.8	12.0	10.2	10.3	12.3	12.0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지원	6.9	7.3	6.6	7.5	6.9	8.2	6.9	7.0	4.2	6.1	6.9	8.8
기타	0.6	1.0	0.3	1.7	0.6	0.5	0.5	0.4	0.0	0.4	0.8	0.3

3. 소결

이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에 대한 응답자 특성은 30대와 40대는 아파트, 60대와 70대는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대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30대는 전세, 60대와 70대는 자가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주조건 고려사항은 주거편의시설

28.7%, 경제적 특성 22.9%, 직장/학교와의 거리 12.0%, 주택의 디자인적 특성 10.1%, 사회환경적 특성 9.9%, 물리적 특성 9.8%, 부모(자녀)와의 거리 5.9%의 순으로 나타난다(1+2+3순위 응답 기준임).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규모는 20대 100만원 미만, 30대 200~300만원 미만, 40대 300~500만원 미만, 50대 200~300만원 미만, 60대와 70대 200만원 미만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다가 50대 이후로는 소비지출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쇼핑 장소로 20대는 인터넷쇼핑몰과 편의점, 30대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40대와 50대는 대형마트, 60대와 70대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인식에서 20~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지향하는 소비를 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70대로 대표되는 노인층은 물건을 재활용하는 등의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말/휴일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20대와 30대는 영화감상, 50대는 스포츠 활동, 60대와 70대는 TV시청과 공원산책을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젊은 층은 동반자의 중요성과 지식습득, 일상의 변화,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층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20~50대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20대와 30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활동의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나홀로 소비 활동에서 20대는 혼자 밥먹기와 혼자 술먹기, 혼자 영화보

기, 혼자 여행하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은 경험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혼자 영화보기를 6개월에 1회 이상 경험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지출이 많은 소비항목으로 20대는 교통/통신비와 외식비, 40대와 50대는 교육비, 60대는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 70대는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 라이프 스타일 주기에 따라서 20대는 교통/통신비, 40대와 50대는 교육비, 60대와 70대는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를 반영한 생애설계 및 종합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에 대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도 세대 차이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심각도에 대해 70대는 부산지역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60대와 70대보다는 5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에 부산지역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부족이 20.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17.7%, 경제적 양극화 15.4%, 세대 간 문화적, 생활 경험의 차이 13.2%,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10.9%, 고용불안 10.2%, 세대 간 학력 차이 4.6%, 다른 세대에 대한 무관심 3.9%, 복지정책의 부족 3.4%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부산지역 미래 불안의 요인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경제적 위험이 3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15.7%, 빈부격차 15.6%, 자연재해/재난 10.9%, 환경오염 8.5%, 인재유출 8.0%,

도덕성 부족 4.6%, 범죄 2.1%, 세대 갈등 1.9%, 공동체 해체 1.3%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한편, 가족 가치관 인식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에 대해 의무적이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20대와 30대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보다 평등하고 결혼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60대와 70대는 결혼에 대해 의무적, 가정 내 남녀의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인식에 대해 30대는 사회 참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이며, 50~70대는 집단의 의견에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고 세상의 변화 속도에 다소 힘들다고 느끼는 성향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20~40대의 젊은 세대는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관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덜한 편이며, 충분한 여가생활과 삶의 여유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0~70대는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관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삶의 여유를 사치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특징이다.

부산의 5년 후 미래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산의 5년 후 미래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수준은 아닌 가운데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강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에 기대감이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소속감에 대해 20대는 부산지역에 소속감이 없다, 60대와 70대는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향후 부산지역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산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으로 30대는 지역주민 자치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60대는 세대 간,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가 세대 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내 필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셋째, 세대별 정책별 필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반영, 세대 간 갈등 해소/극복을 위한 방안과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문화 확산과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별 필요정책의 우선순위는 20대 경제적 자립 실현 및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 30대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40대 경제적 부담 해소 정책, 50대 안정적인 노후 준비 정책, 60대 사회활동 지속 및 건강관리, 문화여가 정책, 70대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문화여가 정책으로 요약된다.

세대 간 갈등해소/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관련 노력이 세대 간 갈등해소 및 극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 방안별 필요 정도를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 3.77점,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3.73점,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3.72점, 다른 세대의 가치관/경험/지식 공유 기회 확대 3.71점,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을 통한 세대 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3.61점으로 나타난다. 모든 방안이 보통 이상, 필요하다 정도의 수준에 가깝게 평가된 가운데 세대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 주요 과제로는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신뢰관계를 구

축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을 위해서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세대의 공존을 위한 가치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에 대해 공동체는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복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 관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참여활동을 활성화, 관계망 형성 및 조직화가 강조된다.

Ⅳ. 부산지역 세대별 FGI 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소결

Ⅳ. 부산지역 세대별 FGI 조사

1. 조사 개요

1) 목적

본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조사하여 세대별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각 세대별 의견 수렴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설계

본 조사는 각 세대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세대별 다양한 삶의 모습과 욕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20, 30, 40, 50, 60, 70대의 성인 남·여 총 36명을 대상으로 6차에 걸쳐 실시한다.

<표 Ⅳ-1> FGI 조사 :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방법	- 표적집단면접
조사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20, 30, 40, 50, 60, 70대의 성인 남·여
표본 수	- 총 36명 - (1차) 20대, 40대, 60대 각 2명씩 총 6명 - (2차) 30대, 50대, 70대 각 2명씩 총 6명 - (3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 1명씩 총 6명 - (4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 1명씩 총 6명 - (5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 1명씩 총 6명 - (6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 1명씩 총 6명
조사 기간	- 2017년 7월 24일 ~ 7월 27일

3) 자료 처리 및 분석

6명의 응답자에게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심층면접 방법으로 전과정을 녹취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 내용

<표 Ⅳ-2> FGI 조사 :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세부 항목
라이프 스타일	- 거주 유형 - 거주시 어려운 점 - 거주지 고려사항 - 소비제품 선택 이유 - 여가활동 -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가치관	-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정책	-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실현을 위한 노력

5) 응답자 특성

<표 Ⅳ-3> FGI 조사 :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세대	이름	성별	소속 및 지위
1차	20대	A	여	대학생
	20대	B	남	아르바이트생
	40대	C	여	사회복지사
	40대	D	남	프리랜서 작가
	60대	E	남	퇴직자
	60대	F	여	주부
2차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30대	B	남	화실 운영

	50대	C	남	경제교육강사
	50대	D	여	주부
	70대	E	남	퇴직자
	70대	F	남	퇴직자
3차	20대	A	남	공무원준비생
	30대	B	남	대학교 조교
	40대	C	여	주부
	50대	D	여	의료기사
	60대	E	여	주부
	70대	F	남	공무원 퇴직
4차	20대	A	여	일러스트레이터
	30대	B	여	학원강사
	40대	C	여	도서관 사서
	50대	D	여	인테리어 사업
	60대	E	여	주부
	70대	F	남	무직
5차	20대	A	여	대학생
	30대	B	남	영화사대표
	40대	C	여	사회복지사
	50대	D	여	주부
	60대	E	남	전 해경근무
	70대	F	여	경로회장
6차	20대	A	여	대학생
	30대	B	남	만화가
	40대	C	여	사회복지사
	50대	D	남	자영업
	60대	E	남	자영업
	70대	F	남	무직

2. 주요 조사 결과

1) 라이프 스타일

(1) 거주 유형

거주 유형은 각 세대에서 아파트,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하게 응답되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20, 30, 40대

미혼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독립하길 원하였으며, 자취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돼 프리렌서로 바로 시작해서, 수입이 많이 없는 상태에요.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독립하고 싶고 나이도 됐고 해서 항상 독립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원룸 하나 잡기도 힘들고.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것도 아직 20대 청년들이 혼자 힘으로 구하기는 무리가 있고, 어쨌든 부모님 도움 빌려야하는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20대, A, 여, 일러스트레이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은 부산에 내려와 아파트에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불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부모님하고 살면서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40대, D, 남, 프리랜서 작가).

30대는 미혼인 경우 자취를 하거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0, 50대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저는 연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집구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단순해요. 제 작업실이 센텀에 있고 일하는 직장이 사직동에 있어서, 그 중간을 찾다보니 연산동이 딱 중간이라 그곳에 살게 됐어요. 집구하려 돌아다니다가 온천천이 너무 이뻐서요." (30대, B, 남, 만화가)

"저는 전원주택을 선호는 하는데... 부산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많이 생겨서 사는 곳은 아파트고요." (40대, C, 여, 사회복지사)

"저희같은 경우는 식구가 많아서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보통 방이 3칸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칸이 필요해 가지고 구하는데, 4칸은 대개 대형평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아요." (50대, D, 여, 의료기사)

50, 60, 70대는 아파트,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다양한 거주 유형으로 응답하였다 .

"저는 지금 수영동에 5년 째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50대, 남, D, 자영업)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두 명이 살기엔 좀 크고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60대, F, 여, 주부)

"거주 유형은 빌라형인데... 집사람이랑 얘기하니 너무 복잡한 데도 그렇고 조용하고 부담이 없거든요. 아파트는 부담을 마니 가져서 첫 째 지출이 줄어야 하고 우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70대, E, 남, 퇴직자)

"아무래도 저는 주거지 얘기하는데 세대차이 날 거 같은데 저는 광안동에서 일반 옛날 고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70대, F, 남, 퇴직자)

(2) 거주시 어려운 점

거주시 어려운 점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젊은 세대의 경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좁은 방을 거주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자취를 하는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응답하기도 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차난 산책 공간 부족, 자녀 안전, 치안 및 안전, 집의 규모, 접근성, 생활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종종 발생하는 도난사고, 수질 문제, 생활 환경, 난방 문제, 이웃간의 단절,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였다.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저랑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최근에 군대를 가서 지금은 세 명이서 살고 있고요. 성인이 되면서 불편한 점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대, A, 여, 대학생)

"거주시 어려운점은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지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했다거나 아니면 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다든가, 집주인 한 번 만나선 힘들잖아요. 그거는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저는 전세로 해서 매달 10만원씩 돈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20대, B, 남, 아르바이트생)

"아이가 어리다보니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남편이 소방관이라 남편 직장에 맞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다보니 안전보다는 교통위주로 가다보니 위험한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곳도 미남역 근처라 아이 혼자 등교하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한 점.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저는 지금 혼자 살 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거주시 어려운 점은 혼자 살면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거주지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죠. 여자 혼자 살고 요즘 세상이 험하다보니 배달음식을 밤늦게 시키더라도 혼자 사는 티를 내기 무서워서 저 같은 경우는 문 안 열고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배달결제 앱으로 미리 결제하고 두고 가라고 하는거죠. 택배도 그렇고..." (30대, D, 여, 학원강사)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 주변 문화시설들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자녀를 키우고 맞벌이 부부 입장에선 즐길 거리, 여가거리들이 많이 이동해서 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A, 여, 사회복지사)

"다세대 주택에 살고요. 소음 같은 게 조금 불편한 점이죠." (50대, D, 여, 주부)

"저는 특별한 지역에 사는데, 가덕도에 삽니다. 조금 외곽이니까 환경도 괜찮고 운동하기도 좋고 해서 사는 데는 괜찮은데 조금 소외받은 지역이거든요. 부산시에서 하다못해 쓰레기차도 안와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하래요. 그래서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논밭이 많아서 땅에 묻어요." (50대, D, 여, 인테리어 사업)

"빌라가 15년 됐는데 이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세대는 11세대인데, 협력을 잘 해야 하는데 꼭 한 두 사람이 협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남천동인데도 좀 어두워요. 어두워 가지고 내가 구청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좀 밝은 걸 해 달라. 하니까 1년 기다리라, 6개월 기다리라..."(60대, C, 여, 주부)

"시장통 뒤에 있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차문제라든가, 아파트에 화재가 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한 10분 거리면 쫓아올 거린데 30분이 걸리더라고... 또 수질문제 개선에도 관심을 가졌으면..."(60대, A, 남, 퇴직자)

"인사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들은 체 만 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하는 거 아닌

가 하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떠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모임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비상계단에 뭣을 놓지 마라. 어제 아래도 계속 방송을 하는데 계속 안 치우고 놓는 기라요." (70대, F, 남, 공무원 퇴직)

(3) 거주지 고려사항

거주지 고려사항으로 20, 30대는 회사, 학교와의 거리, 역세권, 비용, 집값, 문화생활, 치안, 안전, 쾌적한 환경 등을 중요시 하였으며, 40대는 자녀 교육, 직장과의 거리, 문화시설, 도시 근교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 미혼자의 경우 원룸, 편리한 교통편, 물가가 저렴하고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를 선호하였으며, 50대는 편리한 교통, 문화 시설, 건강, 노후, 의료혜택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호하였다. 한편, 50대의 여성(주부)의 경우 살림시 편한 큰 규모의 거주지를 선호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의 거주지를 선호하였다. 60, 70대는 투자가치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대부분 공기 좋고 한적한 교외지역,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 귀향 희망, 자연환경과 경제적 부담 없는 소규모의 거주지를 고려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애들은 자취, 집이 너무 머니까 자취를 해야 하는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을 구하는 기준은 무조건 학교랑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 하나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멀어질 때마다 가격이 싸지니까 그거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적당한 거리의 적당한 집, 좀 괜찮은 집을 고르고 있고..." (20대, E, 여, 대학생)

"거주시 고려사항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교통이 제일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이랑 집이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도서관이 근처에 있었음 좋겠고, 직장 구하면 그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센텀을 갔는데 수영강변 주변에 산책로가 되게 잘돼있더라고요. 집에 개를 키우는 데 딱히 산책 나갈 곳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부산대 옆에 온천천이 있긴 한데 더 나무가 많고 푸릇푸릇한

곳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20대, F, 여, 대학생)

"거주지 선택할 때는 보통 주변 조용하고 이동 편한 곳으로 하는데 사실 제 나이대 청년들은 집 사는거 생각 못하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집값이 싸고 주변이 조용하면서 교통이 편한 곳이 많이 없겠지만..." (30대, B, 남, 화실 운영)

"저희는 40대 중반 넘어가니 외곽처럼 조용한 데 살고 싶은데... 애가 중학생이라 학교 위주로 선택하게 되요. 어디 한 번 가려하면 애 때문에 못 가는 거에요... 나이 들수록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대학만 가면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신랑이랑 정해놓은 상태기도 하고요. 조금 조용한 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대, D, 도서관 사서)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대출금이 있다고 해야하나? 항상 대출금을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주로 인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흥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를 고를 때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엄마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다니시니까 주변에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E, 여, 사회복지사)

"저는 이제 온천천 주변에 직장이 있습니다. 양육이랑 출근을 병행하다보니, 원래 화명동에서 출퇴근 하다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시 출퇴근 시간 너무 걸려서 바로 직장 옆으로 이사 가서..." (40대, C, 여, 사회복지사)

"원하는 주거 방향은 요즘에는 원룸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다 1인가구가 많고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편이 편한 데가 좋은 것 같고요. 대학가 쪽을 선호하거든요. 대학가쪽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싼 편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가는 원룸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특히 1인 가구들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예를 들어서 식당도 혼자 가기 편한 그런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40대, B, 남, 프리랜서 작가)

"지금은 너무 외지(가덕도)라 그나마 중간 쯤 되는 곳. 문화 혜택이나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고 싶어요. 지금 너무 소외지역이라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 데 옮긴다면 지금보단 좀 더 도시 쪽으로 가고 싶어요." (50대, D, 여, 인테리어 사업)

"거주지를 구할 때 고려사항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교통 편리한 거 그런 거..." (50대, E, 여, 주부)

“50대 남자들은 전원주택에 살길 원해요. 근데 여자는 마트나 병원이 가까운 아파트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50대 대표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나이대가 지금 다들 아파트에 3-40평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너무 그 투자한 돈이 많다는 거죠. 노후자금은 없으면서 현재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저는 40평대에서 20평대으로 줄였거든요. 이전 주거공간이 옛날 아파트라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새 아파트가 평수는 작아도 살기가 너무 편해요 사람들이 주거 크기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사람들이나 사회적인 것 때문에 주거 크기를 줄이기 쉽지 않은데. 그런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 저는 시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최근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어요.”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주공아파트 20평형인데 세 식구가 살기 좁아요. 구조가 굉장히 창고형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아닌데 여하튼지 간에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간다 하면 큰 집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살림 하는데지 자리에 딱딱 있으면 정리가 쉬운데, 주부들은 작은 집은 굉장히 힘들어요. 살림 놓을 데가 마땅치 않고 청소도 많이 해야 해서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집안일할 때 지치지 않았음 좋겠고요.” (50대, B, 여, 주부)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둘 있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 와서 여기 살고 있고, 노후에는 제 개인적으로 고향 가서 살던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인데 자녀들 결혼하면 공기 좋은 곳. 교통 좋은 데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초역세권인데 공기 좋고 노후생활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60대, E, 남, 자영업)

“첫째는 자연환경이라, 보기좋은데... 둘째는 크게 경제적 부담 없게끔 소규모, 한 20몇 평짜리... 지금 인자 30몇 평 넘는데 부담가져요... 크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요. 살기 좋은 데가.” (70대, A, 남, 퇴직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어요. 주변 수영강변이 있어서 환경이 좋고 다닐 산책거리도 좋고 다 만족합니다. 단, 희망사항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애들과 소통이 점점 없어지고 객지에 있는 애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애도 있는데, 마음에서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소외감도 들고. 그리고 정말 80대 넘어가면 실버타운 그런 정책을 조금 크게 생각해서 공공주택 개념보다는 실버들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70대, D, 남, 무직)

(4) 소비제품 선택 이유

소비제품 선택 이유에 대해 대다수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다던지, 가격, 실용성, 불필요한 소비 자제, 가격 대비 좋은 제품, 필요 기능 위주의 소비 등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20대는 인터넷 후기, 주위평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구매, 해외직구 등을 적극 활용하며, 30대의 미혼 남성의 경우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구매, 구애없는 자유로운 소비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자녀가 있는 30대의 경우 자녀를 위한 소비를 대부분 한다고 응답하거나 AS 여부, 디자인, 회사 이미지 등의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40대 기혼자의 경우 가족 마다 필요한 제품이 다르므로 고민 후 합리적 소비를 추구한다는 응답과 70대에서 소비 자제, 절약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가 소비하는 것들은 휴대폰을 사는 거나 아니면 옷이나 책이나 약간 이런 종륜데 대부분은 다 사기 전에 무조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서 이게 어떤 후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사려고 하고... 그래서 직구 같은 것도 해 본 적 있고, 미국이나 중국 사이트에서 사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A, 여, 대학생)

> "제가 물건을 잘 안사는 편이라서... 그런데 가끔 꼭 사야할 때는 저는 꼭 예쁘거나 소장용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필수품은 최대한 싸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요즘 20대가 다이소세대라고 마트나 백화점 못 가고 다이소를 간다고 그렇게 부르던데, 다이소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싸서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생활용품 최대한 싸게 사고 돈 모아서 차라리 예쁜 것을 사는 편이에요." (20대, D, 여, 대학생)

>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지른다고 하죠. 생각 없이 지르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이나 가격같은 거 잘 못 따지고..."(30대, E, 남, 영화사대표)

> "제가 아마 가장 생각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결혼안한 30대이거든요. 일단 소

비패턴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장 비싼 걸 구매합니다. 20대는 돈이 없어서 가장 싼 걸 찾았는데, 30대 돼서 돈이 좀 생기니 가장 비싼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구매패턴은 단순해요. 가다가 사고 싶으면 사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랑 자전거가 엄청 쌓여있거든요." (30대, F, 남, 만화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가장 먼저 따질 수 밖에 없죠. 무조건 인터넷으로 검토하고 면세점 가더라도 무조건 인터넷에서 싸면 사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세대들이 남들보다 다르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 나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무조건 남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독특한 것도 많이 찾아 나서고..." (30대, C, 남, 대학교 조교)

"소비제품은 저희나이 또래는 아이위주가 많은 듯해요. 제가 사고 싶은 거 많지만... 저는 실용적이라고 사지만 남편 눈에는 비실용적인 물건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주로 성인들은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거 사고 나머지는 아이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소비제품 선택 이유는... 인터넷 최저가도 사긴 사지만 가성비라고 해서 아주 싼 가격은 아니라도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리고 같은 가격대가 아니더라도 조금 비싸도 역사 있는 가게나 전통이 있는, 사실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좋은 중견기업이라도 가격이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대기업보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요즘에 말씀하시는 좋은 일을 하던 회사라든지... 그런 것도 참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사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런 제품 피하려고 하고요." (40대, C, 여, 주부)

"저는 이제 소비제품을 편의성, 실용성 위주로 하는데... 주부다 보니 그런 게 있고요." (40대, F, 여, 사회복지사)

"소비제품은 많이 다 사고 싶어요. 왜냐면 쓰고 있는 것보다 자꾸 좋은 제품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쓸 돈이 없어서 자제할 뿐 사고 싶은 건 많아요. 그치만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용적으로. 심미적인 물건 사고싶지만 보통 기성품하고 세배 다섯 배 더 비싸요 작은 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눈으로만 보고 기성제품을 삽니다." (50대, B, 여, 주부)

"소비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옛날에 소득 있을 때는 사고싶은 거 샀지만, 지금은 소득이 한정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지출은 안하게 되고. 생활 어려운 점이 제가 57세에 퇴직했는데 연금은 61세에 받아요. 퇴직금 있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소득이 생활비 내용돈 충당하기 위해 얼마만큼은 돈을 벌어야한다는 부담이 있죠."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저는 소비 제품 선택할 때 이런 거처럼(일회용 컵) 참 불만이더라고. 내가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것만 거둬.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일회용 이거를 거둬서 매일 그 큰 박스에다가 박스가 아니고 큰 자루에다가 한 트럭씩 실어내는데...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 우리가 보기에 소비성이라는 게 요즘엔 옷이 유행이 변해가 못 입지 떨어져 못 입고 그런 거 아니잖아. 옛날엔 떨어져 가지고 깁어 가지고 입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넘쳐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다 못하고 넘어가니까 전부 다 버리니까 그게 낭비라. 결과적으로 보면 낭비가 없었음 좋겠고." (60대, A, 남, 퇴직자)

"저는 제품을 모바일로 한 번 물건을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마트나 대리점으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꼭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능을 보고 다음에 디자인을 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60대, E, 전 행경근무)

"저는 이 소비에 대해 큰 욕구가 없고 여자들은 뭔가 나이 들어도 사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 고장난 물건도 고치면 큰 불편 없이 살고 있고...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IMF 이쯤 돼서... 공중에 날렸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불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활을 아껴가면서 남 보긴 희멀쩡 한데, 속빈 강정이라도 불만 없으니까... 식사도 3-4천 원 짜리 해도 한 개 불편 없거든요." (70대, B, 남, 퇴직자)

"저는 소비제품 선택할 때, 제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사게 되면 다 떨어지고 구멍 날 때까지 썼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 먹고 살게 됐는데도 뭐 살 때도 질긴 거, 오래가는 거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건 살 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 뭐 유행 따라가고 시대에 맞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원래 패턴을 좀 바꿔서 실용적이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유행에 맞게 선택합니다." (70대, F, 남, 무직)

(5) 여가활동

20대는 여가활동으로 게임, 영화감상, 음악감상, 친구들과의 모임, 맛집 및 카페 방문,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응답자가 다수인 한편, 여가 활동이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30, 40대는 운동, 휴식 및 교외 산책, 문화

생활, 사회적 교류, 라디오 청취, 독서 등을 응답하였다. 50, 60대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야외 활동, 문화생활, 친목 모임, 운동, 등산, 산책 등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관심 분야,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해 자기 계발 활동을 하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70대는 복지관에서의 활동, 사회봉사 활동, 운동, 백화점, 마트, 광장, 공원에서의 휴식, 독서, 글쓰기, 고스톱 등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가생활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가장 큰 저희 때의 여가생활인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맛집투어가 대세니까 어디가 맛있더라해서 같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카페같은 데는 여자애들은 카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곳을 구경하러 다니고 이게 여가생활인 것 같아요."(20대, E, 여, 대학생)

"집에 있을 때는 영화보고 음악 듣고 하는데, 저는 일단 책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유투브를 많이 봐요. 가수 무대영상이나 뮤비나 게임방송 이런 것도 봐요. 학교에서는 패러글라이딩 동아리를 한단 말이에요. 집순이이긴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하거나 근처 산에서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20대, F, 여, 대학생)

"여가생활은 거의... 공부도 해야 하고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가 생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C, 남, 공무원준비생)

"가장 간단한 것은 밤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혼맥. 혼자 외국 맥주를 사서 편의점에서... 티비를 보고 와이프와 이런저런 하루종일 있었던 이야기하는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자유시간이 많으니까 최근에 부산 교외라든가 아니면 부산 내 원도심을 보면 도시 재생 사업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괜찮은 거리라든가 새로운 어떤 문화거리 산책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천편일률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수동적으로 앉아서 봐야 하니까. 좀 무언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에서 재미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30대, C, 남, 대학교 조교)

"여가활동은 제가 학원강사라 밤늦게 마치기 때문에 평소에 영화나 뮤지컬, 전시를 보는 정도로 하고 주말에는 휴식 자체가 좋더라고요. 쉬는 게 좋아요." (30대, D, 여, 학원강사)

"여가활동은 직장생활을 하니까 쉬는 시간이 저는 다 여가 활동이에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없어요. 실은 직장에 하루 종일 매여 있고 갔다오면 아이들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아주 자유롭게 정해 놓은 시간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여가생활의 7은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물놀이를 가거나 아이들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하는 것 같고 한 3정도의 여가활동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나 아니면 그냥 쉬는 것.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가를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40대, A, 여, 사회복지사)

"집에 TV가 없는데, 웬만하면 라디오를 틀어 놓는 편이거든요. 라디오를 틀면 귀를 열고 집안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라디오를 트는 게 다양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TV를 보면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야 하니까... 주로 라디오를 듣고 책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책을 보면서 다른 예전에는 그냥 정독, 필독서 이런 것만 찾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보다 저한테 관심있는... 책을 보면서..." (40대, C, 여, 주부)

"여가생활은 제 또래가 대부분 등산 또는 서예를 배우거나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처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많이 다녀서 많은 거 배우고 많은 자격증 땄지만 별로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뭔가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채화 다시 시작하고... 관상학도 7년 배웠는데 이게 10년 목표로 배워야겠다... 내가 진짜 관심있고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우러 다니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하고 책읽고 과외 준비하고 뭐 이렇게 보냅니다."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여가활동은 짬짬히 합니다. 지역에서 뭐든 문화센터 이용해서 뭐든 합니다. 역사 탐방이나 그런 거... 단지 경우에 따라 단절돼서 지속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문화센터 중에서 내가 접근 되고 관심 있다 싶은 건 다합니다." (50대, B, 여, 주부)

"여가활동은 가벼운 등산 정도 하고. 친구들하고. 친목모임 한번씩 해요." (50대, E, 여, 주부)

"취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안 있으예. 맨날 나가고... 취미 활동을 헬스 매일 다니고, 단지 안에서...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댄스도 배우고 때론 캐리커쳐 그림같은 것 좀 하고 그렇습니다." (60대, B, 여, 주부)

"...저는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해요. 어디서든 뭐 한다고 하면 내랑 상관없는 것도 한다고 하면 막 거기를 가요. 우리세대는, 저는 특히 공부 많이 못한 세대

고... 시골에서 커서 공부를 좀 멀리하고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든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것저것 배우는 데는 다 가고 싶어서 배우는데..." (60대, D, 여, 주부)

"현재 여가시간은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해서 또 주말에는 동호회 활동을 가서 운동을 하고요." (60대, E, 남, 전해경근무)

"저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저가 뭘 취미생활을 하냐면 사진동호회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할 때도 사진 거기 회장을 했거든요. 어디든 갑니다. 차타고 승용차로 가기도 하고 안되면 버스로 가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곳은 다 다니거든요... 또 나이가 드니까 봉사활동도 해야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금 어디 나가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나도 같이 한다고요. 그래 인자 대학생들이 우리 손자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손자들이 대학생인데, 손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것도 해 보니까 재미가 있고요. (70대, C, 남, 공무원 퇴직)

"...가능하면 운동 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많이 찾는데요. 예를 들어 집 가까이 있는 백화점, 마트, 벡스코 광장, 놀이공원 같이 가까운 곳으로 선택 많이 하는 편이에요..."(70대, D, 남, 무직)

"...각 경로당에 이래 오시는 분들이 참 즐겁고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활용은 뭘로 하냐 하면은 주로 고스톱을 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 읽기, 저는 뭐 전공 과목이 국문과니까..."(70대, E, 여, 경로회장)

(6)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20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함 점, 생활비 부담, 통신비, 교통비 등의 부담, 취업,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고민을 꼽았다. 30대는 육아 위한 휴직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대출금 등)으로 인한 생계 고민, 청년 작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소득문제, 그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 부재, 노후 불안, 사업자금 대출의 까다로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였다. 40, 50대는 자녀 교육(비)

문제, 사회생활 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입,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50대의 경우 부모 부양과 자녀 결혼 자금 걱정 등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60, 7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 자식 걱정, 자식세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노인 지원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이번 1학기까지만 용돈 받고 이제는 용돈 안 받는데 큰일 났어요.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들도 알바 어플로 한 10군데에 이력서를 지원하면 3-4개 올까 말까에요. 그래서 알바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고, 교통비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장잔고가 계속 줄어드니까... 당장 다음 학기에 학교 가는 것도 돈이에요. 점심값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하나 싶고요. 집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 드니까 너무 부담이고요. 제가 최소 주 4회 학교 왔다갔다만 해도 돈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20대, F, 여, 대학생)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통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수입이 많이 없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통신비고 그 다음이 교통비에요. 그게 쫌 힘들어요." (20대, D, 여, 일러스트레이터)

"20대다 보니 취업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취업 자체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학 입시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대학교를 오고나서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직접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찾아 나가고 이러는 과정도 어렵고... 취업준비는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해서 그냥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검정 시험이라든가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다들 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봉사같은 경우도 다들 하니까 나도 필요하겠지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20대, E, 여, 대학생)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인 것 같고 제 또래는 생계형 맞벌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아파트 들어가도 사실 부모 도움 없으면 은행 집이니까. 그걸 30년을 나눠서 갚아야하는 그런 현실적 부분들. 아이가 어리니까 은행에 한달에 들어가는 상환금 정도 내가 나가서 알바로 버는 거. 그런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일을 하면 하루 5시간정도 주어져있는데, 그정도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해서 은행 상환금 마련하나 하는 고민들 있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데. 저는 사회복지사를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실 5시간 일 없거든요. 계약직이나 풀타임 해야하는데 그럴 거면 정규직이 낫지. 그런 파트타임으로 아이에게 가족에게 피해 안주면서 도움 되는 일 찾는 게 가장 힘들지 않나 하는데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이제 직장생활을 안하고 화실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 청년 작가들이 타지역에 비해 돈이 부족하다보니 운영하는데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작가들 할 수 있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삽화나 벽화나 그런 그림 관련 일인데... 주로 부산은 출판업나 디자인 쪽이 간판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일 하려면 서울에서 받아야하는데... 이미 거기도 포화상태라 거기 일이 넘쳐야 부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30대, B, 남, 화실 운영)

"경제적인 소득 문제가 어렵고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이죠...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물론 좀 오래 되긴 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안 짜져요. 단기적으로밖에 계획을 못 짜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거의 안 되는 거죠.. 계속 아끼고 그 속에서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이 물론 물가는 싸지만 어쨌든 소득이 낮은 도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못 가요. 그런 어떤 소득의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30대들이 많이 공감을 할 건데 출산은 거의 사실 생각 못합니다. 부모님은 뭐 애 낳으면 알아서 큰다 하는데 키워주실 거 아니면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애 때문에 나의 어떤 기존에 누리던 생활을 못 누릴 거라는 게 사실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와이프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애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30대, C, 남, 대학교 조교)

"저희 30대는 또 보면은 직장도 다니지만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40대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또래를 보면 보통 직장을 1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어려운 게 대출받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업화 지원금,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보면 한정된 분야에 정해진 사업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제약이 있을 때 좀 어렵고 좌절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30대, E, 남, 영화사 대표)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는 제가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시기 때문에 일과 아이들의 교육을 병행하는 것. 그 사이에서 직장을 다니니 아이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들이 전업주부인 엄마들보다 조금 작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외부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

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풀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 개인의 여유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현재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40대, A, 여, 사회복지사)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하는데 사실 준비를 할 게 딱히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나 경력을 가지고 앞으로 50대부터 제가 살아갈 때까지 계속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둘러봐도 딱히 없고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저의 자식 세대들 교육은 자기 알아서 할 거고 50 이후로 제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40대, C, 여, 주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지금은 없는데,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비나 그런 걸 지금 저축안하면 못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드니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정년퇴임도 해야 하는데, 애는 계속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으지 않으면 대학까지 못 보낸다는 생각에 저희 노후는 뒷전이죠. 지금 애 대학 학비까지는 모아놓고 학교 보내자는 주의라서요. 애한테도 대학까지는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 노후는 외곽으로 빠져서 생활하자 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 나이 때는 애 키우는 학비가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D, 여, 도서관 사서)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저같은 경우는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거든요. 어른들 모시고 대학생이 둘이 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어른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도 밑에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쓰다 보니까 어른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벌어서 다 해야 하니까 매달 마이너스죠. 매달 마이너스고, 항상 그냥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그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들이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직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50대, C, 여, 의료기사)

"저는 노후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이제 4대보험도 안 들어있고 국민연금도 넣다가 안 넣어서 유예상태라 10~20년 후를 상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에요. 마땅한 대책도 없고. 지금을 즐기기 위해 뭐든 보고 배우고 하는데 가슴 한 켠에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둘이 있는데 한 애는 군대를 제대해서 걱정은 덜한데, 애들이 결혼할 때 되면 부모가 어디까지 해줘야하나 그런 막연한 걱정이 들고..." (50대, F, 남, 자영업)

"생활에서 어려운 건 내가 몸이 아파서 자식들에게 기대면 어떻게 되나... 저는 솔직히 요양원에는 안가고 싶거든요. 어쨌든 내가 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먹고 꼴까닥 할 때 병원가고 싶은데.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 안가고 싶어서 걱정이죠. 자식들한테 뒤치다꺼리 될 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60

대, D, 여, 주부)

“제 세대 친구들 얘기 들으면... 대한민국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은행, 학교선생, 공무원 등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에요. 물론 퇴직금 받고 연금 받아서 경제적으로 문제없는데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년은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65세는 넘어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 문제는 노후걱정보다는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들이 짝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고. 애들이 아직까지 박사석사 공부하는데 언제까지 공부 뒤치다꺼리 해줘야하나...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하는데 내가 내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아 우리가 노년에 고령화시대에 건강해서 자기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걱정을 합니다.” (60대, F, 남, 자영업)

“저희들은 남는 게 시간이고 그러다보니 첫 째는 경제적 부담인데. 경제적 여유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없으니 자식들이 우선이고 하니 경제적 부담 크고. 그래서 주택도 지출 적은 데로 가고 최근 복지관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시설 잘 돼있는데, 포용을 다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 저희 동네 당구장 1곳인데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넉 대는 되야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네 사람 들어가니까... ”(70대, A, 남, 퇴직자)

“생활의 어려운 점은 우리 손자가 대학생이니까 우리 아들도 50대거든요. 50대 초반인데, 40대부터 50대 이런데, 가들하고 내가 안 맞는 기라요. 뭐, 예를 들면 선거 때도 ‘이 후보 안 좋나.’ ‘그 얘기 하지 마이소.’ 자꾸 이리 되거든요. 내하고는 항상 안 맞는 기라. 어쨌든간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들 따라 가면 된다.’ 이러는데 나는 또 안 그렇거든요. 고집이 나이 들면 고집이 있어서. 그기 참 애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버지, 어디 가서 이야기 많이 하지 마이소. 이야기 하면 그땐 들어줄 지 모르지만 뒤에 돌아서서 욕합니다.’ 맨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이야기 많이 안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70대, C, 남, 공무원 퇴직)

“제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자식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딸은 결혼하고 아들은 아직 안했는데, 자식들 결혼 시킬 때 참 대중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 다음은 건강 문제. 70대 넘어가니 건강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 노력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70대, F, 남, 무직)

2) 가치관

(1)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 세대에서 대다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는 소통의 부재, 사고방식의 차이, 교육과정, 정보접근성, 가치관, 살아온 방식, 정치적 견해, 살아온 삶, 시대적 배경, 경험, 환경, 학습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자세, 세대갈등에 대한 개념과 생각하는 마인드의 차이, 변화에 대한 자세 등을 이유로 세대갈등이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세대갈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보면 세대별로 네트워크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2,30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랑 이야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 뭐 그런 SNS를 통해 소통을 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이제 약간 인터넷으로 유입되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배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2,30대나 4,50대나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A, 여, 대학생)

"세대갈등 있다 생각하고. 이건 정말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고, 남 손해 보는 건 생각 안하고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타인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 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저랑 제 친구들은 암만 그래도 내가 손해 보면 안 되지 하는 입장이거든요. 배려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도움을 줘도 내가 손해 볼 정도로 그러면 되나 싶어요. 만약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손해 보면 누가 보상해주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생각해봤는데 교육의 차이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도 계속 바뀌고 시대마다 배울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다보니 세대별로 가치관이나 중요시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에요. 미디어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만든 걸 수도 있고요. 뭐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유투브 등 다른 미디어로 정보 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신념이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내가 맞고 니가 틀리다' 해버리면 점점 소통이 없어지는 느낌. 내가 뭔 말을 해도 틀린 게 되니까 서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20대, F, 여, 대학생)

“세대갈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견해, 살아온 삶, 시대적 배경 다르니까. 왜냐면 제가 30대 초반인데 20대에게 보통 화석 취급받는 느낌이거든요. 말도 잘 안통하고. 더 안 통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 들어서, 그런걸 해소하려해도 메꿀 수 없는 갭이 존재하는 느낌이 있죠.” (30대, B, 남, 화실 운영)

“세대갈등이란 게 어려운 질문이고 가치관이 어려운 질문인데 세대차이는 어느 시대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차이에 대한 인정을 좀 더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갈등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금 현재에서 느끼는 세대 갈등은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를 표출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갈등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고요. 이런 세대간의 갈등의 이유는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힘들게 서로를 위하는 시대를 살았고, 젊은 친구들은 생존 경쟁에 있어서 살아 남아야 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가치적인 충돌이 있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40대, A, 여, 사회복지사)

“세대갈등은 자라온 환경 다르기 때문에 갈등 없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교육문제 있는 듯 해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요새 사람들이 반대쪽 생각 절대 수용 안하려는 문제가 있죠.”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세대갈등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30살인데 그 주변 환경이나 사회 자체가 애들과 어른뿐 아니라 나랑 나보다 많은 사람, 더 어린 사람이 모두 단절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애 키울 때도 나랑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우리 애 어릴 때는 컴퓨터나 오락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애를 큰 농장에서 키웠거든요. 저 어릴 때는 마당에서 뛰 놀면서 컸는데 애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게임기를 하고 컸어요. 그래서 나는 마당에서 부모랑 대화하며 자랐고, 애는 기계랑 대화하면서 자란 거죠. 그런 애들이랑 나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화해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방식도 다른 거 같아요.” (50대, D, 여, 인테리어 사업)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 사회에서 흡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세대라고 하고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 세댄데 자라온 환경이 서로 틀리고 또 시대적으로 너무 급변하니까 빨리 변천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토론 문화가, 토론, 소통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만 조금

내세우다가 그 좀 묻혀 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쉬워요.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니까 더욱 더 갈등이 부추겨지고. 선거할 때 보면 갈등 부추기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 같고 제일 처음 문제가 우리 지도층이 그런 걸 정책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자기 사심을 버리고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60대, E, 남, 전 해경근무)

"세대갈등은... 우리가 산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좀 더 뭐랄까, 저희와 다르니까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이 더 많고 다툼이 오고 자식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그렇고 그런 겁니다. 주로 보면은..." (60대, C, 여, 주부)

"사람 살아갈 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직업상 평소에는 집에서 떠나 살다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가끔 갈등을 느꼈습니다. 자식 간 관계, 아내와 관계에서. 제가 그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다 왔는데 아내랑 자식들이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변하는데 저도 바뀌어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내 안에서 보지 말고 자식들 눈에서 보려하니 이해가더라고. 젊은이들은 그런 세대를 살았으니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부부간에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클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다 밥상 차려주고 했는데 갈수록 그렇지 않더라고... 마누라한테 내가 쌔빠지게 돈 번다고 뭐라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70대, F, 남, 무직)

한편, 접촉하는 세대가 세대갈등을 느낄 소통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응답, 연령에 따른 갈등이라기 보다 성향에 따른 갈등이 있다는 응답, 세대갈등이라기 보다는 생각이 다르다는 응답, 실질적인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대갈등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실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 이외의 세대가 30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대 갈등을 느낀 적은 없거든요. 아직. 회사를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대, B, 남, 아르바이트생)

"저가 생각할 때 어떤 나이로 나이에 따른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도, 우리 나이에도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차이고 결국은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게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대

라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꼰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 2,30대도 아주 재치 있고 발랄한 사람이 있는 반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많이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도 성향을 이해해 주면은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없을 순 없죠. 갈등이.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는 거죠...." (30대, E, 남, 영화사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갈등은 잘 못 느끼고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뭔가 심지어 세대 갈등조차도 느낄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또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족하고도 같이 뭔가 얘기하거나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TV라도 봤었는데 요즘에는 방에서 있으면 티비도 컴퓨터로 본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잠깐 본다거나 그리고 티비 앞에 앉아서도 워낙 취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B, 남, 프리랜서 작가)

"세대 차이는 잘 못 느끼고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가치관,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0대, E, 여, 주부)

(2)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를 경쟁하는 세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세대, 재희생을 강요받는 세대,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세대, 치열한 세대, 혼돈의 카오스 세대라고 표현하였다. 30대는 불안한 세대, 독립 세대, IMF 세대, 생존에 급급한 세대, 사회적 알람 세대, 선택받은 세대라고 표현하였으며, 40대는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 끊임없이 적응하고 모색하는 세대, 끼인 세대, 역동적인 세대, 행복한 세대라고 표현하였다. 50대는 끼인 세대라고 다수 응답하였으며, 실속없는 세대, 소외 세대, 보수적인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60대는 마지막 세대, 검소한 세대, 희생의 세대, 끼인세대, 샌드위치 세대,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라고 표현하였으며, 70대는 모든 시대를 경험한 세대, 배고픈 세대,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세대라고 표현하였다.

"경쟁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쟁을 느낀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성적가지고 경쟁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고 초등학교 때 누구는 올백이고 나는 하나를 틀렸어, 두 개를 틀렸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신경전 같은 게 사실은 있고, 중학교 때는 특목고 때문에 경쟁을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말 할 필요도 없이, 물론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잖아요. 누구는 일등했는데 무슨 대학을 못 갔다, 수능을 망쳤다. 그거를 가십거리로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친구를 경쟁상대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지금 대학생들도 스펙경쟁에 그런 게 많잖아요." (20대, A, 여, 대학생)

"저희들은 재희생을 강요받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소통부재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때를 보면은 사회진출도 쉬웠고, 저희보다 쉬웠고 그때가 한창 돈을 많이 벌던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소통을 하자니까... 그거는 다시 저희한테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희생을 해, 보답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부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저희 20대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비난하는 거죠. 비난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갈리지 않나 싶어요..." (20대, C, 남, 공무원준비생)

"저희 세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계속 부산에 살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 이미 외국으로 떠난 친구도 많고, 떠날 준비하는 친구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는 친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임금문제나 사회적으로 보수적인데 또 인터넷을 어릴 때부터 접한 친구들은 진보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저도 기회만 되면 나가고 싶은 게 사실 현실이죠. 제가 조금만 바라는 게 있다면 한국 자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진보적인 발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재 유출 막을 수 있지 않나..." (20대, D, 여, 일러스트레이터)

"치열한 세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또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취업 준비, 자격증 따느라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놀랐던 애는 하루에 쓰리잡을 뛴다고... 다들 진짜 치열하게 사는구나 싶어요." (20대, E, 여, 대학생)

"저희 세대를 정의하면 이도저도 아닌, 뭔가 불안한 세대 같아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세대. 저희가 문화생활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항상 어른들 보기에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빚도 많은데 항상 놀러가고. 제 나이대 되면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일 년에 한번 해외여행가고 매일 돈 쓰고 다니고. 그렇게 뭔가 누리며 사는데 직업, 경제적, 부모됨에 대한 뭐 여러 것들에 불안한거죠...”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우리 세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나 싶지만, 같은 세대끼리도 갭이 있어서. 30대만 봐도 괴리가 있고. 저희 세대는 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해야하는 거죠.” (30대, D, 여, 학원강사)

“제 세대는 사회적 알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적 알람이란게 이 나이 때 이런 걸 해야한다 저런 걸 해야한다 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제 나이대가 그게 가장 많이 켜지는 나이인 거 같아요.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다 얽혀있는 세대거든요.” (30대, F, 남, 만화가)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택받은 세대같아요. 굉장히 저희는 힘들기도 했지만은 왜냐하면 변화가 많았거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걸 다 겪었고요. 그리고 되게 편하게 살았죠. 우리는. 부모님 민주화 운동도 안 했고,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한창 자랄 때 경제적으로 좋았고 편하게 살다가 IMF도 겪긴 했고. 잘 사는 것도 겪었고 IMF도 겪고.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걸 다 받아 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0대가 하는 말은 항상 그런 말 많이 해요. 처음에 너무 빨리 바뀐다. 학력고사에서 수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새롭게 배울 게. 요즘도 그렇고...” (30대, E, 남, 영화사대표)

“저는 20대 얘기 듣기 전에는 소비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듣고 나니 우리가 참 행복한 세대구나,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대였구나 싶고요. 제 자식들이 고민하는 게 20대가 똑같이 고민하는 거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는데 희망을 줘야하고, 자식이 대학가면 뭐하냐고 묻고 또 3,40대 되면 명퇴할 것들, 그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 행복한 세대구나 싶구요.” (40대, F, 여, 사회복지사)

“저희 세대가 제가 20대 때는 X세대, 신세대 그렇게 했었는데 또 민주화세대와도 달랐으면서도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항상 즐겨 듣던 노래도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런 식의 괜히 뭐 좀 반항해야 할 것 같고, 엑스세대라 하니까 반항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랄까, 40대면은 거의 사실상 기성세대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좀 고민을 하고 모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세대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세대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노력, 그것보다 방향을 다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40대, B, 남, 프리랜서 작가)

"50대는 끼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윗세대 아랫세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랑 자식하고 사이에서도 끼어있는 것 같고, 부모 공양 문제랑 자식자녀랑 같이 사는 거하고... 우리가 살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50대, 남, F, 자영업)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좀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 민주화세대라고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도 지금 꼰대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매도당하고 있는 세대라 그리 말할 순 없어요. 저희도 사실 끼인 세대가 맞아요. 어정쩡하고. 뭐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50대, C, 여, 의료기사)

"50대 세대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와서 부모부양 자식부양 그래서 자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있죠. 이제 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많이 미래에 계획 없어요. 그래서 우리세대를 한 마디로 하면 실속없는 세대라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보수적인 세대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부모님도 엄격했고요..." (50대, E, 여, 주부)

"우리 세대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인생의 삶을 강물처럼 생각하거든..." (60대, A, 남, 퇴직자)

"우리나이 또래는 노후 걱정하는 세대에요. 공무원은 연금 있어서 걱정 없고 사업 크게 한 사람도 걱정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내 친구들 보니 연금을 5,60만 원 받는다는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학교선생이나 은행원은 꽤 받거든요. 몇 백만 원을.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세대가 연금 혜택 받을 나인데 너무 차이나니까 노년을 걱정할 세대라고 생각하고요." (60대, F, 남, 자영업자)

"우리는 6.25세대, 해방세대도 거쳤거든요. 세대를 너무 많이 거쳤으니까... 어려운 세대는 내가 60년대 그땐 못 살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런 시댄데 그런 세대도 거쳤고 풍족한 시대도 거쳤고, 그러다 산업화 사회, 서비스 사회로 변천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70대, C, 남, 공무원 퇴직)

"우리 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합니다. 때로는 밤샘을 합니다. 지금은 나도 잊어지지 않는데 물배를 참 많이 채웠습니다. 물을 먹고 그리 아니면 빵 한조각 줍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까지 우린 견뎌냈어요." (70대, E, 여, 경로회장)

"저는 저 제 세대가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세대인 거 같습니다." (70대, F, 남, 무직)

(3)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으로 20대는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의 고용 환경, 젊은층의 인구유출, 기계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경제 불안, 원전 문제 등을 꼽았으며, 30대는 자연 재해, 사건·사고, 불안한 고용 환경, 직군의 다양성 부족, 낮아지는 출산율, 젊은이들의 유출, 고령화 사회, 무분별한 도시계획, 노령인구의 증가, 고층건물 위주의 개발로 인한 해안선 문화의 붕괴 등을 언급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론 기계가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10년 후의 저의 미래를 봤을 때 내가 뭘 해야지 가장 행복할까?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못 찾으면 혹은 이걸 찾았다고 해도 빨리 끝나 버리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미래에 대해 불안해요." (20대, B, 남, 아르바이트생)

"젊은층은 공무원을 하는 게 제일 꿈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부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C, 남, 공무원준비생)

"저는 대학졸업하고 프리랜서 전향한 이유가, 취업했다가 회사 나갔는데 임금문제도 있고 선택지가 너무 좁았어요. 갈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부산에 회사도 별로 없고 다 서울가야하고, 학과에서도 서울로 많이 떠났고요. 살기는 사실 부산이 좋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살고 싶은데 회사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돈 더 벌겠다 싶어서 혼자 일하거든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는데 제 가치를 높이면 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산사람들 인식이 아직도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안 요소죠" (20대, D, 여, 일러스트레이터)

"미래를 위해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점이나 약간 생존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꼭 없어져야 하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E, 여, 대학생)

“미래 불안요인은 누구나 아는 뉴스에 나오는 가시적인 뭐 지진,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 살인사건 많으니까 자식 있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서 자식을 족쇄를 걸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위치 추적하고 계속 연락하고. 뭐 그런 게 많이 불안해요.”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출산율은 적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유출되고 고령화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의 활력 요인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균형이 최소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도시 전체의 활력이라든가, 소비수준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좀 위축될 것 같아서 그게 아무래도 걱정이고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정말...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도 없고 녹지에 대한 고려, 지속가능한 발전 녹지 고려 하나도 없어 가지고...” (30대, C, 남, 대학교 조교)

“부산의 불안요인은 직군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는 게임관련 일을 했는데 부산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지금은 만화관련 일이라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 부산에 와서 하지만...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에 대도시라지만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산업 쪽은 거의 없고 서비스로만 빠지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외지로 빠져요. 예전보다 점점 직업군이 작아지고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30대, F, 남, 만화가)

40대는 고령화, 젊은층의 인구 유출, 낮은 결혼율, 저출산,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환경오염, 원전 문제를, 50대는 퇴직한 5, 60대를 위한 정책 부재, 부산의 정체성 부재, 저출산, 고령화, 무분별한 재개발, 자연재해, 원전, 일자리 및 고용 한계 등을 부산지역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막연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안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불안요인이에요. 원자력, 기후 이상 변화 등이요.” (40대, A, 여, 사회복지사)

“...살기 힘드니까 결혼 자체를 피하고 그럼 출산율 낮아지고... 복합적인 거죠.” (40대, D, 여, 도서관 사서)

“원자력발전소가 부산에 기장에도 하나 있고 경주, 울산에 있잖아요. 인근에.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폭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체르노빌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계속 저도 어플을 깔아놓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본다고 해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고리원자력 1호기도 해체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1690몇 억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들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40대, E, 여, 사회복지사)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제일 심한 곳인데. 동해선 가보면 전부 나이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고령인구 많아지고 50대도 노령인구가 되니까... 지금도 노인들 위한 정책은 많은데... 요즘은 50대가 조만간 퇴직하고 55세에 퇴직하잖아요. 50대가 뭔가 일자리 가져서 보람되게 일하면 6,70대 되도 건강히 자기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 앞둔 50대 정책을 세워서 이사람들이 소일거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50대, 남, A, 경제교육강사)

"불안 요인은, 저는 부산사람이라 아이들 생각했을 때 자긍심 없는거에요. 부산은 자기정체성이 부족해요 항상... 뭐 게임엑스포 몇 가지 빼고는 부산에서 영화 찍는다는데 찍고 가면 그만이지. 아이들 자랐을 때 부산사람이라 자랑스럽다는 문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 특화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산은 문화 볼모지다' 이런 말 옛날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능력있는 사람들 다 가버렸고. '부산사람이라서 자랑스럽다' 하려면 문화를 정말 많은 노력 들여서 자긍심 있는 문화를 분명하게 개발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없다고 봐요." (50대, B, 여, 주부)

"부산에는 고령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서 노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인병원에서 일하거든요. 전국에서 노인병원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다 바라는 것은 노후에 전원주택 살고 싶은 바람인데 주택 다 재개발해서 아파트밖에 안 짓잖아요. 그 아파트에 살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사실 집주인 빼곤 세들어 사는 사람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아파트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고령화와 재개발이 아마 부산을 갉아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50대, C, 여, 의료기사)

"부산은 어느 특정 사안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인구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가 서비스 음식 숙박업 외에는 거의 없는 고용한계에 이른 것 같고요. 제 자식들도 이미 부산을 떠났는데 부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아있으라고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부산의 문제는 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대, F, 남, 자영업)

60대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고령화(홀로 사는 노인), 젊은층의 부족, 저임금의 고용환경, 환경문제(미세먼지), 원전문제, 경기불황 및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을, 70대는 도시 내 녹지 부족 및 환경문제, 정치 문제, 당장의 개발 중심의 정책, 젊은 세대들의 책임감 및 참을성 부재, 안전 대책 등을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으로 언급하였다.

.

"내 주위를 봤을 때는 너무 노인 많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이 있고 가만 보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니, 부산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있을래야 있을 데가 없어요. 저희 애들도 그게 안돼서 다 서울로 갔거든요. 부산에 있어도 인건비 약해서 너무 안타깝고...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많아서 주위에서도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몰라서 혼자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주택이나 뭐 안 들여다보면 모르잖아요. 동네에서 찾아오는 거도 있던데 통장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 매일같이 잘 케어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는 사람만 주고... 안주면 또 노인들 혼자 먹고살기 힘들고 또 아프니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60대, D, 여, 주부)

"지난번에 태풍으로 해운대 방파제 무너지고, 기장에 핵발전소 있고 그런 문제에요. 제가 2,30대 때 외국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외국과 한국은 너무 차이난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서 창원이나 울산으로 출퇴근 하더라고요 부산에 제조업이 없어서... 거의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들어서고... 부산이 향토기업이든 뭐든 다 동남아로 이전해버리고요. 그래서 부산은 젊은 청년의 일자리가 문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일자리 생각해서는 소비 패턴보다는 제조업을 부산시가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60대, F, 남, 자영업)

"...차후 후세들이... 워낙 도시가 삭막하거든요. 자연녹지가 완전히 도시에서 없어지고 있는데... 느끼는 게 아파트는 그나마 녹지환경이 잘 돼있는데. 요즘은 자꾸 생기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데는 나무한그루 볼 수 없고 너무 삭막한거라..." (70대, A, 남, 퇴직자)

"저가 통계를 많이 보거든요. 부산시에서 8천 세대가 일 년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산 주택율이 104%인데 내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도 성사가 안 됩니다. 왜 그리 성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거든예... 부산시 미세먼지가요,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다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고 이러거든. 자꾸. 그러면서 꼼짝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일이냐면 부산시내에서는 황령산, 금정산 이런 산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거든예. 우리 허파와 마찬가지인데... 내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짜냐 하면 계속 허물어 가지고 나무를 베어 낸다고요.” (70대, C, 남, 공무원 퇴직)

“부산에 해일 안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부산이 그런 대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0대, F, 남, 무직)

3) 정책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20대는 인재가 타도시로 전출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보호 장치(주휴수당, 근로 계약서 등),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화적 지원정책과 노력,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 세대별로 균등한 정책 입안, 청년 창업, 1인 창업을 위한 상주 공간 및 지원 정책, 학비 지원정책,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등, 물가 안정 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계약직 폐지, 무기계약직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저는 제 세대 입장에서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주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때도 그랬고 대학교 와서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목표는 탈부산이거든요. 부산을 탈출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대학도 서울에 가고 싶어 했고. 대학교 와서도 취업을 서울에 하고 싶고... 왜냐하면은 서울에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월급도 괜찮게 주고, 일하는 시간도 조금 적으면서... 그런 게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자리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A, 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 곳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작은 데서 일하면은 욕도 많이 먹고, 맞기도 하고, 동전도 맞아 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편의점

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형사로 처벌이 안 돼요. 공공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한 대 쳤다고 해도 세게 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건 형사로 넣을 수 없다, 민사로 넣어야 한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보호해주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근로 계약서 좀 쓰고 주휴수당도 주고 했음 좋겠어요. 그거 안 주는 데 아직 많아요... 그리고 산에 가면은 큰 산은 안 그런데 산이든 작은 관광지든 쓰레기 좀 해결해줬음 해요..." (20대, B, 남, 아르바이트생)

"...살림을 잘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늘린다기보다 정책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거 같고... 사실 노인이 힘들어져 버리면 그 가중은 전부 다 젊은 세대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 치중하란 것도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치중하란 것도 아니고... 평등하게 균형맞게 정책이 입안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C, 남, 공무원 준비생)

"저는 저번에 서울 가서 봤던 좋았던 것 중 하나인데... 그곳이 엄청 큰 카페였는데 작은 기업, 프리랜서, 1인 창업가 등을 위해서 그곳에 상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사무실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부산에서도 부산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서 혼자 시작하기 좋으니까, 그런 방안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산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입주공간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거의 20명 정도 얼마 없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지역마다 있었고, 사람들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문화진흥원이나 시에서 더 크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20대, D, 여, 일러스트레이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곤 해도 주변에 보면 소득분위를 나눈 게 '내가 왜 이 정도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나는 학비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국가장학금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학비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대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최저임금은 자꾸 오르고 있고 이번에도 곧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곳이 여전히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당연히 안 주지라는 이야기가 아직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어차피 못 받는 거. 그걸 좀 개선시켜줬음 좋겠단 생각을 많이 해요." (20대, E, 여, 대학생)

"...교통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제가 대학생이라고 해봤자 갓 학생이고 아직 정식적으로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요즘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학생증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할인해준다던지 지원해준다던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학생들은 대학생 때부터 바로 성인요금 내야해서 교통비가 껑충 뛰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 제

가 사범대 학생이라 그렇지만 임용 TO가 있잖아요. 자꾸 공교육 정상화 하는데 제 가족 중에 선생님이 많거든요. 선생님 된 사촌언니 얘기 들어보니 첫 발령 받은 해부터, 수업준비 뿐만 아니라 행정 일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하고 교육 질 높이려면 선생님들에게 교육 질 높일 시간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선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교육 질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또 문화생활 하는데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영화비도 요즘 만 원을 넘으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관공서 알바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20대, F, 여, 대학생)

30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정책, 창업지원 정책의 확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 요청, 임대아파트,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복지, 출산지원금 상향, 지방 공무원 창출 정책, 육아, 양육지원 정책 확대, 경력단절을 해소를 위한 직장과 일의 병행 지원 확대 노력, 사람을 위한 정책,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정책적 수혜의 공정성 확립(성과를 위한 지원 지양) 등을 꼽았다.

"저처럼 경력 단절 돼서 취업하기 힘든 어중간한 3,40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이 더군다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쪽은 누리보조교사로 하루 4시간 일하면 월급이 70여 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있는데, 그런 게 뭔가 안정적인 면이 있는 거에요. 서빙을 통해 버는 돈보다 안정적이고 수당도 나쁘지 않고... 그런 식의 접근하기 좋은 일자기가 있으면 엄마들이 집 밖에 나와서 경제생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그 일자리가 경력에 인정되면 더 좋겠죠... 엄마가 일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돌보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돌보미 같은 거 하늘의 별따기에요. 거의 못 쓰고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아이가 한정적이라, 신청조차 힘들고... 2학년까지 밖에 없어서 엄마들이 거의 포기하고 집에 들어앉는 일이 많은데... 엄마가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학교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의 형태를 해서라도 아이를 안전한 곳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저는 예전에 창업할 때 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받을 때 안정적으로 창업한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더라고요. 사실 창업지원이라는 게

창업을 하러 대출 받으러 가는건데... 이게 말만 창업지원센터구나가 느껴졌고... 당장 청년들을 위한 혜택,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위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사업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B, 남, 화실 운영)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어쨌든 많이 지었음 좋겠어요. 새로 계속 분양중심으로 가지 말고 임대 주택같이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주거 복지가 됐음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출산 지원을 과감하게 했음 좋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한 10만원 주는데 그거 가지고 애들 분유값도 안 되고 물티슈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40만원 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10만원은 택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 시가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대도 안 하고 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 공무원이라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방 공무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30대, C, 남, 대학교 조교)

"...연말 되면 멀쩡한 도로 갈아 엎는데 그러지 말고요. 성남시처럼 산후조리원 지원, 12세까지 병원비 지원 등의 혜택이 좋더라고요. 사실 제 고민은 아니고 제 나이대 친구들 아이 낳으면서 육아휴직이 잘 안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되고...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애 있는 엄마 뽑으려는 회사 자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온 마을이 같이 키우는 거라는 명언이 있는데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대, D, 여, 학원 강사)

"부산에 정책이 조금 사실은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형만 늘리는 정책이지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부산에 일자리 진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소비를 하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또 전문직 종사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어떤 문화도시로서. 그런 면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사업하기도 좋고 그리고 소비하기도 좋은 도시가 되게끔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30대, E, 남, 영화사 대표)

"사실 부산시 정책은 다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정책 수혜자가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맨날 생각해요. 작게는 만화 쪽에 지원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사실 지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거죠. 그쪽 입장도 이해돼요. 지원해준 만큼 성과 내야하니 성과내기 좋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지원 필요 없거든요. 정말 성과 못내는 사람들이 지원받아야하지. 그래서 부산시는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는 게 가장 문제인거 같아요." (30대, F,

남, 만화가)

40대는 도시 재생, 교통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타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부산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원정책, 노후에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 빈집을 활용한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주거 정책,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다복동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부익부 빈인빈 해소 위한 세밀한 지원 노력, 물가 안정 정책,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지원 정책(무기한 계약직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은 부산이 다이나믹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사람과 기술,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뀐 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의 비전이나 미션들이 시민들에게 다가오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부산이 도시 재생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스페인으로 치면 바르셀로나와 가장 비슷한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을 고령친화 도시로 선포를 했잖아요.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후속적인,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그래서 부산이 많이 죽어가는 골목상권,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단순히 선심성 행정 같은 거. 예를 들면 벽화마을 그리기 이런 거 그만하고 거기 정말 지역주민이 조직화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부산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줬음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정책을 냈으면 제도를 입안했으면 또 조례를 입안했으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과정들이 결코 투명하거나 공정하거나 누구나 봤을 때 신뢰 가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산이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1위예요. 고령화가 1위예요. 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이런 지역보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작아요... 고령화도시 선포,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해 달라.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선심성 예산을 줄여라,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 등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40대, A, 여, 사회복지사)

"특히 문화쪽 정책부터 같은 걸 봤을 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

고... 어떻게 보면 부산은 제2의 도시다, 그런 그게 있는데 자꾸 보면은 그 좀 부산의 어떤 정체성 없이 수도권을 힘겹게 쫓아가려는 노력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특히, 문화쪽으로 보면은 융복합이라고 보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보면은 지금까지 봐 온 결과물들이 보면 대부분이 거의 작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선 좀 있는 인적자원이든 그리고 공간이든 그런 거라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시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B, 남, 프리랜서 작가)

"...사실 부산에 녹지가 잘 형성되고, 환경이 좋다면 굳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부산에 살고 싶지만 다른 거 하나가 해결되려면 나중에 노후에 나이 들어서도 부산에 살고 싶은 정책을 펼치면 굳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외지에 나간다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말은 필요 없으니까요..." (40대, C, 여, 주부)

"...부산에서 집 미분양 돼도 자기 집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차라리 시에서 구매해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에게 돌리거나 뭐 그렇게... 요즘 구청에서 주택 많이 사서 동네 주차장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 작은 집도 돈이 많이 들고 집값이 오르니까. 아까 20대도 자기가 독립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요즘 외국처럼 보증서서 싸게 빌려주는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0대, D, 여, 도서관 사서)

"부산은 정책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실효성 부분이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이 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울산이나 창원으로 다 빠지고... 일자리 창출 고심을 하고 있고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서 다함께 행복한 동네? 그런 사업을 또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각지대는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좀 발굴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주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되게 많이 지어지면서 부동산 투기 하는 사람은 그걸 투기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해서 더 많이 부자가 되지만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허덕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40대, E, 여, 사회복지사)

"물가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값도 높고 대학생들도 하루 지출이 많아요. 물가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 방과후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좋은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직장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정규직이 6명이고 비정규직이 4명이에요... 바로 이직하는 친구들

많아서 보고 있음 안타까워요. 계약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무기한 계약직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40대, E, 여, 사회복지사)

50대는 퇴직후 노후설계,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복지예산 확충, 부패특권 척결, 노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발상의 전환 노력 등을 언급하였다.

“50대를 위한 노후설계프로그램 만들어서 의무 참여하게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구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50대 프로그램이랑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일자리-여가생활-건강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퇴직해서 뭐 배우고 하는 구상 할 수 있어야 노후 준비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해요”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저는 북구에 살고 있는데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현재,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접근성있는 문화시설 마련과 지역내 격차 없는 혜택을 누렸음 좋겠어요.” (50대, B, 여, 주부)

“청년들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줬음 좋겠어요. 그게 일단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부산은 아마 곧 붕괴할 거 같아요. 다 떠나고 없거든요. 저희 애들도 졸업하고 떠날 계획을 있으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살지 말라고 말 합니다. 솔직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리고 소득이 너무 낮아요. 기본 임금이 다른 데 비하면 4~50만원 낮아요. 그런 걸 받고 일하면 자기 자신도 너무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50대, C, 여, 의료기사)

“못사는 동네가 있을 수 있지만 소외받는 동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사는 동네는 기회가 생기면 잘 살 수 있지만 소외받으면 그나마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가덕도에 공항 만든다고 엄청 띄워놨어요. 거기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요. 근데 공항 짓는다고 아파트로 이사가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엄청 기대하고 노인들도 조금 불편해하면서 조금은 기대하는데... 그게 안됐죠. 그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몇 년을 사람들 목매게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그 지역은 무인도처럼 소외된 외지가 된 거죠. 거기 사람들이 어려운 걸 알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불편한 지를 모르니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50대, D, 여, 인테리어

사업)

"복지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음 좋겠어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애들한테 손을 못 내미니까. 그런 정책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50대, E, 여, 주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부패특권을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엘시티 때문에 현직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연류돼있어요. 근데 이 사건 흐지부지되는 게 부산을 정체시키고 사람들 소외시켜서 결과적으로 부산 해안 경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전부 고층 아파트나 호텔이 다 들어서버리니까요. 그럼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도 없어져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 책임 묻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가니 전혀 개선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발상의 전환인데요, 노령화 인구 가장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 심각하게 없어지는 게 부산인데, 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 케어 하는데 젊은이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조업 늘이고 서비스업 줄이기는 힘든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위한 정책, 그 일자리가 청년한테 가는 것. 의료비 확실히 줄이고 교육비 확실히 줄이는 그 분야 일자리 확실히 만들어서, 노인들도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노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발상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F, 남, 자영업)

60대는 교통, 수질, 식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노력,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주택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 지원정책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 일자리 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녹지 정책 등을 강조하였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물 같은 것도 수질 상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문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먹어도 관계가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먹게 되면은 특히 여성들은 먹게 되면은 태아에 장애가 오거든....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또 교통문제... 교통편땜에 약속이나 한다든가 하면 제시간에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대중교통편을 이용할라면은 그것이 충분히 잘 되게끔 해 놓고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네...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부터로 밑바닥이 모여서 결정된 일로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기 결정되

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60대, A, 남, 퇴직자)

“너무 노인을 위한, 젊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60대, C, 여, 주부)

“뭐 누구는 자식이 대여섯인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폐지 줍는다하는 그런 노인들 참 많아요. 시에서 하는지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자식 있으면 혜택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 자식 없이 등 따시고 편히 산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렇게 편히 사는데 자식 낳은 사람들은 뒷바라지 다해주고 살았는데 그런 어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걸 나라든 시에서든 어디서든 (지원해줬으면). 저 노인들로 어데 주택을 좀 얻어가지고 칸칸이 방 있으니 서너 명이 살면서 밥 같이 해먹고 뭐 그런 관리했음 좋겠어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노인이 혼자 있다가 외롭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60대, D, 여, 주부)

“공약 내걸었던 그 정책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100% 다 달성을 하여서... 정책도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되돌아 보고 다시 살펴봤음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부산이 살기 좋게 도시로 만들려면 환경 문제, 교통 체증 문제, 일자리 정책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대, E, 남, 전 해경근무)

“부산시 산하 단체에 무기한계약직과 정규직 임금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년 계약직들은 정말 파리 목숨인데요. 이런 걸 해결해서 부산시에 비정규직 제도를 좀 줄여서 청년들 고용불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 많이 생각하는데, 부산시도 자연 녹지 환경.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 많이 하는데 공원 녹지화 많이 생각해서 산업화 시대에 편히 살려면 시에서 자연녹지 신경써주고, 청년들 일자리, 정규직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요.” (60대, 남, F, 자영업)

70대는 노년층의 생산인 일자리 지원정책, 노인세대에 대한 예산을 어린세대에게 투자하는 정책, 능력있는 노인의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 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독거노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활성화, 환경 개선 노력, 난개발 자제 및 녹지 및 환경 보존, 해양 환경 오염 해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직 놀고먹기 힘들고... 어디가서 노동으로 소일거리 해서 놀 수 있는 요건

만들어줬으면 하고... 70대가 제일 어중간해요 노인정가기도 애매한기라. 노인정은 8~90대가 많아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 돈을 떠나서.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들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노인들을 흡수 할 수 있는 곳 많이 만들어줬으면... 그리고 노인들 6,70대에 투자할 돈을 어린이들에게 투자해야하는 기라. 노인네들 양보하고 어린애들한테 투자하는 거라. 어린애들이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는데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젊은 부모들이 애들 키우기도 수월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하죠." (70대, A, 남, 퇴직자)

"7,80대 여도 노인들이 모여서 오디션 보든.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서... 나이가 많아도 하다못해 파트타임이라도... 큰 돈 요구하기보다 일할 수 있으면 부산시민으로서 긍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저는 어디 가서도 부산시에 도움되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70대, B, 남, 퇴직자)

"부산에서 제일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기 인자 일자리 구할 재주가 없어요. 공장이나 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외지로 다 나가 버리고 지금 아파트만 도시 중심에 자꾸 지어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발붙일 때가 없다고. 지금..." (70대, C, 남, 공무원 퇴직)

"노인들 위한 실버타운 얘기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버부부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실버타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도시락 배달도 독거노인 위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을 상상도 못해요. 그만큼 빈부격차 심하고 독거노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나이인데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난개발. 나는 내 집 앞에 민락동 백산이 있는데 전부다 녹지 공간을 아파트로 다 대버려서 숨 시는 공간이 막혀버리는 거라. 자연재해도 중요하지만 인재가 더 큰일이거든. 갑갑하고,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 세대도 많이 생기고.. 일단 사람 사는 공간 중요한 거지..." (70대, D, 남, 무직)

"뭐 포퓰리즘에 젖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 그 동안 참 많이 내걸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동장, 통장들은 이웃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노인네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들 똑같이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바람이었습니다." (70대, E, 여, 경로회장)

"저는 젊은 사람들 노동 정책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수당 준다는 얘기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주고, 누가 받는 건지, 그게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정신적으로 새로운 마인드를 얘기해줘야 합니다." (70대, F, 남, 무직)

3. 소결

이상의 FGI 조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세대별 다양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각 세대에서 아파트,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응답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20, 30, 40대 미혼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독립하길 원했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좁은 방을 거주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주차난 산책 공간 부족, 자녀 안전, 치안 및 안전, 집의 규모, 접근성, 생활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종종 발생하는 도난사고, 수질 문제, 생활 환경, 난방 문제, 이웃간의 단절, 이기주의 등이 언급되었다.

거주지 고려사항으로 20, 30대는 회사, 학교와의 거리, 역세권, 비용, 집값, 문화생활, 치안, 안전, 쾌적한 환경 등을 중요시 하였으며, 소비제품 선택 이유에 대해 대다수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다던지, 가격, 실용성, 불필요한 소비 자제, 가격 대비 좋은 제품, 필요 기능 위주의 소비 등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20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점, 생활비 부담, 통신비, 교통비 등의 부담, 취업,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고민을, 30대는 육아 위한 휴직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대출금 등)으로 인한 생계 고민, 청년 작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소득문제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 부재, 노후 불안, 사업자금 대출의 까다로움, 미래에 대한 계획을, 40, 50대는 자녀 교육(비)문제, 사회생활 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입,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문제 등을, 50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결혼

자금 걱정 등, 60, 7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 자식 걱정, 자식 세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둘째, 세대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 세대에서 대다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는 소통의 부재, 사고방식의 차이, 교육과정, 정보접근성, 가치관, 살아온 방식, 정치적 견해, 살아온 삶, 시대적 배경, 경험, 환경, 학습의 차이,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 등을 이유로 세대갈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으로 20대는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의 고용 환경, 젊은층의 인구유출, 기계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경제 불안, 원전 문제, 30대는 자연 재해, 사건·사고, 불안한 고용 환경, 직군의 다양성 부족, 낮아지는 출산율, 젊은이들의 유출, 고령화 사회, 무분별한 도시계획, 노령인구의 증가, 고층건물 위주의 개발로 인한 해안선 문화의 붕괴, 40대는 고령화, 젊은층의 인구 유출, 낮은 결혼율, 저출산,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환경오염, 원전 문제, 50대는 퇴직한 5, 60대를 위한 정책 부재, 부산의 정체성 부재, 저출산, 고령화, 무분별한 재개발, 자연재해, 원전, 일자리 및 고용 한계, 60대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고령화(홀로 사는 노인), 젊은층의 부족, 저임금의 고용환경, 환경문제(미세먼지), 원전문제, 경기불황 및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70대는 도시 내 녹지 부족 및 환경문제, 정치 문제, 당장의 개발 중심의 정책, 젊은 세대들의 책임감 및 참을성 부재, 안전 대책 등을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20대는

인재가 타도시로 전출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보호 장치(주휴수당, 근로 계약서 등),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화적 지원정책과 노력,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 세대별로 균등한 정책 입안, 청년 창업, 1인 창업을 위한 상주 공간 및 지원정책, 학비 지원정책,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등, 물가 안정 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계약직 폐지, 무기계약직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 30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정책, 창업지원 정책의 확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 요청, 임대아파트,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복지, 출산 지원금 상향, 지방 공무원 창출 정책, 육아, 양육지원 정책 확대, 경력단절을 해소를 위한 직장과 일의 병행 지원 확대 노력, 사람을 위한 정책,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수혜의 공정성 확립(성과를 위한 지원 지양) 등, 40대는 도시 재생, 교통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타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부산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원정책, 노후에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 빈집을 활용한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주거정책,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다복동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부익부 빈인빈 해소 위한 세밀한 지원 노력, 물가 안정 정책,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지원 정책(무기한 계약직 등)의 필요성, 50대는 퇴직후 노후설계,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복지예산 확충, 부패특권 척결, 노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발상의 전환 노력, 60대는 교통, 수질, 식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노력,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주택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 지원정책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 일자리 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녹지 정책, 70대는 노년층의 생산인 일자리 지원정책, 노인세대에 대한 예산을 어린세대에게 투자하는 정책, 능력있는 노인의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 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독거노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활성화, 환경 개선 노력, 난개발 자제 및 녹지 및 환경 보존, 해양 환경오염 해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4> 라이프 스타일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20대						
라이프 스타일	A (여, 대학생)	B (남, 아르바이트생)	C (남, 공무원준비생)	D (여, 일러스트레이터)	E (여, 대학생)	F (여, 대학생)
거주유형	아파트	원룸 빌라	주택	-	전원주택	주상복합주택
거주시 어려운 점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좁은 방	집주인과의 마찰	주차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없음	산책 공간 부족
거주지 고려사항	회사, 학교와의 거리, 치안 등	주거 유지를 위한 추가 지출 발생 여부, 역세권	비용	독립 원함	학교와의 거리, 집값 등	교통, 문화생활, 직장과의 거리 등
소비제품 선택 이유	인터넷 후기, 가격, 해외직구	식품 조리시 편리성	주위평판, 성능	디자인, 가격	가격, 인터넷 후기	필요한 기능, 디자인, 가격
여가활동	게임, 영화, 음악	게임, 영화, 기타치기	없음	친구들과의 모임, 휴식(TV시청)	친구들과의 모임, 맛집, 카페 방문 등	영화·음악감상, 유튜브시청, 동아리 활동(패러글라이딩) 등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함 점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부분	일자리	통신비, 교통비 등의 부담	취업준비과정	생활비 부담, 취업문제

30대						
라이프 스타일	A (여, 전 사회복지사)	B (남, 화실 운영)	C (남, 대학교 조교)	D (여, 학원강사)	E (남, 영화사대표)	F (남, 만화가)
거주유형	빌라	임대 아파트	아파트	-(자취)	-(자취)	오피스텔
거주시 어려운 점	자녀 안전	높은 지대 위치, 교통 불편, 건물노후	층간소음	-	-	집의 규모
거주지 고려사항	교통 접근성	저렴한 집값, 쾌적한 환경, 교통 편리	가격, 도로변에서 떨어진 곳, 아파트 진입로, 주민들의 관리	치안, 안전	가격, 작업실 겸 숙박 가능 선호	작업실, 직장 위치
소비제품 선택 이유	자녀를 위한 소비	소비 안함, 최대한 오래 쓰는 편	저렴한 가격, 희소성	가격 대비 실용성, AS 여부, 디자인 등	홈쇼핑, 인터넷 쇼핑	구애없는 자유로운 소비
여가활동	캘리그라피, 수제청 만들기 등	운동	휴식 및 부산 교외 산책	영화나 뮤지컬, 전시회 관람, 휴식	이성과의 만남	라이딩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육아 휴직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대출금 등)으로 파트타임 일자리 고민	경제적 문제 (청년 작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화신 운영난)	경제적인 소득문제, 그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 부재	현재는 없으나 노후 불안 고민	사업자금 대출의 까다로움	미래에 대한 계획

40대						
라이프 스타일	A (여, 사회복지사)	B (남, 프리랜서 작가)	C (여, 주부)	D (여, 도서관 사서)	E (여, 사회복지사)	F (여, 사회복지사)
거주유형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거주시 어려운 점	접근성	부모님과의 마찰	없음	-	대출금	-
거주지 고려사항	도시 근교 인근, 문화시설, 병원 근처,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곳	원룸, 편리한 교통편, 물가가 저렴하고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	주차공간, 자녀 교육 등 추후 조용한 곳 찾을 예정	자녀 교육 문제 해결 후 향후 도시 외곽 거주 희망	직장과의 거리, 유흥가, 노인복지관 유무 (자녀 및 어머니 생활환경)	교육 및 편의(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소비제품 선택 이유	자녀 위한 소비	저렴한 가격, 희소성	가성비가 좋은 제품, 좋은 회사 이미지	가족 마다 필요한 제품이 다르므로 고민 후 합리적 소비 추구	디자인 및 유행 관계 없이 필요시 구매	편의성, 실용성
여가활동	휴식	자전거 타기, 라이브 공연 참가	라디오 청취, 독서	수영	과거 아이들을 위한 여가활동 (도서관, 공원), 현재 부부를 위한 여가 활동 (운동, 영화)	그림그리기, 운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자녀 교육문제, 사회생활 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입 및 정부지원 부족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자녀 교육비 부담 및 노후 대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자녀 학비 부담, 경제적 문제 등

50대						
라이프 스타일	A (남, 경제교육강사)	B (여, 주부)	C (여, 의료기사)	D (여, 인테리어 사업)	E (여, 주부)	F (남, 자영업)
거주유형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거주시 어려운 점	-	집의 위치(경사, 교통편 등)	3대가 같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한정성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소음	종종 발생하는 도난사고
거주지 고려사항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의 거주지	살림시 편한 큰 규모의 거주지	3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편리한 교통	건강, 노후, 의료혜택, 문화 생활 등	쾌적한 환경,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경제적 여건, 편리한 교통
소비제품 선택 이유	필요 시 소비, 불필요한 지출 자제	경제적 여건 고려한 실용성과 가성비 고려	직접 가서 제품 확인 후 구매	필요 기능 위주의 소비	가격대비 좋은 제품의 직접 구매	도서 구입 위주 및 지출 자제
여가활동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수채화, 관상학), 독서	문화센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노력	야외 활동, 문화생활	등산, 영화관람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 친목 모임	독서, 산책, 드로잉 등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경제적 고민	자녀 학비 지출 및 노후 불안	부모 부양 및 경제적 부담	경제적인 문제	자영업 남편의 수입 불안정	국민 연금 유예상태로 인한 노후 불안 및 자녀 결혼 자금 걱정 등

60대						
라이프 스타일	A (남, 퇴직자)	B (여, 주부)	C (여, 주부)	D (여, 주부)	E (남, 전 해경근무)	F (남, 자영업)
거주유형	아파트	아파트	빌라	주택	빌라	아파트
거주시 어려운 점	주차난, 수질문제	교통	층간 소음, 주차난, 어두운 가로등	건강이 좋지 않아 홀로 있을시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점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가격으로 인해 빌라 거주 아쉬움	-
거주지 고려사항	공기 좋고 한적한 교외지역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	차후 주택 거주 희망	-	투자가치	교통접근성, 노후는 귀향 고려
소비제품 선택 이유	외적인 지출 보다는 건강을 위한 소비	식료품,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	실용성, 가격	심미적, 실용적이며 나를 위한 맞춤형 소비 추구	가격, 성능, 디자인 고려, 마트 및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	경제성, 실용성
여가활동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등산	운동, 복지관에서의 댄스 수업, 그림 그리기 등	탁구, 산책,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과 분야의 학습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동호회활동을 통한 운동	스크린 골프, 등산 등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퇴직 후 아내만 경제활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억력 감퇴	건강 문제 및 자녀들에게 부양 부담 걱정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70대						
라이프 스타일	A (남, 퇴직자)	B (남, 퇴직자)	C (남, 공무원 퇴직)	D (남, 무직)	E (여, 경로회장)	F (남, 무직)
거주유형	빌라	주택	아파트	아파트	주택	아파트
거주시 어려운 점	없음	대체로 만족	이웃간의 단절, 이기주의	만족	겨울 난방	없음
거주지 고려사항	자연환경과 경제적 부담 없는 소규모의 거주지	-	-	노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희망	특별히 없으나 가족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	-
소비제품 선택 이유	소비 자제	소비욕구가 없음	카드사용으로 인한 필요없는 물건 구매 증가	-	경로당에서 소비할 식품 위주로 소비	절약이 습관되어 있으나 실용성, 디자인, 유행 고려
여가활동	복지관에서의 활동	합창단 활동, 운동, 사회봉사 활동 등	사진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백화점, 마트, 광장, 공원에서의 휴식을 겸한 운동	경로당 70대 이상 어른들은 고스톱 등, 본인은 독서, 글쓰기 등	독서, 글쓰기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많은 노인 수용이 어려운 복지관에 대한 불편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주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함	자식세대와의 의사소통	노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확장 희망	노령연금으로 나오는 20만 원으로는 문화적인 여유를 즐길 수 없는 어려움	자식 걱정, 건강 문제

<표 Ⅳ-5> 가치관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20대						
가치관	A (여, 대학생)	B (남, 아르바이트생)	C (남, 공무원준비생)	D (여, 일러스트레이터)	E (여, 대학생)	F (여, 대학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 있음, 네트워크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느낀적 없음, 접촉하는 세대가 30대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소통의 부재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사고방식과 소통의 부재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가치관가 사고방식, 교육과정, 정보접근성 등의 차이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경쟁하는 세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세대	재희생을 강요받는 세대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세대	치열한 세대	혼돈의 카오스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기술(기계)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도태	기계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	경제 불안, 젊은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의 고용 환경	원전 문제	젊은층의 인구유출

30대						
가치관	A (여, 전 사회복지사)	B (남, 화실 운영)	C (남, 대학교 조교)	D (여, 학원강사)	E (남, 영화사대표)	F (남, 만화가)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 있음, 살아온 가치관, 방식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정치적 견해, 살아온 삶, 시대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살아온 경험,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겪어온 삶, 교육, 역사에 대한 학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갈등이라기 보다 성향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생각	세대갈등 있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불안한 세대	독립 세대	IMF 세대	생존에 급급한 세대	선택받은 세대	사회적 알람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자연 재해, 사건·사고 등	불안한 고용 환경	낮아지는 출산율, 젊은이들의 유출, 고령화 사회, 무분별한 도시계획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 노령인구의 증가	고층건물 위주의 개발로 인한 해안선 문화의 붕괴	직군의 다양성 부족

40대						
가치관	A (여, 사회복지사)	B (남, 프리랜서 작가)	C (여, 주부)	D (여, 도서관 사서)	E (여, 사회복지사)	F (여, 사회복지사)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 있음, 경험의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느끼지 못함, 소통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소통의 부재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차이와 공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대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미묘한 세대갈등은 있다고 생각함,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자라온 방식,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	끊임없이 적응하고 모색하는 세대	끼인 세대	-	역동적인 세대, 끼인 세대	행복한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환경오염 등	불투명성	고용불안	고령화, 젊은층의 인구 유출, 낮은 결혼율, 저출산 등	원전 문제	환경 오염 문제

50대						
가치관	A (남, 경제교육강사)	B (여, 주부)	C (여, 의료기사)	D (여, 인테리어 사업)	E (여, 주부)	F (남, 자영업)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 있음,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의 교육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대갈등은 있음, 자라온 환경, 가치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실속없는 세대	소외 세대	끼인 세대	끼인세대	보수적인 세대	끼인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퇴직한 5, 60대를 위한 정책 부재	부산의 정체성 부재	고령화 사회, 무분별한 재개발	-	저출산, 고령화	자연재해, 원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일자리 및 고용 한계

60대						
가치관	A (남, 퇴직자)	B (여, 주부)	C (여, 주부)	D (여, 주부)	E (남, 전 해경근무)	F (남, 자영업)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세대갈등 있음,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사고방식의 차이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소통 부족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	세대갈등 있음, 자라온 환경, 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이라기 보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마지막 세대	검소한 세대	희생의 세대	끼인세대	샌드위치 세대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특별히 없으나 개인적인 건강에 대해 불안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고령화 (홀로 사는 노인), 젊은층의 부족, 저임금의 고용환경	환경문제 (미세먼지), 교통체증, 해상오염	원전문제, 경기불황 및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70대						
가치관	A (남, 퇴직자)	B (남, 퇴직자)	C (남, 공무원 퇴직)	D (남, 무직)	E (여, 경로회장)	F (남, 무직)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유	-	-	세대갈등 있음, 본인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정치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세대갈등 있음, 세대갈등에 대한 개념과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있음, 세상의 빠른 변화에 이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세대에 대한 정의	-	-	모든 시대를 경험한 세대	-	배고픈 세대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세대
부산지역 미래 불안요인	도시 내 녹지 부족 및 환경문제	정치 문제	당장의 개발 중심의 정책, 미세먼지	-	젊은 세대들의 책임감 및 참을성 부재, 해양 환경 오염	안전 대책

<표 Ⅳ-6> 부산시에 바라는 정책과 노력 : FGI 조사 세대별 응답 요약

20대					
A (여, 대학생)	B (남, 아르바이트생)	C (남, 공무원준비생)	D (여, 일러스트레이터)	E (여, 대학생)	F (여, 대학생)
인재가 타도시로 전출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과 노력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보호 장치(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등),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화적 지원정책과 노력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 세대별로 균등한 정책 입안	청년 창업, 1인 창업을 위한 상주 공간 및 지원 정책	학비 지원정책,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등	물가 안정 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계약직 폐지, 무기계약직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
30대					
A (여, 전 사회복지사)	B (남, 화실 운영)	C (남, 대학교 조교)	D (여, 학원강사)	E (남, 영화사대표)	F (남, 만화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정책	창업지원 정책의 확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 요청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복지, 출산 지원금 상향, 지방 공무원 창출 정책	육아, 양육지원 정책 확대, 경력단절을 해소를 위한 직장과 일의 병행 지원 확대 노력	사람을 위한 정책,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수혜의 공정성 확립 (성과를 위한 지원 지양)

40대					
A (여, 사회복지사)	B (남, 프리랜서 작가)	C (여, 주부)	D (여, 도서관 사서)	E (여, 사회복지사)	F (여, 사회복지사)
도시 재생, 교통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타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부산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원정책	노후에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	빈집을 활용한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주거 정책,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다복동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부익부 빈인빈 해소 위한 세밀한 지원 노력	물가 안정 정책,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지원 정책 (무기한 계약직 등)
50대					
A (남, 경제교육강사)	B (여, 주부)	C (여, 의료기사)	D (여, 인테리어 사업)	E (여, 주부)	F (남, 자영업)
퇴직후 노후설계,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복지예산 확충	부패특권 척결, 노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발상의 전환 노력

60대					
A (남, 퇴직자)	B (여, 주부)	C (여, 주부)	D (여, 주부)	E (남, 전 해경근무)	F (남, 자영업)
교통, 수질, 식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노력	-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주택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 지원정책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	시장 공약 달성, 환경 문제, 교통 체증 문제, 일자리 정책 문제 해결 등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녹지 정책 등
70대					
A (남, 퇴직자)	B (남, 퇴직자)	C (남, 공무원 퇴직)	D (남, 무직)	E (여, 경로회장)	F (남, 무직)
노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지원정책, 노인세대에 대한 예산을 어린세대에게 투자하는 정책	능력있는 노인의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 정책	젊은이들 일자리 지원 정책	독거노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활성화, 노년층의 빈부격차, 환경 개선 노력, 난개발 자제 및 녹지 및 환경 보존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Ⅴ.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2. 부산지역

Ⅴ.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새정부의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 최우선 반영을 위한 2018년 예산안의 틀의 투자 중점 방향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한국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민간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안전분야 공공서비스인력 확충, 일자리 질 개선), 둘째, 소득주도 성장 지원(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증대, 세일앤리스백 등 서민 주거비 경감,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 지역간 격차 해소), 셋째, 혁신성장 동력확충(4차 산업혁명 등 혁신 생태계 지원, 경제 전반으로 혁신 확산, 규제혁신과 병행, 혁신자본 공급), 넷째, 국민이 안전한 나라(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극복, 먹거리 안전 강화, 재해·재난 예방, 자주국방 역량 확보, 통일 지원 확대),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 교육 희망사다리 마련, 고등교육의 질 제고)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 관련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 2000억원의 예산 배정(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9%로 가장 높은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가 증가한다.

<표 Ⅴ-1> 기능별 재원배분(안) : 중앙정부

(단위 : 조원)

구분	‘17	‘18	증감(B-A)	%
총지출	400.5	429.0	28.4	7.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6.7	12.9

※ 일자리	17.1	19.2	2.1	12.4
교육	57.4	64.1	6.7	11.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6	6.6	15.4
문화·체육·관광	6.9	6.3	△0.6	△8.2
환경	6.9	6.8	△0.1	△2.0
R&D	19.5	19.6	0.1	0.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0.1	△0.7
SOC	22.1	17.7	△4.4	△20.0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2	0.1
국방	40.3	43.1	2.8	6.9
외교·통일	4.6	4.8	0.2	5.2
공공질서·안전	18.1	18.9	0.8	4.2
일반·지방행정	63.3	69.6	6.3	10.0
※ 지방교부세	40.7	46.0	5.2	12.9

자료 : 2018년 예산안(기획재정부)

주거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Sales & leaseback)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0.1조원)하는 영구·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 구입 우대대출 등을 지원하고,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등을 확대한다.

문화·여가 관련,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을 도모한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계층별 체육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학교 등과 연계한 개방형 체육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일자리) 관련,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추가채용(0.3만명 → 2.0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9.5만명 → 21.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 5.5만명(추경) → 1,600만원, 6만명), 일학습 병행제(9,500개 → 12,500개), 대학일자리센터(소형 10개 → 소형 40개), 공무원 17.4만명 확대(+3.0만명[8])를, 신중년에게는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20천명 → 25천명), 사회공헌일자리 확대(4.5천명 → 7.0천명),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18만원, 분기당 → 24만원, 분기당)을, 여성에게는 새일센터 확충(155개소 → 160개소)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다(기획재정부, 2017.8).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주력한다.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분만취약지 지원 및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 어린이집 및 돌봄지원사업 투자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 육아휴직 확대(첫 3개월 2배(추경) 10.1만명 → 첫 3개월 2배 10.6만명), 아빠의 달 확대(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 → 모든 아이 월 200만원), 10 to 4 더불어돌봄 확대(통상임금 60% 한도, 4천명 → 통상임금 80% 한도, 5천명)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다(기획재정부, 2017.8).

건강 관련, 전국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 지원(188(추경) → 2,135억), 치매 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 등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

8) 국비 +1.5만명

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178→357억),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0.4조원)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뒷받침한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 관련, 국방예산 증가(4.0%→6.9%), 노후경유·화물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6만대, 324대→12만대, 6,395대), 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1개소→4개소), CCTV등 방역인프라(→, 2,570개소), 공동방제단 확대운영(450개소→540개소)과 함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생활안전지도,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재난 관리,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 관련 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통해 기초 수급자, 노인·장애인 등의 자활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하고,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며한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을 통해 소득기반 확충하고,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

주거,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 복지 관련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2>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 중앙정부

주거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청년, 신혼부부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22년까지 20만호 (전체의 30%)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 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문화·여가	정책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 전 세대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대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 (문화재원 확대)연차별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 전 세대 - (생활체육 환경 조성)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 20세 이상 -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 (1,800시간대 노동시간)'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 (휴식 있는 삶 보장)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육아·돌봄 지원 확대)'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관광복지 확대 (문체부)	- 전 세대 - (관광여가 사회실현)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일자리)		정책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전 세대 - (일자리위원회 설치)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행정안전부)	- 전 세대 - 사회적 서비스 확충 등 공공부문 일자리 1만 명 이상 증원 - 민생 치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해경·소방 3,600여 명 - 유아교육 및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특수교사 630여 명 -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 사회복지 인력 등 현장인력 2,300여 명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 관리 인력(C.I.Q.), 서해5도 특별경비단, 고용복지+센터 등 2천 명 이상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전 세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은퇴자 등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 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 65세 이상, 영세자영업자, 신중년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 정보 생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 전 세대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혁신창업 활성화)'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 - (재도전 인프라 확충)'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 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결혼·임신·출산·양육		정책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청년층,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1개소) 및 기존 외래산부인과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지원(1개소) - 고위험산모 산전관리, 신생아와 통합치료를 위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13→17개소)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부)	- 전 세대 -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 지원연령 12 → 13세 이하 상향 - 어린이집 및 돌봄지원사업 투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 - 공동육아나눔터(66 → 113개소), 시간제 보육시설(380 → 443개소), 방과후 아카데미(250 → 260개소)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 (고교 무상교육)'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상 : ('17년 이전) 소득 3분위 → ('18년) 4분위 -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예비대학생 ~ 대학원생 대상), (드림장학금) 저소득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 *신규 선발: ('17) 20명 → ('18안) 50명, 지원단가: ('17) 5만 → ('18안) 6만불, (파란 사다리)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신규, 800명), (대학원 국비유학)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10 → 20명)

건강		정책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노년층 - (노후소득 보장 강화)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노인 일자리)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 (국민연금 거버넌스)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 전 세대 - (건강보험 보장 강화)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가계부담 대폭경감)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예방적 건강관리)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전 세대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 유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안전		정책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생활안전지도,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 전 세대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운영 -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 국민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문화 향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정을 계기로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
	재난 관리 (행정안전부)	- 전 세대 - 지진방재 종합대책, 내진설계대상 확대 및 보강 실시와 전국토 활성단층조사 및 지도 작성 - 사회재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정·지원 - 범정부적 재난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매뉴얼과 훈련의 일체화로 재난대응역량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비상대비태세 강화 (행정안전부)	- 20~40대 - 비군사 분야 전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총괄 - 국가 비상사태 등 국가적 재난 시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지원 위한 민방위대(대한민국 남성, 20~40세) 편성·관리

복지		정책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취약계층 - (공공부조 혁신)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 (장애인 지원 강화)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확충	- 노인·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 (노인·장애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 및 소득 기반 확충 - 노인일자리: 43.7→51.4만개, 월 22→27만원(공익형 기준) - 장애인일자리: 1.6→1.7만개, 월 135→157만원(일반형 기준) -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주거급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 * ('17.11) 수급자·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 기준 적용 제외 ('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일자리 수) 4.5→4.65만개, (단가) 월 93.6→101.9만원(시장진입형 기준)

		- (국가유공자)참전수당·무공수당을 대폭 인상*(월 +8만원),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 신규 지원 *참전수당: 월 22 → 30만원, 무공수당: 월 28~30 → 36~38만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 70% 이하 335천원, 50% 이하 468천원 지원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토부·과기정통부)	- 전 세대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 (광역알뜰교통카드)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저렴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광역교통청 신설)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광역버스 확충)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검색일 : 2017.10.07.) ; 2017년 업무 추진계획(행정자치부) ; 2018년 예산안(기획재정부)

2. 부산지역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36.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생활보장 13.29%, 노인·청소년 10.64%, 보육·가족 및 여성 6.48%, 취약계층지원 5.57% 순으로 구성비를 나타낸다. 전년도 대비 노동 부문은 2.27%의 예산 증가를 보인다.

<표 Ⅴ-3> 기능별 재원배분(안) : 부산지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391,145,248	100.00	9,356,336,654	100.00	34,808,594	0.37
일반공공행정	1,129,951,277	12.03	1,097,706,492	11.73	32,244,785	2.94
공공질서및안전	478,547,263	5.10	475,071,219	5.08	3,476,044	0.73
교육	644,299,085	6.86	623,184,308	6.66	21,114,777	3.39
문화및관광	396,272,616	4.22	331,343,578	3.54	64,929,038	19.60
환경보호	113,251,189	1.21	86,389,570	0.92	26,861,619	31.09
사회복지	3,434,645,982	36.57	3,350,296,161	35.81	84,349,821	2.52
기초생활보장	1,248,250,463	13.29	1,229,905,747	13.15	18,344,716	1.49
취약계층지원	523,146,199	5.57	507,858,445	5.43	15,287,754	3.01
보육·가족 및 여성	608,582,209	6.48	589,277,642	6.30	19,304,567	3.28
노인·청소년	999,390,309	10.64	965,574,239	10.32	33,816,070	3.50
노동	42,981,327	0.46	43,980,213	0.47	△998,886	△2.27
보훈	12,295,475	0.13	13,699,875	0.15	△1,404,400	△10.25
보건	133,535,959	1.42	125,942,971	1.35	7,592,988	6.03
농림해양수산	147,567,778	1.57	138,960,423	1.49	8,607,355	6.19
산업·중소기업	343,504,344	3.66	335,077,105	3.58	8,427,239	2.52
수송및교통	1,509,242,644	16.07	1,773,917,274	18.96	△264,674,630	△14.92
국토및지역개발	450,467,948	4.80	421,123,050	4.50	29,344,898	6.97
예비비	59,491,438	0.63	70,328,247	0.75	△10,836,809	△15.41
기타	550,367,725	5.86	526,996,256	5.63	23,371,469	4.43

자료 :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부산광역시)

주거 관련, 서민·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기존주택을 매입, 전세임대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하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92,000가구를 지원

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청년층에게는 상업지역에 규제 완화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한 아파트 우선 공급하거나,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대학생 등 단지별 청년수요계층에게 선별 공급한다. 또한 문화·취미·관심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청년 1인 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공급과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저소득층 소유주택 및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노령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을 추진한다.

문화·여가 관련, 문화 나눔의 실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소외대상인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과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한글, 외국어, 서예, 건강, 노래, 컴퓨터 교실 등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일자리) 관련, 청년일자리 정책 리더십 강화를 위해 「부산청년일자리위원회」와 부산권 대학연합「청년 취·창업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확대와 지자체-산업계-고용센터 협력,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운영한다. 또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 직접비용 지원 등 사업인 청년 디딤돌 카드, 부산일자리정보망(http://busanjob.net) 운영 및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확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을 위한 50+세대 일자리 창출 및 생애 재설계 지원, 전통시장 내 장노년 일자리 발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결혼 장려를 위한 선남선녀 페스티벌 및 직장단위 만남 프로그램 운영, 검소한 결혼식 문화 사회확산 유도를 위한 100여쌍 대상 작은 결혼식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성혼커플 10쌍(1쌍당 100만원) 결혼장려금 지급 등을 지원하며, 난임시술비 세제공제율 인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캠페인 확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 관련,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 및 보강,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와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지표 관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하며, 18-34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7종 무료건강검진, 정신건강 무료상담과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강화, 노인자살안전망 구축을 위한 1차 의료인 교육을 통한 자살 위기자 발굴·연계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 관련, 안전문화, 재난안전, 원전안전, 생활안전을 4대 키워드로 선진형 지역안전 생태계 조성, 선제적 재난대응과 복원력 강한 도시기반 구축,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 시민생활안전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주요과제로 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지원제도로는 재난취약계층 재난심리지원 제도 운영, 범죄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이 있으며, 원전방사능방재대책과 부산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부산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 관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책으로 다복동(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29억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적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과 금융취약계층 자

립지원을 위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을 확대하며, 청년의 신용회복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희망날개통장을 통해 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조성을 위한 미래 준비를 지원하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 복지 관련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4> 부문별 주요 정책 현황 : 부산시

주거	정책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 젊은층 우선 공급(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잔량 일반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 저층은 부산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공급 - 세대별 전용 60㎡ 이하 주택을 젊은층 우선 공급 - 8년간 의무임대 조건, 주변시세 80% 정도 공급(임대료 상승 연 5% 이내)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 '15 ~ '22(8년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대학생 등 단지별 청년수요계층 선별 공급 - 부산형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3,021호, 1조 5,000억원(국비 30%,기금 40%, 시행자 20%, 입주자 10%)
햇살둥지사업	- 입주 대상 1순위 지방 대학생(지방 고교생 포함), 2순위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저소득 서민, 3순위 외국인 근로자 순 - 빈집 소유자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306호 공급)
쉐어하우스 공급	- 문화·취미·관심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공급 - '15 ~ '18(4년간 130가구 공급), 14억원(시비)
머물자리론	- 부산 거주 중 또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한 만19세~34세 청년 - 임차보증금 최대 80% 대출 및 이자 3% 지원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부 전·월세, 486명

	공공실버주택 건립	- 노령층 - 공공실버주택 200호 건립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 취약계층 노인 - 공공양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4개소(입소자 288명, 종사자 56명), 황전양로원(동래), 정화양로원(북구), 동래양로원(금정), 평화양로원(사하) -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26억원(운영비 23.8억원, 종사자수당 0.7억원, 야간경비 인건비 1.5억원)
	부산형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 산단 근로자 - 공급촉진지구 6,000호 지정, '16 ~ '22(7년간 20,000호), 1조4,000억원, 민 - 정비사업 연계한 뉴스테이 8,684호 공급
	서민 HOPE 사업 활성화	- 저소득층 - 소유주택 및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6개동(1.8억원/동), 전액 기부방식(설계비 재능, 시공비 재원) *'13년부터 19개소 준공('16년 4, '15년 5, '14년 7, '13년 3개소)
	매입·전세 임대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05 ~ (계속) 기존주택을 매입, 전세임대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 저소득층 주거급여 92,000가구 지원 - 주거취약계층 15,908호 시설개선, 31,812호 전기설비, 84,907세대 난방비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저소득층 - '09 ~ (계속) 노후공공임대주택(영구 50년 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경과단지) 시설개선, 3개 단지 10,958호, 주민공용시설, 세대내부 개·보수 지원 *영구 : 11단지 10,725호, 50년 : 2단지 233호

문화·여가	비고
온·오프라인 캠페인, 자원봉사단 운영 및 교육, 티켓기부 유치	- 전 연령층 -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4기 운영 및 교육 - 티켓기부 유치 및 매개를 통한 시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지원(개인별 6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 시설수혜자, 문화예술활동단체 -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무용, 문학, 연극 지원 - 총 40개(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설수혜자 대상, 문화활동 무료 지원 및 총 41개(극단 자갈치 등) 단체에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지원규모 : 1개 단체 당 3,000~4,000천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 거동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대상 - 예술가가 방문하여 일대일 문화예술 활동(국악, 대중음악, 미술, 공예, 문학, 무용 등)을 통한 정서적 치유프로그램 제공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시설 확충	- 노인세대, 신노년층 - 여가·건강·일자리 등 복지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 제공 및 신노년층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107억원) - 노인복지관 신축(사하 장림다대), 개보수(동구 자성대), 장비보강(동구 분관) 등 시설 확충(12.8억원)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 노년층 - 경로당 2,329개소 운영 지원(448억원),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보급, 하절기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확대(2016년 15만원 → 2017년 25만원) - 경로당 건립 및 시설 개선(46개소 21억원), 신축 7개소, 이전설치 2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35개소 등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 노년층 - 부산대학교 등 4개 노인대학 위탁운영(1.2억원), 부산대, 경성대, 신라대, 고신대 평생교육원 운영 - 노인교실 172개소 운영(5.2억원), 한글, 외국어, 서예, 건강, 노래, 컴퓨터 교실 등 학습프로그램 제공
고용(일자리)		비고
	청년일자리 정책 리더십 강화	- 청년층 - 「부산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위원수 28명, 3개 분과(청년지원기획, 고교·대학지원, 기업지원), 회의 개최(연4회), 청년일자리정책, 신규사업 발굴 및 심의·자문 등 민·관·학 포괄적 협력 - 부산권 대학연합「청년 취·창업 지원 협의회」 운영, 지역 25개 대학 취업처장, 연4회 실무협의회 개최, 대학연계 취업프로그램 발굴, 대학간 취업 네트워크 <청년 취·창업 지원협의회>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삼각축 구축	- 청년층 - (가칭)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조성(1.5억원) → 롯데쇼핑(주) CSR 사업,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별관 918㎡(278평, 지상2층), 청년일자리 지원, 취업역량 강화, 홍보.소통 등 청년 복합공간으로 조성, TF팀구성·운영('16. 9월~), 명칭공모(3월), 실시설계 및 내부인테리어(2~6월), 개소(7월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확대(24.4억원), 5개 거점대학 중심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년 2개 선정(동의대, 부산외대) → '16년 3개 선정(경성대, 신라대, 고신대), '17년 전국 41개 → 60개로 확대예정, 부산 2개 추가 선정 추진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지자체-산업계-고용센터 협력,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롯데계열사 채용지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취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 디딤돌 카드	- 부산거주 18~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위한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 직접비용 연 240만원 지급(체크카드 형태)
	청년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	- 부산거주 18~34세 미취업청년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10억원),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만15~34세) 250명, 부산강소기업 해외지사, 현지기업, 글로벌 다국적기업 등 해외취업, 1인당 항공료·체재비 등 3~5백만원 지원 - 부산 K-Move센터 신설(5.3억원, 국비), 청년해외취업 지역거점센터 유치('16.12.2), 부산고용센터內, 363㎡(110평) 기준, 센터 개소('17. 3월), 해외취업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해외취업 정보제공 등, K-Move스쿨, 취업아카데미, 취업설명회, 상시채용관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추진	- 청년층 - 부산일자리정보망 운영(http://busanjob.net), 공공·민간사이트 구인·구직정보 통합 운영, 지역우수·강소기업 심층DB구축, 지역기업 인식개선 탐방확대(300개사 추가), SNS 등 홍보소통 채널 강화 등 - 서부산권 산업단지 청년고용촉진(3억원), 산업단지 우수기업 홍보 등 청년구직자 인식전환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 성공취업 아카데미, 부산기업 매력발견 현장투어 등 3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청년 취업역량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강화	- 대학생 및 고졸이상 미취업자(만29세 이하) -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3억원) → 부산소재 대학중 10개 대학 공모 선정, 취업 미스매치 해소, 대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대학 재학생 및 고졸이상 미취업자(만29세 이하) 400명, 사업비 14억원, 방학기간 근로장학생 배치('17년1,7월), 취업연수생 배치('17년2,9월) -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굿 알바' 시행(0.5억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홍보 캠페인 등, 굿알바 지원센터 설치(3월), 사업추진 및 상담지원(4월~) *일자리정보망 연계 추진

	채용약정 맞춤형 취업지원	- 대학졸업예정자,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만15~34세), 청년층 등 - 청·장년 실업자(만18~53세) -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5억원), 대학졸업예정자 250명, 대학+기업+훈련기관 채용협약을 통한 맞춤훈련, 사업공고 및 학과선정('17. 3월), 훈련실시('17. 3~12월), 취업알선('17. 6~12월) - 청년취업 인턴사업(24억),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만15~34세) 680명, (수행기관) 부산상의, 부산경총, 근로자 자산형성방식의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2+1년)」으로 추진 *2년적립 : 1,200만원+α(이자) (근로자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 *2+1년 적립(부산형) : 2,000만원+α(이자) *근로자 선택제로 운영 (2년 적립금 1,200만원+근로자 200만원(+1년) +부산시 600만원(+1년))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43억), 청·장년 실업자(만18~53세) 1,700명, IT등 20여개 직종 직업훈련, 공고 및 훈련기관 선정('17. 1~2월), 훈련실시 및 취업알선('17. 3~12월)
	국비연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고용부 공모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100억), '부산 일자리르네상스 프로젝트'(지역혁신프로젝트) 지속 추진, 「도시재생일자리프로젝트」(경진대회최우수작) 본격추진('17~'19년, 12억원), 「착한기업 육성」, 「서부산권 산단 미스매치 해소」 등 지속 추진, (2014년, 2015년 고용부 공모 대상사업, 각 3년간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117억), 지역산업계 필요인력의 수요조사, 공동훈련, 채용을 통한 인력양성, 6개 훈련기관, 5,331명 훈련실시, 사업승인('17. 1월),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17. 2~12월), 평가('18. 1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93억),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 강점을 접목한 교육모델, 4개 사업단 15개교 학생 420명 참여, 사업 추진('16~'20년)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확대	- 전 연령층 여성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 연 200명(3단계 추진, '16~'20년), '07～'20년 3,000명 육성 목표, 3개 과정(차세대, 전문활동가, 최고관리자)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 5→6개소('17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11개소('17~'18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 전 연령층 여성 -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200명), 대체인력 수요발굴, 현장적응 훈련, 일자리 매칭 지원 등 -「1센터 1특화」 잡(JOB) 프로그램 운영, 새일센터별 특화분야 지정, 체계적인 관리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여성유망직업교육훈련 박람회 개최,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취업처·취업전략 등 안내, 현장등록·상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 전 연령층 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전문 취업 상담, 집단 상담, 적성 검사·진로 설계, 직업교육 훈련, 직업 의식 고취 교육,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취업지원 연계 : 새일여성 인턴제도 운영, 동행 면접 및 취업 연계, 취업후 사후 관리, 일가정 양립 복지 지원, 직장 적응 지원 갈등 상담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놀이방,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여성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등과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

	50+세대 일자리 창출 및 생애 재설계 지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연간 350개, 8억원), 사회공헌형 200명, 시장형 100명, 인턴취업 지원 50명, 베이비부머 택배단 - 은퇴자 제3섹터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 은퇴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10개소 설립 지원 -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2개소, 1억원), 연간 수료인원 200명, 1기당 교육생 50명 선발(50~64세)
	전통시장 내 장노년 일자리 발굴	- 만 50세 이상 - 자유시장, 평화시장, 골드테마거리 권역 '16년 시범실시, 관광안내도우미(36명) 외국인 대상 통역 및 전통시장 안내, 물류사업단(20명) 전통시장 내 각종 물류 배송 및 집화작업 - 부산시내 대형 전통시장 대상으로 확대 실시(250개 일자리 창출),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구포시장 등으로 확대, 향후 자체운영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만 50세 이상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29,000개, 580억원), 공익활동 22,500개, 시장형 5,300개, 인력파견형 1,200개 일자리사업, 전년대비(25,953개, 49,918백만원) 3,000개 사업량 확대 -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250명 이상, 5억원), 공동작업장, 시니어딜리버리, 출장세차, 곤충사업 등 특화일자리 창출 - 시니어클럽 운영 : 36억원, 구군비 별도 편성 15%(기장군 50%), 노인일자리 창출 6,000명 목표, 공동작업·제조판매형 등 일자리 개발운영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6.6억원), 연간 장노년 일자리 1,000개 창출, 취·창업 교육 1,200명
결혼·임신·출산·양육		비고
	결혼 장려	- 미혼남녀 - 선남선녀 페스티벌 및 직장단위 만남 프로그램 운영 -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사회확산 유도를 위한 100여쌍 대상 - 결혼장려금 지급, 미혼남녀 만남행사 성혼커플 10쌍(1쌍당 100만원)

	난임시술비 세제공제율 인상	- 난임부부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700만원 공제한도,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캠페인 확대	- 핑크라이트 캠페인(임산부 배려석), 부산김해경전철, 도시철도 3호선, 320개 설치(1객차당 4개 좌석 × 80량), 핑크라이트 캠페인 확대를 통한 임산부 배려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출산장려 효과 도모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280 → 300면) 및 우대 창구 운영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 출산가정, 다자녀가정 등 - 출산장려 홍보 강화, 동영상 제작·상영, TV 및 라디오 CF, 대중교통시설 활용 등 -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사회 각계각층 참여,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시민참여 운동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 결혼·출산장려 창작 가족뮤지컬 공연, 공연장·학교 등 순회, 연32회 -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4세 이하 유아가족 등 시민 2,500여명 - 일·가정 양립 확산 유도, 공모사업, 워크숍,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 출산장려금 지원·지급, 43억원(둘째자녀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출산용품 지원, 11억원(둘째이후 자녀 11,000여명, 10만원 상당 물품) -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10~'19년), '17년말 833억원 목표 - 출산용품 지원, 둘째이후 자녀 11,000여명, 10만원 상당 물품, 11억원 -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다자녀 우대, 도시철도·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다자녀가정의 날(11.1),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친화기업 등 시상·격려, 가족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 참여업체 확대 및 카드기능 개선(참여업체 확대, 4,560 → 4,600개, 신규 업체 발굴,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카드기능 개선(기존 신분확인용 → 모바일 및 교통카드 기능 도입)

	모자건강힐링센터 설치·운영	- 임산부, 영유아 -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자힐링서비스 제공, 수영구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위치(위탁운영), '17. 2~5월 건물 리모델링, '17. 4월 민간산후조리원 MOU체결(인구보건복지협회 분만 산모 20%정도 이용료 감면), '17. 6월~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
	임산부, 영유아 및 저소득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 임산부,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9월중), 임산부의 날 행사(10월중),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지원 등(29,969명) -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4,900가구), 0~5세 영유아, 법정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등
	보육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0~5세) 연 74,500명(월 290~825천원), 법정저소득층(610명) 및 다자녀가정(910명) 차액보육료 월 48～63천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연 65,000명(월 100~200천원) -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직장어린이집 확충 4개소(43 → 47개소,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13개소(289 → 30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2개소(6 → 8개소)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 200점, 3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추가 300점 부여 *3자녀 이상이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3자녀이상 가구(200점)+맞벌이 가구(200점)+3자녀이상이고 맞벌이인 가구(300점)=총 700점

	아이돌봄서비스 납부방식 및 영아종일제 아동연령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3개월에서 만2세(36개월)까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납부(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결제) *1개의 카드로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부지원에 통합 사용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만2세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아동 연령, 만3개월에서 만2세(36개월)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6~59개월의 어린이 - '17년 무료접종 대상백신(16종)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백신(16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어린이 인플루엔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중학교 1~3학년 - 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교육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연령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13세미만),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지원(월 12만원, 13세미만), 청소년한부모 월 17만원

건강	비고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 18~34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층 - 청년 17종 무료건강검진, 정신건강 무료상담(혈액검사 14종, 요검사 2종, 결핵[흉부방사선 촬영]), 접수기간 8월경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지원	- 의료취약계층 등 - 3 for1 통합서비스 확대('16년 10개 구 → '17년 16개 구·군) -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5대 암검진(720천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4,300명), 재가암환자(5,000명) - 지역암센터 운영(암예방의 날 행사, 암 예방관리 교육·홍보, 연구(역학)조사 등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례관리 500명,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홍보 등)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록관리사업 활성화(270천명)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70,000가구), 인력 전문교육, 만성질환관리, 안전 등 교육·상담, 난청노인 보청기 등 지원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2,339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입원자 및 신규입원자 관리 강화를 통한 적정입원 유도, 의료급여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자 심화 교육, 구·군 현장점검 및 평가 -「좋은이웃 만들기 사업」확대 추진(특별관리 88명 → 150명), 전문 의료상담과 노인요양시설 견학, 퇴원유도 및 시설입소 추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20억원), 신체수발, 신변활동·가사·일상생활(외출동행 등)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강화	- 독거노인 및 장애인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운영(3,800세대, 8.4억원), 노인돌봄·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통한 24시간 밀착 독거노인 보호
	노인 자살안전망 구축	- 노년층 - 1차 의료인 교육을 통한 자살 위기자 발굴·연계, 자살예방.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 이미지화 홍보, '자살살자' 희망토크쇼 및 생명존중 캠페인 확대(170회)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와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지표 관리	- 전 연령층 - 민·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 포럼 및 시민참여 아카데미 운영 - 시민참여로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건강UP! 행복UP! 토크 콘서트」추진(6월, 300명) - 시 홈페이지 '건강도시 부산 블로그' 운영, 건강 릴레이 캠페인 전개, 페이스북 등을 통한 시민 홍보강화, 언론보도(지역신문 9회, 부산실버지 2회)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건강수준 향상	- 전 연령층 - 시민 참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확대, 사각지대 없는 금연클리닉 운영 - 힐링부산 1530건강걷기(90일간/1,000명), 건강계단 조성(4개소)
	지역 밀착형 「마을건강센터」확대	- 전 연령층 - '16년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19개소, 마을건강센터 22개소 → '17년 35개소

	체육인프라 확충 및 보강	- 전 연령층 - 체육시설확충, 국민체육센터(부산진구 '17.4 ., 수영구 '18.6., 동구 '17.6.준공, 사하구 '17.10.), 남구 실내빙상장(착공 '17.4., 준공 '18.4., 연면적 3,600㎡, 112.9억원), 산탁구체육관(착공 '17.10., 완공 '18.6., 연면적 1,288㎡, 40.6억원), 영도승마장 이전(적정부지 발굴 '17. 6., 기본계획 수립 '17.12.) - 구덕운동장 재개발, 야구장·실내체육관 철거, 생활체육공원 조성(35,643㎡), 105억원, 개장('18.3.)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108억원, 설계공모·실시설계('17.11.), 착공('18.1.), 개관('19.3.)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8개소, 초·중·고6, 지자체2, 23억원), 영도구 동삼동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 지원(L=18m, B=15m, 380㎡, 2.4억원), 황령터널 공유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배드민턴장2, 운동기구6 등, 2억원) - 부산실내빙상장 개보수, 실내링크장 LED 램프 및 제습공조기 교체, 락커룸 확장 등 4.5억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 전 연령층, 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440개 교실, 연 311천명, 282백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생활체육 현장지도 115명[일반 72, 어르신 43], 1,427백만원), 회원종목단체 지원(72개 종목, 대회개최, 참가 지원 808백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유·청소년 20천명 지원) - 생활체육 대회 및 동호인 클럽 지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시장기 등 72개 종목 118개 대회 65천명), 부산시민체육 축전 개최(16개 종목 6,000명, 11.6,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생활체육 국제교류대회 지원(일본, 중국 등 8개 종목 250명) - 전문·생활체육 통합 시너지 제고, 범시민 클럽대항 체육대회 개최(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클럽 지원), 구군 리그전 및 종목별 왕중왕전 개최, 우수클럽 시상, 290백만원

안전		비고
	구·군 재난상황관리 협력 강화	- 전 연령층 -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통한 시↔구·군 상시 연락체계 구축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 훈련 실시, 상황전파시스템(NDMS) 활용 메시지 수신, 초동 조치사항 보고 등
	지역안전 생태계 조성	- 전 연령층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 - 안전체험관 운영 및 관리 강화, 시설 개선, 체험관 운영 실적 관리 등 - 안전생활 체득화를 위한 홍보 강화, 언론연계 안전문화 홍보 확대, 안전행동요령 책자 제작·배포(1만부), 시 홈페이지, 모바일 등 안전콘텐츠 개발
	부산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전 연령층 - 2017년 지진방재대책 마련,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수립(1월), 사업추진(2~10월), 추진실적 제출(11월, 국민안전처) - 지진발생 조기감지 기상관측장비 확대 설치('17년 상반기), 지진관측소(2→4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15→21개소, 450백만원) - 지진재난 대시민 홍보시스템 구축, 재난알림서비스, 행동요령 등
	부산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전 연령층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최종 승인고시(6월), 기장군 풍수해저감계획 반영, 국민안전처 사전검토 신청,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최종 승인 - 재해저감 요인 해소 등 부산시 방재정책에 반영('17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재해예방·저감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활용

	부산형 재난 조기경보체계 구축	- 전 연령층 - 원격방송장치 설치, ’17년, 초등학교(308), 강서구 마을앰프(160), 지하철, 경전철, ’18년, 중학교(172), 고등학교(144), 기장군 마을앰프 (139), 신축 공동주택, 다중밀집시설 등 원격 재난방송장치설치 권장
	재난취약계층 재난심리지원 제도 운영	- 재난피해자 등 취약계층 -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심리지원, 근거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2,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내「부산시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주관, 25백만원(국비 12.5, 시비 12.5),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3월), 대규모 재난 사망자 유가족 장례 지도 및 심리지원(수시),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안정 지원활동(수시), 심리안정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상담전문가 세미나(년1회)
	원전방사능방재대책 추진	- 전 연령층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이전 추진, 법률안 개정, 대선공약 추진 등(지역정치권·시민단체 연계) - 원자력안전위원 원전 소재 시·도지사 추천권 보장, 시·도 행정협의회 공동대응 등 - 市자체 무인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29개소), 기능보강(10개소) - 생활주변 환경방사능 오염분석, 상수도(매월, 4개 지점, 연간 50여건), 보건환경연구원(연간 700여건), 감시차량 1대, 해양방사선 장비 확충, 감시결과 공개(시 홈페이지, 앱) - 민관협력을 통한 고리원전 운영 감시활동 실시, Atom CARE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감시 市 파견방재관 역할 강화, 활동성단층 정밀조사 지역전문가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설명회 개최 추진, 고리2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지역전문가, 민간검증단 참여 및 정보공개 추진, 정부 원전안전 개선대책 이행상황 현장 점검(2회) - 주민보호대책 추진, ‘주민보호조치’ 사항 반영, 실효적인 행동 매뉴얼 수립(6월), 주민보호집중훈련(3회), 광역차원합동 환경방사선 탐지훈련(반기1회), 맞춤형 방사능 방재교육(50회, 1만명), 홍보물 제작·배포, 공무원 전문교육 확대, 방사능 방재 장비·물자 확보 및 비축기지 구축(금정구, 아시아드주경기장[통합])

	방범CCTV 확충	- 전 연령층 -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취약계층 안전 확보, '09~'11년 방범용 CCTV시스템 1~3단계 구축(708대), '10. 12월 폐·공가지역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140대), '11~'16년: 방범용 CCTV시스템 4~8단계 구축(3,379대)
	7개 지명분야 강력수사	- 전 연령층 - 7개 지명분야(환경, 식품, 원산지[2], 공중위생, 청소년, 의약품) 시기별·계절별 기획수사 강화(사회적 이슈사항 신속 수사)를 통한 생활안전 확보
복지		비고
	청년부비론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 이행한 관내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인 자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신용회복, 연 1% 고정금리로 최대 1천5백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청년희망날개통장	- 만 18~ 34세이면서 근로 중인 청년(주민등록 상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고 가구[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주택(임대보증금),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 부산시 지원액 360만원 + 이자 수령), 신청기간, '17. 8. 28.~ '17. 9. 8., 500명 모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 신청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이상 노인(전국 소득하위 70% 수준) - 수급률 제고를 위한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 및 신청 등 홍보 강화, 거주불명어르신 실태조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운영 내실화	- 노년층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시설 확충 지원(9개소, 25억원),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서비스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추진(신축 3개소, 증개축 1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3개소) -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0.5억원), 인증 신청시설에 대한 심사평가 후 인증부여 및 운영비 지원, 신규인증 6개소, 사후심사(기 인증시설) 39개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밑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노인층, 거동 불편 노인 등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무료 식사 제공, 경로식당 82개소 운영, 31.5억원 지원 -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위한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 53개소, 밑반찬 배달 52개소, 18.4억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 장기요양 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477억원), 장기요양 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노후건강 지원, 비용 부담 추정인원 5,902명(기초수급 5,563 기타의료 339)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 제고 추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으로 등급 인정률 제고, 목표 6.7%('16. 6. 30, 인정률 4.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노인들을 대상, 경증의 병약한 저소득노인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48개소, 51.2억원),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급식지원, 주거개선, 상담 및 교육,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등)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4개소, 5.5억원), 경증의 병약한 저소득노인들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단기보호 및 치매노인 일시보호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1개소)

	노인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 독거노인·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17,000세대, 157억원), 안전확인, 가사·일상생활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지원	- 노년층, 학대피해노인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6.6억원), 긴급신고전화, 대면접촉, 서신 등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현장조사, 학대사례 관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 학대피해노인 쉼터 1개소 운영(1.8억원), 숙식제공 등 보호지원,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사후모니터링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책 추진	- 전 연령층 및 복지 사각지대층 등 - 다복동(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안착과 확산, 동 중심의 복지허브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 주도 지역복지문제 해결, 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 '16년 52개동 → '17년 132개동 → '18년 205개동 연차별 단계적 확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소득기준, '17년 35%이하) - 발굴·지원(29억원), 최저생계유지비(4인가구 최대 536천원), 부가급여(4인가구 최대 134천원) 지원
	개별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중 일부, 저소득층 위기가구(중위소득의 75% 이하[금융재산] 500만원[주거 7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최대 1,340천원→'16년(1,273천원) 대비 5.2% 인상, 86,200가구 118천명(4,106억원),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맞춤형 급여 운영 내실화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월동대책비(연50~100천원), 자녀교통비(연304천원) 등(40억원) - 위기가구(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직 및 중한질병 등으로 소득상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96억원), 48시간 이내 지원결정(사후 재산조사를 통한 적정성심사)

	생산적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맞춤형 자활사업 참여 확대로 자립능력 향상 및 탈수급 지원, 광역·지역자활센터(19개소)를 통한 상담, 교육, 취·창업 지원 등 - 근로소득장려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지원,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적립 지원 확대(4,200가구 80억원) - 참여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확대	- 저소득층 -「금융+맞춤복지서비스」 One-Stop 제공, 금융구제절차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부산지방법원 등 유관기관(5개소) 업무연계로 채무조정절차 등 신속 진행 - 금융전문 상담인력(3명) 확충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

자료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건축주택과, 일자리경제본부,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2017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Ⅵ.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해결
2.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정책 설계
3. 공존을 위한 세대간 공감 논의 확대

Ⅵ.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해결

1) 20대 : 경제적 자립 실현 및 사회 진출

20대의 취업난은 경제난, 주택난으로 이어져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부모세대에 다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대는 FGI 조사에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것으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함 점, 생활비 부담, 통신비, 교통비 등의 부담, 취업준비과정, 일자리 등을 꼽았으며, 경쟁, 재희생의 강요 등 치열한 세대이자 혼돈의 카오스 세대라고 스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20대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은 사회진입 시기부터 좌절이 심화되고, 진취적 도전의식 상실로 인한 무력감, 불안감 증대로 이어진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20대 필요 정책 역시 경제적 자립 실현 및 사회 진출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 (재)취업, 일자리 지원 29.6%, 학자금 대출 지원 22.5%, 직업교육훈련 확충 16.5%, 창업 지원 9.2%,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7.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5.1%의 응답을 보인다.

인재가 타도시로 전출하지 않도록 질적 측면의 제고를 통한 좋은 일자리 정책, 청년창업, 1인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20대의 낮은 체감도는 경제·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등과도 복잡다단하게 얼켜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학자금 대출 등 학비 지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보장,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보호 장치에 대한 요구는 현재 20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측면의 제고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30대 :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

30대의 필요 정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육아·양육지원 정책 확대,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직장과 일의 병행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 역시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보증금 지원 17.9%, 공공임대주택 보급 13.3%, (재)취업, 일자리 지원 10.7%, 창업 지원 7.3%, 직업교육훈련 확충 6.9%,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6.3%의 응답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등에 대한 포기는 30대에도 계속된다. 연애, 결혼, 출산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꿈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거나, 같은 부모이면서 아빠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현실은 출산의 포기로 이어지기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04세, 여성은 30.63세로, 전국 평균 남성 32.79세, 여성 30.11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부산의 초혼 연령은 남성 31.05세, 여성 28.04세로 10년 새 각각 1.99세, 2.23세나 높아져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부산 MBC뉴스, 2017. 4. 29).

이는 최근에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여성들 중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별개로 이중노동이라는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만의 고민이라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여성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일자리, 사회활동에 진출했지만 남성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가사노동, 육아에 참여가 꺼려지는 이유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

기가 형성되지 않음과 관련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소득층 가정과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슈다. 정규직, 고소득 여성의 경우도 경력단절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지만 비정규직, 저소득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은 우리 사회의 모두의 현안이다.

3) 40대 : 경제적 부담 가중

설문 조사에서 40대의 필요 정책으로 세금 감면 18.6%, 공공임대주택 보급 12.4%, 전세보증금 지원 10.9%, 창업 지원 9.8%, 학자금대출 지원 9.6%,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1%,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6.4%, 공공요금 감면 5.4%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에도 살고 싶은 도시, 물가 안정,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지원 등을 바라는 정책을 꼽기도 하였다. 세금, 학자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주택 관련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가중되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 및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은 40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끼인 세대, 끊임없이 적응하고 모색하는 세대로 표현한 그들은 자녀 교육문제, 사회생활 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자녀 교육비 부담, 노후 대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자녀 학비 부담, 경제적 문제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가족들을 위한 지출과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 소비, 여가 활동에 초점을 둔다. 각종 세금, 주거비, 교육비 등 고정적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은 40대에 회사를 나온 이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기존 직장 보다는 소득이 줄거

나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노후 대책과 자녀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40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40대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선제적인 지원 제도, 미래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4) 50대 : 안정적인 노후 준비

50대는 FGI 조사에서 퇴직 후 노후설계,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 복지예산 확충 등에 대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50대의 필요 정책은 세금 감면 16.9%, 공공요금 감면 11.8%, 창업 지원 9.3%, 평생교육/상담 지원 9.0%,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8%, 학자금 대출 지원 7.4%, 문화/여가 지원 7.3%, (재)취업, 일자리 지원 6.7%, 직업교육훈련 확충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를 위해서는 세금과 공공요금의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설문 조사와 FGI 조사에서도 50대의 경제적 노후 준비는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50대의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심화와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정작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속없는 세대, 소외 세대, 끼인 세대라고 표현한 그들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그 부담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50대가 퇴직 후 활동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는 퇴직교육 확대, 사회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노년기 준비 교육 등의 지원과 노후필요자금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및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 확대,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5) 60대 : 사회활동 지속 및 건강관리, 문화여가

설문 조사에서 60대의 필요 정책은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감면 18.0%, 문화/여가 지원 13.3%, 공공요금 감면 10.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7%, 평생교육/상담 지원 7.7.%, 세금 감면 6.0%, (재)취업, 일자리 지원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60대를 위해서는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의료비와 세금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60대는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시기이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퇴직 후 아내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주부, 건강 문제 및 자녀들에게 부양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주부, 자녀 부양에 대한 그들의 고민은 FGI 조사에서 만난 60대의 모습이였다.

퇴직 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60대의 고용 연장 지원, 재취업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 강화, 적합직종의 개발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60대의 주체적인 참여, 활동의 욕구 충족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견인할 수 있는 사회활동 지속 및 건강관리, 문화여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6) 70대 :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문화여가

70대는 FGI 조사에서 노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지원,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부여, 삶의 질 제고 등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능력있는 노인의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노년층의 빈부 격차 해소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70대의 필요 정책은 의료비 감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3.8%, 문화/여가 지원 16.2%, 공공요금 감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70대의 필요 정책은 의료비 감면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고용과 관련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질환자 급증하는 70대에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며, 생산적인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사회활동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건강과도 직결된다. 70대는 자신을 보호해주던 인간관계, 재산, 건강, 사회적 지위를 잃어가는 시기로 불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자식들의 돌봄을 받기는 어렵고, 노인 복지가 조밀하지도 못한 불안이 커져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적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서적 부양 등의 공적부양시스템과 정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정책 설계

1) 세대별 공통적인 정책적 욕구(needs)의 충족

주거,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정책적 욕구(needs)는 각 세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대별 공통적인 욕구의 충족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과 연계하여 세대간 공감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주거 관련 정책적 욕구가 강한 계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 30대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40대, 주거에 취약한 70대로 요약된

다. 주거이동이 잦은 20대의 거주 지역 유연성 확보와 주거기회 확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거상향과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주거복지를 위한 쉐어하우스 및 주거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주택공급과 지역공동체 단위의 세대간 주거 공유, 공동체 생활 기반 구축 등 대안적 모델로 고려할 수 있다. 이웃관계의 복원과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한 세대별 정책적 욕구는 공적인 의제로 발전시키기에 충분하다. 생활예술 활동, 아파트 자치회, 독서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는 20, 60, 70대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현재 부산지역의 정책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노인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기획 챌린지를 통해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지, 청년 아티스트들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진 재능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한다든지, 기존의 구립도서관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령자들도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일자리)에 관한 욕구는 전 세대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만큼 부산지역의 정책적 지원 역시 20, 30대의 청년층, 30대 이상의 여성과 경력단절여성,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버, 은퇴자, 노인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고용(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슈는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부산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각 세대의 연령, 지식, 경험에 따라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함을 고려하여 세대간 보완관계를 염두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별로 불균형이 없는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일자리) 편중으로 인한 미스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시민들의 인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정책수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 30대를 위한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의 기반 마련과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출-결혼-가구형성-출산-양육 시기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과 장기 불황 속에 취업도 결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중요하다. 20, 30대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일자리)과 주거 마련,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공동 돌봄 문화 확산, 자녀 돌봄 공동체 형성 등의 접근을 통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체내 어르신들의 역할 정립 및 자존감 회복 지원은 50, 60, 70대의 건강,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어르신 스포츠 재능나눔 봉사, 할아버지 한자교실, 할머니 동화교실, 예절지킴이 교육, 어르신 네일아트 서비스, 어르신 봉사단의 저소득아동 사회 지지망 강화 등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이해와 정서공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전 세대에서 나타난다. 현재, 복지와 관련한 부산지역 지원 정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이 있으며,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독거노인, 거동

불편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지원과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책인 다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세대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한 만큼 개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포괄적인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다복동사업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주민조직을 활용하고 민간 복지기관과의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착안하여[9] 고령자들이 자신이 오랜 세월 살아왔던 지역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이웃, 지인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Ⅵ-1> 세대별 정책적 욕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주거	●	●	●	▽	▽	●
문화·여가	●	▽	▽	○	●	●
고용(일자리)	●	●	●	○	●	●
결혼·임신·출산·양육	○	●	○	▽	▽	▽
건강	▽	▽	○	●	●	●
안전	○	○	○	○	○	○
복지	●	●	●	●	●	●

주 : ●(높음), ○(보통), ▽(낮음)

2) 세대별 정책만족도 제고

9) 일본 최초의 복지전문 생협인 '복지클럽생협'은 설립 당시부터 지역복지와 지역케어를 표방해 왔다. '돌보미 W.Co', '가사 지원 W.Co', '식사 서비스 W.Co'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워커즈콜렉티브를 조직하는 한편,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이용자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결과, 현재 카나가와현 일대에 4개의 택배센터와 데이케어센터, 2개의 그룹홈 등 지역밀착형의 시설을 마련하고, 107개의 W.Co 그룹들이 고령자들의 지역생활과 개호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지역케어의 선진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희망제작소, 2016. 4. 22).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은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와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을 고려한 정책 설계,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예측하는 선도적인 정책 마련으로 정책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는 세대별 욕구를 묶어서 공동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모색하고 세대 간 공감과 이해의 논의를 통해 세대별 정책만족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련한다.

정책적 욕구 (needs)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경제적 자립 실현 및 사회 진출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	경제적 부담 가중	안정적인 노후 준비	사회활동 지속 및 건강관리, 문화여가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문화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주거	●	●	●	▽	▽	●
	문화·여가	●	▽	▽	○	●	●
	고용 (일자리)	●	●	●	○	●	●
	결혼·임신·출산·양육	○	●	○	▽	▽	▽
	건강	▽	▽	○	●	●	●
	안전	○	○	○	○	○	○
	복지	●	●	●	●	●	●

<그림 Ⅵ-1>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와
생애주기별(life cycle) 핵심 현안 매트릭스

주 : ●(높음), ○(보통), ▽(낮음)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지원정책 비교는 현재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수립이 세대의 욕구와 긴밀성을 갖는지, 세대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산지역 주거, 문화·여가, 고용(일자리),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 복지 부문 관련 세대별 정책적 욕구의 반영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다. <표 Ⅵ-2>는 정책의 대상과 욕구를 비교하기 위한 매트릭스이다. 정책적 욕구는 ●(높음), ○(보통), ▽(낮음)으로 표현하고, 정책 대상은 색이 진할수록 정책 수혜 대상임을 나타낸다.

주거 관련 20, 30대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문화·여가 관련 대부분 지원 대상은 노인세대, 신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20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용(일자리) 관련 전세대의 정책적 욕구가 강한만큼 청·장년, 여성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FGI 조사를 통해 만났던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들의 실제 체감하는 만족도나 정책의 인지도는 낮았다. 결혼·임신·출산·양육, 건강, 안전에 대한 정책적 욕구의 반영은 세대별 욕구를 대표하는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나,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적 체감도와 수혜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복지 관련 전 세대, 다양한 연령층을 지원하나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초점이 주를 이루며, 계층별 기준에 따른 사업 위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 30, 40, 50대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면밀한 파악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세대별 수요 조사, 정책의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별 지원의 답습을 지양하고,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전환의 필요성 인식과 실천을 통해 세대별 정책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표 Ⅵ-2>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적 욕구(needs)에 따른 지원정책 비교 매트릭스

주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 젊은층 우선 공급(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긍급잔량 일반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 저층은 부산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햇살둥지사업							- 입주 대상 1순위 지방 대학생(지방 고교생 포함), 2순위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3년 이내), 저소득 서민, 3순위 외국인 근로자 순
쉐어하우스 공급							- 청년1인가구 등
머물자리론							- 부산 거주 중 또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한 만19세~34세 청년
공공실버주택 건립							- 노령층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 취약계층 노인
부산형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 산단 근로자
서민 HOPE 사업 활성화							- 저소득층
매입·전세 임대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저소득층

문화·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온·오프라인 캠페인, 자원봉사단 운영 및 교육, 티켓기부 유치							- 전 세대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 시설수혜자, 문화예술활동단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 거동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대상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시설 확충							- 노인세대, 신노년층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 노년층
노인대학·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 노년층
고용(일자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청년일자리 정책 리더십 강화 (「부산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부산권 대학연합 「청년 취·창업 지원 협의회」 운영)							- 청년층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삼각축 구축 ([가칭]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조성,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확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 청년층
청년 디딤돌 카드							- 부산거주 18~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부산 K-Move센터 신설)							- 부산거주 18~34세 미취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추진 (부산일자리정보망 운영, 서부산권 산업단지 청년고용촉진)							- 청년층
	청년 취업역량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굿알바')							- 대학생 및 고졸이상 미취업자(만29세 이하)
	채용약정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취업 인턴사업, 청·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 대학졸업예정자,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만15~34세), 청년층 등 - 청·장년 실업자(만18~53세)
	국비연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고용부 공모사업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확대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전 연령층 여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							- 전 연령층 여성

	리 창출,「1센터 1특화」잡(JOB) 프로그램 운영, 여성유망직업교육훈련 박람회 개최)	■	■	■	■	■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	■	▒	▒	▒	- 전 연령층 여성
	50+세대 일자리 창출 및 생애 재설계 지원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은퇴자 제3섹터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 50+ 생애재설계 대학 운영)				■	■▒	▒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전통시장 내 장노년 일자리 발굴				■	■	▒	- 만 50세 이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	■	- 만 50세 이상
결혼·임신·출산·양육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결혼 장려 (선남선녀 페스티벌 및 직장단위 만남 프로그램 운영, 작은 결혼식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	■	■					- 미혼남녀

	난임시술비 세제공제율 인상	■	■					- 난임부부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캠페인 확대 (핑크라이트 캠페인(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출산장려 홍보 강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결혼·출산장려 창작 가족뮤지컬 공연,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일·가정 양립 확산 유도, 출산장려금 지원,출산장려기금 조성,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	■	■	■			- 출산가정, 다자녀가정 등
	모자건강힐링센터 설치·운영	■	■	■				-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및 저소득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보육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	■	■				- 0~5세 영유아, 법정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등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					- 3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납부방식 및 영아종일제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3개월에서 만2세(36개

	아동연령 변경	■	■					월)까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아동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					- 6~59개월의 어린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	■				- 중학교 1~3학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연령 확대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13세미만), 청소년한부모
건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	■					- 18~34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층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지원 (의료취약계층 위한 3 for1 통합서비스 확대,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운영,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록관리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	■	■	■	■	■	- 의료취약계층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좋은이웃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	■	■	■		- 만 65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강화					■	■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노인 자살안전망 구축 (신건강증진센터[보건]-노인시설[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	- 노년층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와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지표 관리 (민·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 포럼 및 시민참여 아카데미 운영, 「건강UP! 행복UP! 토크 콘서트」, 시 홈페이지 “건강도시 부산 블로그” 운영, 건강 릴레이 캠페인 전개)							- 전 연령층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건강수준 향상 (금연구역 지도점검 확대, 금연클리닉 운영,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과 건강계단 조성)							- 전 연령층
	지역 밀착형 「마을건강센터」 확대							- 전 연령층
	체육인프라 확충 및 보강 (체육시설 확충, 구덕운동장 재개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부산실내빙상장 개보수)							- 전 연령층
	생활체육 저변확대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생활체육 대회 및 동호인 클럽 지원, 전문·생활체육 통합 시너지 제고)							- 전 연령층

안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요구(needs)	○	○	○	○	○	○	
구·군 재난상황관리 협력 강화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통한 시↔구·군 상시 연락체계 구축,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 훈련 실시)							- 전 연령층
지역안전 생태계 조성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 안전체험관 운영 및 관리 강화, 안전생활 체득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전 연령층
부산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지진방재대책 마련, 지진발생 조기감지 기상관측장비 확대 설치, 지진재난 대시민 홍보시스템 구축)							- 전 연령층
부산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전 연령층
부산형 재난 조기경보체계 구축							- 전 연령층
재난취약계층 재난심리지원 제도 운영							- 재난피해자 등 취약계층
원전방사능방재대책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이전 추진, 원자력안전위원 원전 소재 시·도지사 추천권 보장, 市자체 무인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기능보강, 생활주변 환경방사능 오염							- 전 연령층

	분석, 고리원전 운영 감시활동 실시, 주민 보호대책 추진)							
	방범CCTV 확충							- 전 연령층
	7개 지명분야 강력수사							- 전 연령층
복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비고
정책적 욕구(needs)		●	●	●	●	●	●	
	청년부비론	■	■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 이행한 관내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인 자
	청년희망날개통장	■	■					- 만 18~34세이면서 근로 중인 청년(주민등록 상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	■	- 만 65세이상 노인(전국 소득하위 70% 수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운영 내실화					■	■	- 노년층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밑반찬 배달 지원					■	■	- 저소득 노인층, 거동 불편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 제고 추진)					■	■	- 장기요양 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	■	-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노인들을 대상, 경증의 병약한 저소득노인층
	노인돌봄 서비스					■	■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안전확인, 가사·일상생활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 학대피해노인 쉼터 1개소 운영)							- 노년층, 학대피해노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책 추진 (다복동사업 안착과 확산)							- 전 연령층 및 복지 사각지대층 등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소득기준, '17년 35%이하)
	개별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중 일부, 저소득층 위기가구(중위소득의 75% 이하[금융재산] 500만원[주거 700만원] 이하)
	생산적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소득장려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지원, 참여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운영 확대 (「금융+맞춤복지서비스」 One-Stop 제공, 금융전문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3. 공존을 위한 세대간 공감 논의 확대

1) 가치관의 공유와 시대적 다양성 공감 문화 형성

① 세대 공감 정책 토론회

공존을 위한 세대간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어느 세대든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공공적 사안을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세대초월(generation-trans)의 정책 토론회, 시민 포럼, 축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세대 간 대화를 통한 공감,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 간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process)이 즐겁고 재밌는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폴케뫼데 사례>

매년 6월 중순 덴마크 정치가 코펜하겐 남동쪽의 작은 섬으로 이동한다. 나흘간 열리는 정치축제 참여를 위해서다. 공식명칭은 '폴케뫼데' 우리말로는 민중회의다. 900여 개의 토론과 행사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긴다.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에 10만 명이 다녀갔다. '폴케뫼데'는 7년 전 정치와 국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TV에서나 보던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유명 정치인을 길거리에서 만나 인사하고 정책의 궁금증을 묻고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하다. 휠체어를 타고 5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60대 장애인, 노숙자, 초·중·고등학생도 단체로 참가한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자료 : 류지영(2017: 31)

② 세대별 공감 토크

세대간 중시하는 가치, 생활방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세대 차이로 인한 사회문제나 불편한 점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공장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제, 교육, 취업, 연애, 결혼 등 다양한 고민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는 각 세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다. FGI 조사에서처럼 접촉하는 타 세대의 제한성, 소통의 기회 자체의 부족, 네트워크 장소의 상이성 등을 이유로 세대갈등을 인식한 응답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함께 만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공감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대 공존을 위한 접근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정 시점, 특정 집단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집단 간 협력과 공존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허새나, 2016). FGI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세대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문화 부족과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지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꼽기도 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대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 시행에 대한 필요성(3.77점, 5점 척도 평균 기준)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 공감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동(同)시대인로서 서로를 공감하는 것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핵심이다.[10] 세대

10) Peacock과 Talley(1984)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친밀한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감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과업을 통해 협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미 있는 과업'과 '협력'이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각 세대별 개인적 욕구와 공익성, 두 가지 교집합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을 연계해 얻은 성과 안에서 협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의 긍정적 경험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허새나, 2016). 성장과 생애주기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와의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① 세대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의 모색은 공동체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닌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즉,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시민으로, 주민으로 확인하는 과정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삶의 질, 공공성,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과 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디자인[11]을 통한 전 세대 친화적 복지공간 만들기,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적인 부조의 강화 등이다.

② 세대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정책 추진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주거공유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60대 이상의 복지 예산 증가, 고독사, 청년실업률 증가, 청년 빈곤층 증대와 같은 세대별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영국,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1)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해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 방법으로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확산시켜가고 있다(서울디자인센터 홈페이지).

프랑스는 10년 넘게 '주거공유' 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거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에 6일은 함께 식사하기 등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 단순한 동거인 관계를 넘어, 서로 삶의 일부를 공유하고, 시간을 나누며, 친밀함을 느끼는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2016.10.24.). 주거공유 방식은 비용 절감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대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정책은 세대간 이해의 공유가 주거를 매개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3) 지역정체성 및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공유

①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으로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응답은 2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적 질서의 회복,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 조직 강화가 우선되며, 나아가 주민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생활형 자립도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대 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해서 각 부문들의 역할과 기능적 분담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 조사 응답 역시 동네 단위의 세대 간 화합 및 소통 노력 3.65점, 커뮤니티의 복원을 통한 세대 간 신뢰 회복이 3.63점으로 나타난다. 마을의 주민과 마을활동가 등의 관계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 마을별 또는 의제별로 세대 모임 지원, 마을모임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고유의 건강한 공동체성 회복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② 세대간, 이웃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

세대 간,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응답은 14.6%(1+2순위 응답 기준임)로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은 마을의 이웃을 만나고 마을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눔을 통한 사회적 욕구가 큰 세대를 중심으로 이웃간의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사회적 단절 예방, 세대 간 생산적인 어울림의 봉사활동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Ⅵ-2> 부산지역 세대별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세대별 정책수립의 원칙 마련

세대별 정책수립의 원칙은 세대별 정책이 삶의 긴밀성을 갖도록, 그리고 세대의 제특성과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맥락에서 체계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대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정책 욕구가 반영되고, 보다 효용성 있는 지역정책개발이 점점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서 20대는 (재)취업, 일자리 지원 29.6%, 학자금 대출 지원 22.5%, 직업교육훈련 확충 16.5%, 창업 지원 9.2%,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7.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5.1%의 순으로 필요 정책을 꼽았다. 30대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9.7%, 전세보증금 지원 17.9%, 공공임대주택 보급 13.3%, (재)취업, 일자리 지원 10.7%, 창업 지원 7.3%, 직업교육훈련 확충 6.9%,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6.3% 순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는 세금 감면 18.6%, 공공임대주택 보급 12.4%, 전세보증금 지원 10.9%, 창업 지원 9.8%, 학자금대출 지원 9.6% 순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하며, 50대는 세금 감면 16.9%, 공공요금 감면 11.8%, 창업 지원 9.3%, 평생교육/상담 지원 9.0%,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8%, 학자금 대출 지원 7.4%, 문화/여가 지원 7.3%, (재)취업, 일자리 지원 6.7%, 직업교육훈련 확충 5.8%의 순

으로 세금과 공공요금의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60대는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2.0%, 의료비 감면 18.0%, 문화/여가 지원 13.3%, 공공요금 감면 10.8%,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7.7%, 평생교육/상담 지원 7.7.%, 세금 감면 6.0%, (재)취업, 일자리 지원 5.1%의 순으로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의료비와 세금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70대는 의료비 감면 36.9%,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23.8%, 문화/여가 지원 16.2%, 공공요금 감면 7.8%의 순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와 생산적인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의 세대별 생애주기별 핵심 현안과 욕구는 다양하며, 전반적인 생애설계 및 종합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중요하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의 고려와 새로운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 욕구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체감형 정책 수립, 세대별 공통적인 정책적 욕구(needs)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중심의 세대 정책 추진

지역공동체(community)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Mattessich. et al., 1997)로서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이다(최인수·전대욱, 2014: 10).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기초적인 단위에서 자생적인 발전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세대 성원들의 욕구 반영과 관계회복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有意)하다.

설문 조사에서도 세대 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세대 간 관계회복의 필요성 인식 24.0%, 지역사회 세대참여활동 활성화 20.9%,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원형성 19.2%, 세대 간 연대성의 조직화 18.1%, 다양한 세대협력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11.6%, 호혜와 협동의 경제 활성화 5.8%의 순(1+2순위 응답 기준임)으로 나타난다.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과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 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 마을의 주민과 마을활동가 등의 관계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 마을별 또는 의제별로 세대 모임 지원, 마을모임간의 원활한 교류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건강한 공동체성 회복과 세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동체적 질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은 지역민과 각 세대별 삶의 직접적인 생활정책의 실천의 장이자 정책 집행의 직접적인 장소이다.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다. 정책 개발의 주체로 여러 세대들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세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공감을 통한 세대간 이해 증진 확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화두가 세대 간(inter-generation) 공존이라고 언급했던 인류학자 토레스 길(Fernando Torres-Gil)의 말처럼 이는 제2성인기의 화두이자 생애과제이기도 하다(배영순 외, 2015 :131).

세대 공감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동(同)시대인로서 서로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조사 역시 부산시가 세대통합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으로 각 세대를 존중하는 공존의 가

치를 우선하는 사회 24.6%,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이 적은 사회 22.6%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세대 공존을 위한 접근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기에 시간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집단 간 협력과 공존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허새나, 2016). 세대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세대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공공성,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시민사회 영역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여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용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세대 간 다양성의 인정과 공유, 공감과 포용의 문화 확산, 세대 간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세대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고정된 역할 탈피, 위계와 지시가 아닌 경청과 공감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시민 공론장 확대를 위한 세대별 참여 유도

부산 시민들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 간 소통부족 20.6%,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17.7%, 경제적 양극화 15.4%, 세대 간 문화적, 생활경험의 차이 13.2% 순으로 꼽았다(1+2순위 응답 기준임). 특히, 설문 조사에서 20대는 고집이 셀 때 본인 세대와 다른 세대간의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세대 간 접촉의 양을 늘리고, 나아가 접촉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세대 사회에서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세대 간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인식 또한 20대는 부산지역에 소속감이 없다, 60대와 70대는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시민들은 세대간 관계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서 관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해당사자 세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21.2%,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 및 세대 간 인식 개선 정책 강화 21.1%, 세대 간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19.0%, 세대 간 심리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16.9%의 순으로 나타난다(1+2순위 응답 기준임). 공감에 대한 논의, 새로운 시도와 탐색이 성공적일 경우, 세대간 관계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세대초월(generation-trans)의 정책토론회, 시민 포럼, 축제 등을 통해 세대별 참여를 유도하고, 세대 간 대화를 통한 공감,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 간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process)이 즐겁고 재밌는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1) 시민 라이프 스타일 중심 정책 기조 마련

도시 정책에 있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 기

조를 유지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 체감도는 정성적인 요소로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과 일자리를 통한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삶의 목표에 맞는 맞춤형의 사회를 향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기초가 되어 이를 실현하거나 실천하기 위한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가치관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희망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거나 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일치하는 정책을 통한 지역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시민 라이프 스타일과 욕구와 같은 개인 및 집단적 심리현상, 가치관 등의 의식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경제산업, 도시 인프라 중심에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도시경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부산의 도시계획 등 공간 관련 계획이나 정책이,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 세대/계층/지역 등의 차이에 기반한 일종의 맞춤형 계획 및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테스트베드형 계획/사업/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테스트베드형 계획이나 사업의 예로는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한 도심 대개조나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계획수립 시 반영되고 도시 경영의 새로운 가치 또는 기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참여의 제도화

최근 들어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시민참여형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타운미팅과 같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형 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방식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중지 및 실행, 원전을 통한 발전 계획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등 향후 직접적인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이 확대될 것이다. 2018년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결정을 가진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관련 정책 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세대별 욕구가 반영되고, 가치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시정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간 경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대별 욕구와 이들의 정책적 참여 과정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화 사회의 노년세대들의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해 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Policy Design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Lifestyle Between Generations in Busa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help prepare customized policies by providing basic concepts of citizens' mode of living in Busan. An additional goal was to suggest tailored plans for each generation in the city. To these ends, this study employed reference research,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 (FGI), etc. The key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scussions in regards to research relating to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each generation. This research included advanced study and reference review. Data in news from 1991 to 2016 was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of issues about generations. Second, this study went over each generation's lifestyle,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for generatio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its lifestyle and sense of value. Surveys and FGIs were conducted for this inquiry, which presented each generation's way of life, sense of value, and what they expected from the policies.

Eventually, for the goal of arranging life cycle policy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including: pushing forward strategies tailored to each generation; solving pending issues to implement life cycle policy; designing policies incorporating people's desires; and building a grea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each generation for co-existence. Also, it advised some action plans. First, there should be standards for policy making that reflect real life, characteristics of each generation, and their needs. Second, new policies should give more weight on communities. A good example for this would be to promote resident meetings by communities and agendas, back self-motivated organizations in communities. Finally, there should be a new approach that encourages each generation to take part in common goals and agendas and seek greater understanding on each other, which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civic participation, and a greater sense of citizenship throughout their lifetime.

참고문헌

김민정.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9:3 (2016): 31-54.

김선기.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14): 207-248.

김우성·허은정.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2007): 31-54.

김희삼.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15.

나은영·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및성격 24:4 (2010) 63-92.

류성민 외. 7090세대의 삶의 질과 가치관 분석 보고서. 민주정책연구원, 2011.

박경돈. “세대 간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역발전연구 25:1 (2016): 61-99.

박경숙·서이종·장세훈.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2.

박재흥.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2009): 10-34.

박재흥.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 (2001): 47-78.

박종훈.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 북스, 2013.

배영순·최호진·허새나.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2호, 2015.07.

서용석·전상진.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한국행정연구원, 2013.

오혜영·류진한. “세대공감이 세대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세대 간 이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1 (2016): 44-82.

이호영.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2013.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2004): 31-52.

조성남·박숙미.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 (2002): 39-68.

조성남·윤옥경.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5 (2000): 103-135.

최유정·최샛별.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29:2 (2013): 159-201.

최인수·전대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허새나. 다(多)세대 사회의 세대통합 : 세대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희망제작소 세대공감 시리즈를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2016. 8. 31.

황상민·양진영·강영주.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17:2 (2003):

17-33.

(신문 및 인터넷 자료)

김유나. “초혼 나이 남 33.04세*여 30.63세”. 2017. 4. 29. 부산 MBC뉴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문화공유]청년과 장년, 두 세대가 함께 오순도순 같이살다, 주거공유 <한 지붕 세대공감>프로젝트. 2016.10.24.

희망제작소. [기획연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2016.04.22.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서울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2017년 업무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건축주택과, 일자리경제본부,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부산광역시. 2017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부산지역 세대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설계를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BDI)에서는 변화하는 세대 특성의 중요성과 정책적 결정 반영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대별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의 조사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정책의 제안 및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창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세대간 통합, 세대정책과 관련한 부산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설문 응답에는 맞고 틀림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설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깃드시길 바랍니다.

2017년 5월

■ 연구주관기관 : (재)부산발전연구원

■ 조 사 기 관 : 동남리서치 (T. 051-583-8050, F. 051-583-7030)

응답자 인적사항(1)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SQ3. 거주지	① 중구	② 서구	③ 동구	④ 영도구	⑤ 부산진구	⑥ 동래구
	⑦ 남구	⑧ 북구	⑨ 해운대구	⑩ 사하구	⑪ 금정구	⑫ 강서구
	⑬ 연제구	⑭ 수영구	⑮ 사상구	⑯ 기장군		

Ⅰ. 라이프스타일

※ 현재 부모세대와 별도의 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거주상태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_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어떤 종류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1_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주거전용)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⑤ 사글세(몇 개월치의 집세를 한 번에 내는 방식)
⑥ 무상
⑦ 기타( )

1_3. 귀하께서는 다음의 거주조건 중 무엇을 가장 고려합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평소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주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 ● 3순위 : _____

보기	① 경제적 특성(구입가격, 재건축/재개발 가능성 등) ② 주거편의 시설(쇼핑, 의료 등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성) ③ 주택의 디자인적 특성(건물의 외관/형태/색채/실내인테리어/부대설비 등) ④ 물리적 특성(건물의 노후도, 주차장, 밀집정도 등) ⑤ 부모(자녀)와의 거리(친정, 시댁, 자녀와의 거리 등) ⑥ 사회환경적 특성(주변의 안전성, 외부로부터 사생활 보호 등) ⑦ 직장, 학교와의 거리 ⑧ 기타( )

1_4. 귀하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식료품, 주거, 피복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외식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등 수입 이외에 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_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쇼핑을 주로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통(재래)시장 ② 대형마트 ③ 동네슈퍼
④ 편의점 ⑤ 백화점 ⑥ 인터넷쇼핑몰(홈쇼핑 포함)
⑦ 기타( )

1_6. 귀하께서는 소비에 관한 다음의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비에 대한 인식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라면 비난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적으로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쓰지 않고 저축하기보다 현재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물건을 살 때 덜 실용적이더라도 그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남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소비 취향을 반영한 주문형(맞춤형) 제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_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많이 한 문화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 ● 3순위 : _____

보기		
	① 음악·연주회 관람	② 연극·마당극·뮤지컬 관람
	③ 무용 관람	④ 영화감상
	⑤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관람	⑥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⑦ 스포츠 경기 관람	⑧ 스포츠 활동(등산, 낚시 포함)
	⑨ TV시청	⑩ 공원산책
	⑪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	⑫ 취미·자기계발 (요리,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독서 등)
	⑬ 여행 및 관광 (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⑭ 기타( )

1_8. 귀하의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 함
1) 문화여가를 즐길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혼자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잘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련 지식/기술 등을) 배우거나 알고 싶어서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가족과의 교류 또는 친목도모를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즐거움, 기쁨, 재미 등을 경험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_9.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다음의 참여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참여 활동		전혀 해본 적이 없음	거의 하지 않음	1년에 한번 정도	한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사회 참여	1)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2) 기부활동(현금, 현물, 재능 등)	①	②	③	④	⑤
시정 참여	3) 공적단체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정치토론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5) 투표권유(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6) 투표참여	①	②	③	④	⑤
정책 참여	7) 정책공청회, 주민제안제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①	②	③	④	⑤
	8) 행정서비스 만족조사, 정책심의 모니터 등	①	②	③	④	⑤

1_10. 귀하께서는 다음의 디지털 기기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한 지난 1년간 다음의 디지털 기기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디지털 기기	소유 유무		사용 빈도				
	있음	없음	거의 사용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사용함
1) 컴퓨터(PC)/노트북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스마트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_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 목적		전혀 해본 적이 없음	거의 하지 않음	1달에 1~3회	1주일에 1~3회	하루에 한번 정도	하루에 수시로
정보/지식	1) 검색창을 통한 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2) 관심분야의 글읽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의견이나 생각, 유용한 정보 퍼나르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⑤	⑥
사교	5)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리플)달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채팅/메신저(카카오톡, 라인, 일반문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밴드, 카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SNS에 글 남기기(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오락 여가	9) 온라인 게임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0) 동영상(유투브, TV캐스트 등)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음악 다운로드/스트리밍 듣기	①	②	③	④	⑤	⑥
	12) 웹툰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참여	13) 인터넷 상의 토론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14) 온라인에서 타인 돕기/기부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15) 인터넷 상에서 투표 독려	①	②	③	④	⑤	⑥
	16) 공익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참여 (배너달기, 추모, 청원, 서명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공유	17) 뉴스 링크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18) 사진 업로드	①	②	③	④	⑤	⑥
	19) 음악파일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1_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의 나홀로 소비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나홀로 소비 활동	거의 해본 적이 없음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3회 이상	거의 매일함
1) 혼자 밥먹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혼자 술먹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혼자 영화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혼자 여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_13. 귀하의 지난 1년간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 ● 3순위 : _____

보기	① 식료품 ② 주거 및 가구집기비 ③ 피복비 ④ 교육비(자기 개발비, 등록금, 사교육비) ⑤ 교통·통신비 ⑥ 외식비 ⑦ 경조사비 ⑧ 보건의료비 ⑨ 기타( )

Ⅱ. 가치관

2_1.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다른 세대가 본인의 세대와 차이가 난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경우를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을 때 ② 행동이 생산적이지 못할 때 ③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 ④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 ⑤ 고집일 셀 때(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때) ⑥ 의존적일 때 ⑦ 폐쇄적일 때 ⑧ 기타( )

2_2.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지역의 세대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2_3. 귀하께서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② 경제적 양극화
	③ 고용불안(실업증가)	④ 세대간 소통 부족
	⑤ 세대간 학력 차이	⑥ 세대간 문화적, 생활 경험의 차이
	⑦ 복지정책의 부족	⑧ 세대간 사고방식의 차이
	⑨ 다른세대에 대한 무관심	⑩ 기타(　　)

2_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의 세대의 속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가장 적합한 세대를 1세대만 선택해 주십시오.

세대의 속성	현재 연령대 기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2) 국가적 대의에 충실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3)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5)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7) 이기적인 세대(자기이익에 민감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8) 사회적 배려를 할 줄 아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9) 불운한 세대(시대를 잘 못 타고 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0) 생활의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1) 근면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2)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3) 국가의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4) 문화/교양수준이 높은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5)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6)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7) 호기심이 많은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18) 현실생활에 가장 충실한 세대	①	②	③	④	⑤	⑥

2_5. 귀하께서는 부산지역 미래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자연재해/재난(원전)	② 환경오염
	③ 인재유출	④ 경제적 위험(일자리, 불황 등)
	⑤ 빈부격차	⑥ 세대 갈등
	⑦ 도덕성 부족	⑧ 공동체 해체
	⑨ 범죄	⑩ 저출산·고령화
	⑪ 기타( )	

2_6. 귀하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 가치관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은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내의 일에서는 남녀 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불행한 결혼생활 보다는 이혼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식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_7. 귀하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1)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의사결정 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3) 사회적 집회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_8. 다음 각 두 문장 중에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① 일에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② 일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2)	① 세상의 많은 것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나뉜다	② 세상의 많은 것은 해야 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뉜다
3)	① 나는 야심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②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다
4)	① 악법은 가급적 따를 필요가 없다	②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이 있는 한 따라야 한다
5)	① 돈과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	② 돈과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좋진 않다
6)	① 관습과 권위라고 해서 존중할 필요는 없다	② 관습과 권위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7)	① 회사와 집안일이 여가보다 더 중요하다	② 회사와 집안일 못지않게 충분한 여가생활이 중요하다
8)	① 삶의 경제적/시간적/정서적 여유가 더 중요하다	② 삶의 여유는 사치이다

2_9. 귀하께서는 부산의 5년 후 미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산의 5년 후 미래상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_10.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있다

2_11. 귀하께서는 부산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있다

2_12. 귀하께서는 세대간 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 공동체 內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지역주민 자치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② 지역정체성 및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③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④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세대간, 이웃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 ⑥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전개(마을기업 등) ⑦ 기타(　　)

Ⅲ. 정책

3_1. 세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대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별필요정책	1) 창업지원	2) (재)취업, 일자리지원	3) 직업교육훈련확충	4)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5) 공공임대주택보급	6) 전세보증금지원	7)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8) 학자금대출지원	9) 세금감면	10) 평생교육·상담지원	11) 공공요금감면	12) 고령자고용연장지원	13) 문화·여가지원	14) 의료비감면
2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3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4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5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6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70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3_2. 세대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해서 각 부문들의 역할과 기능적 분담의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대 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한 각 부문들의 역할과 기능적 분담의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지방정부	1)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①	②	③	④	⑤
	2) 리더의 적극적 관심 및 의지	①	②	③	④	⑤
	3)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	①	②	③	④	⑤
지역시민사회	4) 세대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①	②	③	④	⑤
	5)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①	②	③	④	⑤
마을공동체	6) 마을, 동네 단위의 세대간 화합 및 소통 노력	①	②	③	④	⑤
	7) 커뮤니티의 복원을 통한 세대간 신뢰 회복	①	②	③	④	⑤
일반개인	8) 각 세대들의 자발적인 화합 노력과 역량 증진	①	②	③	④	⑤
	9) 세대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3_3. 세대간 갈등해소 및 극복을 위해 적합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이해당사자 세대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②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 및 세대간 인식 개선 정책 강화 ③ 세대간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사업 추진 ④ 지역의 내부자본인 공동체의 노력 ⑤ 세대간 심리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예: 조세, 사회지출, 복지제도 등) ⑥ 세대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지향점)의 도출 ⑦ 커뮤니티의 복원 ⑧ 기타( )

3_4. 귀하께서는 다음의 세대통합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방안별로 필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대통합에 방안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1) 자신과 다른 세대의 가치관의 이해, 경험, 지식,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기능 및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세대 이해 및 통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칭)세대통합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세대 화합과 통합 증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_5. 귀하께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세대간 민주적 관계망 형성 ② 세대간 신뢰네트워크 구축 ③ 세대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 공감하는 포용문화의 확산 ④ 세대간 공동의제에 기반한 참여형 기획 확대 ⑤ 세대간 협동·협력적 정책 추진·확대 ⑥ 세대간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⑦ 기타( )

3_6. 귀하께서는 부산시가 세대통합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은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이 적은 사회 ② 각 세대를 존중(인정)하는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 ③ 분산된 권력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회 ④ 적극적 관심, 협력 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 ⑤ 모든 세대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 ⑥ 기타( )

3_7. 귀하께서는 세대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세대간 관계회복의 필요성 인식 ② 지역사회 세대참여활동 활성화 ③ 세대간 연대성의 조직화 ④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원형성 ⑤ 다양한 세대협력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⑥ 호혜와 협동의 경제 활성화(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⑦ 기타( )

3_8. 귀하께서는 세대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기	① 지역내외 파트너십 강화 ② 세대간 관심 공유 및 공감대 형성 ③ 세대간 전문성을 공유하는 지원제도 강화 ④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⑤ 주제별, 영역별 다양한 연대·협력 활동 지원 ⑥ 공동체 문화의 전파/공유활동 지원 ⑦ 기타( )

응답자 인적사항(2)

SQ4.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재학) ⑥ 대학원 졸업 이상
SQ5.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다음은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작성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면접원 성명	
조사장소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창의연구 2018-01-782
부산지역 세대간 생활양식 차이에 따른 정책 설계

저 자 **오재환, 임호, 박상필**
발행인 **김 민 수**
발행월 2018년1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우)614-8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전화 (051)860-8850, FAX (051)860-8619
Homepage : http://www.bdi.re.kr
인쇄처 (주)동인직업재활센터 ☎ (051)807-6877, FAX (051)897-6879
ISBN 978-89-5896-782-8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8000846)